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4



글 • 서울교육대학교 법과인권교육연구소
그림 • 극동만화연구소

대법원 · 사법발전재단

책을 펴내며

다짜고짜 우리 집을 찾아온 이웃집 아저씨가 문을 열자마자 아이에게 주먹질을 합니다. 그리고 항의하는 아이의 부모님에게 도리어 자신이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어요. 아이가 집안에서 쿵쿵거리며 뛰어놀아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하네요. 결국 큰 다툼이 벌어졌고 아이의 아버지와 이웃집 아저씨는 법원에서 이 다툼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법원에서는 이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법원에서 정한 사람을 통해 서로 대화를 하며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은 재판 외에도 다양하게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각자 개성이 다르고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크고 작은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에요. 다투는 사람들의 주장을 차근차근히 듣고 법에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 법원이 없다면 힘센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다툼에서 이겨서 약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또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를 큰 싸움으로 이끌어 결국 다투는 사람들 모두 피해를 입게 되는 일도

있겠지요. 그래서 법원은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나라의 기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법원을 딱딱하고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법원은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은 후에는 법원이 좀 더 친밀하게 느껴질 거예요.
층간소음 문제 외에도 불법다운로드, 따돌림, 차별문제 등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 책 속에서 진지하지만 쉽고 재미있게 펼쳐집니다. 또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평등을 위해 힘썼던 사람들과 법과 재판을 통해 나라를 지켰던 훌륭한 판사님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1, 2권에서 만났던 우리의 친구 용감한 똘이와 지혜로운 나리, 그리고 정의를 수호하는 요정 바로미가 여러분들을 더욱 신나고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안내할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그럼 법원과 재판의 이야기 속으로 떠나 볼까요?

2024년 10월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등장인물 소개



바로미

정의를 수호하는 법의 요정.
똘이와 나리에게 법과 재판에 대해 가르쳐주고
초능력을 사용하여 특별한 경험을 겪게 해준다.



신나리

똑똑하고 어여쁜 똘이의 여자친구.
침착하고 이성적이지만 똘이와
둘이 있으면 닭살커플이 된다.



한똘

덜렁대긴 하지만 정의롭고 용감한 소년.
장래에 훌륭한 판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나연이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온 소녀.
순수하고 밝은 성격이었지만
왕따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다.



김병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기초를 다진
제1대 대법원장



가정법원 판사

민지와 나연이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판사



민지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부잣집 소녀로 남부러울것이 없어
보이지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다.





제5화
또래조정자가 된 나리 ····· 8

제6화
사이버 따돌림으로 상처받은 나연이 ····· 44

제7화
재판으로 상처를 치유하다 ····· 102

제8화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님 ····· 162

제5화

또래조정자가 된 나리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방과 후에도
바쁘다면서
자리를
비우더니
딱
황금 같은
주말에 조차
또아, 미안해.
캠프에 참여하게 됐어.
다음에 같이 놀자.
캠프면 너도
같이 가지 그랬어?
우물
우물
보통 캠프가 아니라
무슨 교육을 받는
캠프랬어.
또래... 뭐더라?
또래조정
훈련이라던가...
또래조정 훈련?
몰라!! 주말마다
그 훈련 받느라 바쁘대.
또래 말고 똘이에게도
관심을 좀 가져달란
말이야!!!
심하다...


앗!
똘이다.
똘아 안녕
마침 너희 반 친구들이네
같이 놀면 되겠네.
……


안녕
친구들아~
똘아, 여기서
혼자 뭐해?


난 지금 고독한
남자야.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끼리 놀아.
?


똘이가 왜 저러지?
크크~ 나리가 너무
바빠서 요즘 찬밥
신세라 삐친 거야.


이 놀이터 바로 앞이
나리네 집이잖아.
나리가 오늘 캠프에
갔다 온댔으니까
여기서 불쌍한 척
있다가 눈에 띄려는
속셈인거지.


설마… 똘이가 그런 유치한 짓을…
크윽!!
민기의 말이 정답이다.
……
대법초등학교의 진짜 사나이 한똘이 사랑 때문에 별 푼수 같은 짓을 다 하는구나.
여자친구가 그렇게 좋냐? 난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게 더 좋던데…
정신연령이 아직 초딩인 너희들이 날 이해할 리 없지.
너도 우리랑 같은 초딩이거든!!
흥!
윤찬아, 우린 여자 친구가 생겨도 절대 저러지 말자.
당연하지. 혹시 내가 똘이 같은 행동을 하면 민기 네가 꼭 말려줘.


친구야~ 우린 절대 똘이처럼 푼수 되지 말자.
쟤들 참 쿵짝이 잘 맞네.
유치원 다닐 때부터 단짝이었으니깐.
저것들이...


똘아. 나리가 오려면 멀었으니깐 궁상은 그만 떨고 우리랑
술래잡기나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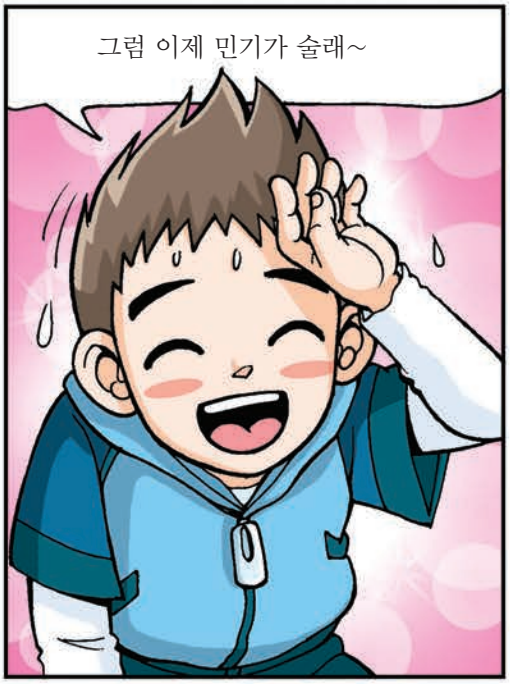

우리 술래잡기 말고 스피드 컵 쌓기나 다른거 안 할래?
컵도 없는데 스피드 컵 쌓기를 어떻게 해? 그냥 술래잡기 하자.


똘아, 술래잡기 콜?
기분도 그런데 몸이나 좀 풀어볼까?


끄응....
이건 아닌데...


끄아아아아
똘이가 술래야!
어흥! 누구든 내 손을 벗어날 수 없다.
살고 싶으면 도망가!
크크크!
오늘 나의 먹잇감은 누구로 할까?
윤찬이는 너무 쉬우니깐 통과~
아코!
엥?
쌔~ㅇ
내 표적은 육상부 에이스인 ...!!


민기!!
꼬악!!
왜 나야?!
끼아아아


그럼 이제 민기가 술래~


꺄르륵~ 나 잡아봐라~
하
하
하
끄으응... 약올라.


하하하 시작하자 마자 잡혔구나.
칫! 내가 잡힌 게 그렇게 좋더냐?
나도 만만찮게 무서운 술래거든!!
안 무서운데…
메롱~
하하하
으드드드…
잡아봐.
헉!
큭!
쳇!


치잇.. 완전히 자존심 구기는데...
하
하
하
다들 왜 이렇게 재빨라?
하아..하아... 숨차...
..응?
으하하하!! 드디어 잡았다!
텀
벅


이제 윤찬이가 술래야!!
하하하. 윤찬아 나 잡아봐라.
으윽..으으


...?
윤찬아?


윤찬아 왜 그래?
어디 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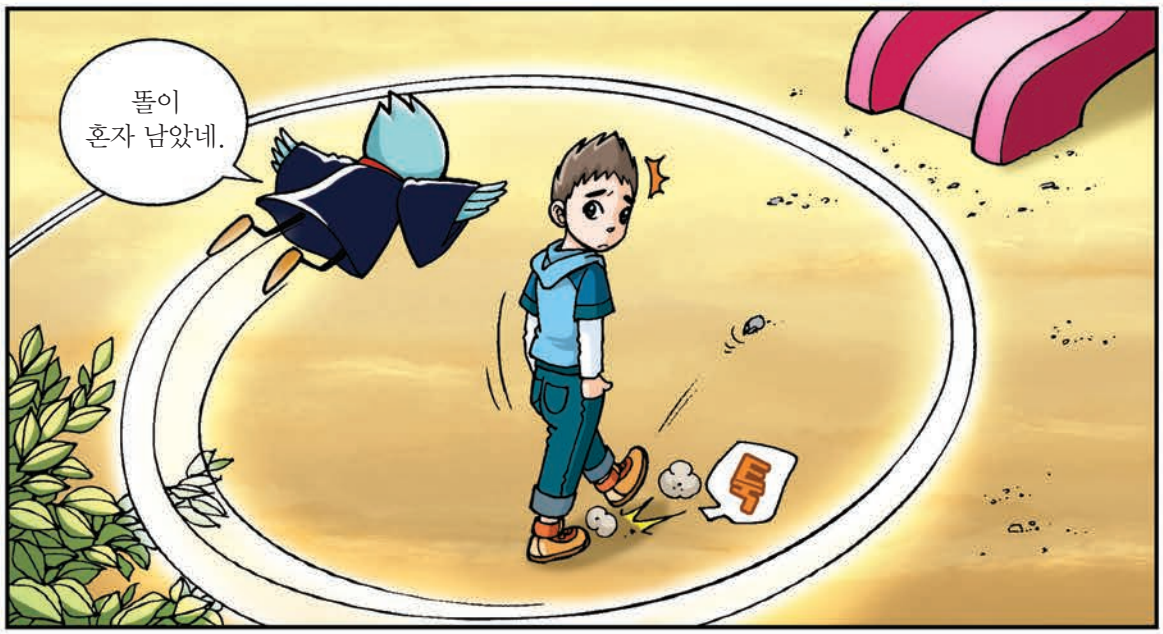

다쳤어?
윤찬아?
...


김민기! 그렇게 세게 때려야겠어?
너무 아프잖아!!


야, 놀다가 그럴 수도 있지.
너 고작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었던 거야?
고작?
벌떡
너 말 다했어?
우리가 술래잡기하는 거지, 때리는 놀이 하는 거냐?
실수로라도 세게 때렸으면 사과를 해야 맞는 거잖아!
야, 너 속 좁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삐지냐?
뭐? 속 좁다고?
에이, 왜들 그래
얼마나 아픈지 너도 맞아볼래?
그래! 때려봐! 때려!!


야! 진짜!! 너희들 당장 그만두지 못해?
잘 놀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야?
똘이 열 받았다.
민기가 먼저 나한테...
응! 나도 봤거든.
저 쪼잔한 자식이 별것도 아닌 일로...
그만 하라구 했지?
너희 둘이 단짝 친구인 거 세상이 다 아는데 왜 그래?
구구절절 따지지 말고 사나이답게 그냥 둘 다 화해해!


싫어!!
헉
엥?
난 친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필요 없어!!
유..윤찬아?
민기야?
나야말로 속이 좁쌀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분위기가 참 이상해 졌네.
난 그냥 집에 가서 게임이나 할래.
똘아, 안녕
월요일날 학교에서 보자.
그..그래 잘가.


똘이
혼자 남았네.
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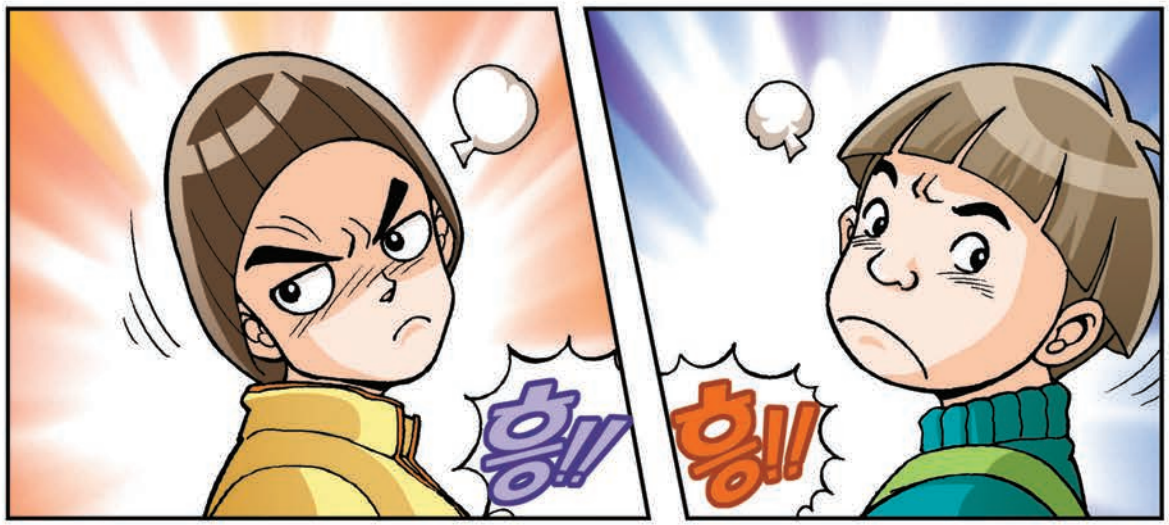

아, 진짜
꿀꿀하게 시리…
민기랑 윤찬이는 뭐
그런 사소한 걸로
싸운담?
그냥 좀 화해
하라니깐…


너도 화해를 시키고
싶었으면 두 사람의
말을 잘 들어봐야지.
무조건 윽박지르기만
하면 기분만
상하잖아.


내가
그랬어?
응!


네 장래희망이
판사라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해.
판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공정하게 듣고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니깐.


아뿔싸... 그랬구나. 내가 너무 성급하게 굴었어.
그렇게 좌절할 것까지야.
아! 나리다.
어머. 똘아, 바로미야 거기서 뭐해?
나리야, 드디어 돌아왔구나
응. 그런데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왜 그래?
그게...
네가 없는 동안 너무 외로워서 괴로웠거든. 보이지? 내 다크서클!
어쩜 그랬어?
으이구~ 벌써 민기랑 윤찬이 일은 다 까먹었구나.
대범초등


흥!!
흥!!


쟤들은 아직도 냉전 중이네...
어머, 민기랑 윤찬이는 절친사이였잖아. 무슨 일 있었어?


같이 놀다가 정말 사소한 일로 다투었는데 좀처럼 화해할 생각을 안 해.
.....


똘아, 각 층 복도 게시판에 포스터를 붙여야 하는데 좀 도와줄래?
도와주고 말고. 근데, 그게 뭐야?

친구와 다투거나 오해가 생겼을땐

또 래 조 정

안녕하세요 대법초등학생 여러분
우리 학교에 또래조정제도가 생겼어요
또래조정은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갈등을
또래학생이 조정자가 되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고 친구들과 화해할 수
있도록 또래조정자가 도와줄 거예요
모든 일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약속
드리니 안심하고 신청해주세요

신청방법 : 중앙현관에 설치한 조정신청함에 신청서를
써넣거나 학교 홈페이지 또래조정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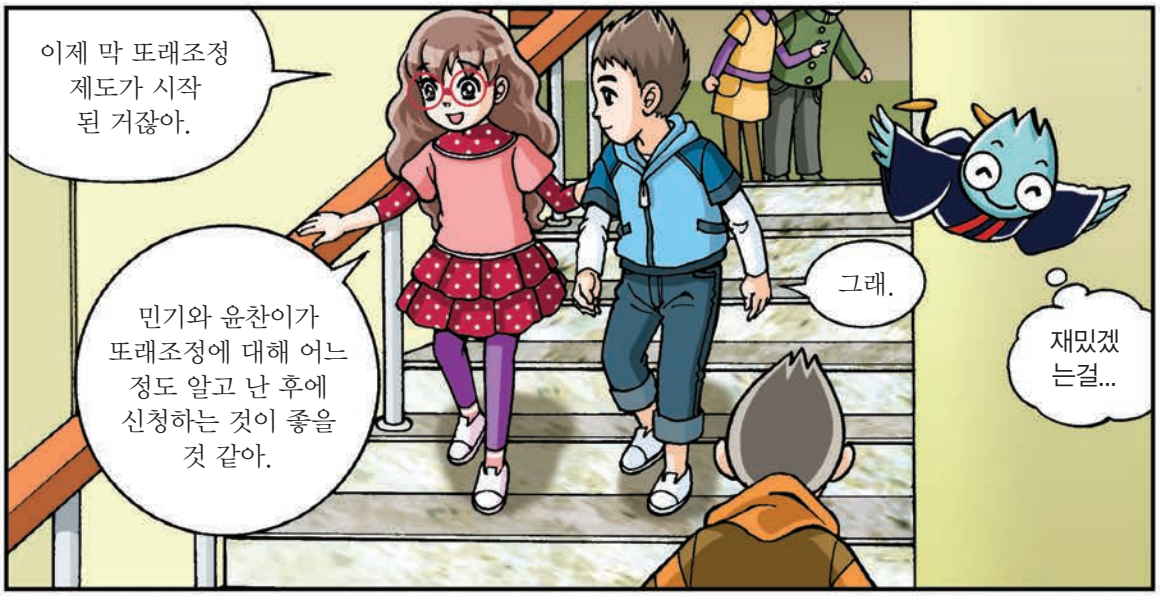

'조정'을 또래 친구가 하는 것이 또래조정이야.
이제야 교육을 모두 마쳐서 우리 학교에서도 시행하기로 했어.
호오~ 어떤 교육을 받았어?


법원에 가서 조정제도에 대한 강의도 듣고 재판 과정을 견학 하기도 했어.
또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가상으로 정하고 모의조정을 해보기도 했지.


판사님을 직접 만나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어.
우와~ 부러워. 재미 있었겠다.


맞다! 그럼 민기와 윤찬이도 또래 조정을 받으면 되겠네.
혹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해?


가능하면 내가 민기와 윤찬이의 또래조정을 신청 하고 싶어
가능하긴 한데...


이제 막 또래조정 제도가 시작 된 거잖아.
민기와 윤찬이가 또래조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래.
재밌겠는걸...


월요일 조회시간. 나리와 또래조정자 친구들이 방송실에서 발대식을 가졌고
대법초등 또래조정 발대식


교장 선생님께서 또래조정에 대해 소개해 주셨다.
또래조정자가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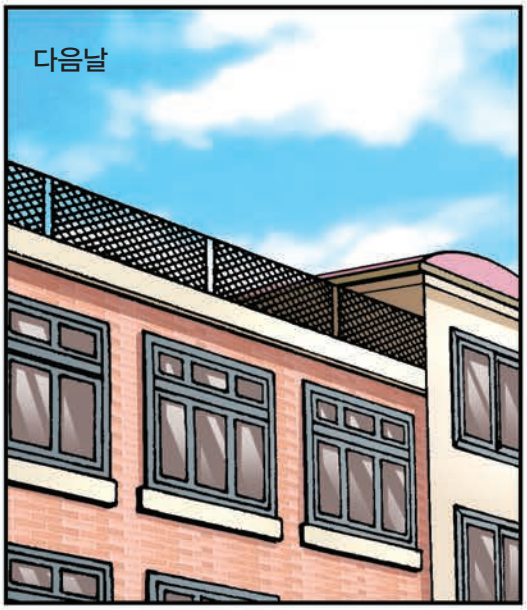

또래조정자는 중립적이고 모두를 평등하게 대우하며
조언을 하지 않고 모든 일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입니다.
...!


다른 친구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다거나, 친구와 화해를 하고 싶을 때
또래조정...
또래조정을 신청해 보세요.
또래조정
이라고?
흥!!
으이구!! 더 이상은
못 보겠구만.
민기와 윤찬이는
또래조정이
꼭 필요해!
그냥 내가 후딱
신청서를 써
내야겠어.


또래 조정 신청서
신청자
조정 당사자
한 돌
조정 당사자 1
조정 당사자2
신청자 정보
김민기
정윤찬
교우관계


희망
또래조정자


당연히 신나리
학생회장이지~


다음날


또래조정
신청함
어머!
드디어 첫 번째
조정신청서가
왔네.


호호... 똘이가 쓴 거잖아.
배려심 많기는...
민기랑 날?
너랑 민기 사이를 또래조정 해 달라는 신청서가 들어왔어.
나리는 곧장 윤찬이를 찾아갔다.
응. 너희 두 사람이 도통 화해를 하지 않는다고 똘이가 신청했어.
쳇! 남의 일에 참견은 ....
어때? 또래조정을 한번 해 보는게?
내가 반드시 동의해야 되는 거야?
내키지 않는다면 거절해도 돼.
민기와 너, 두 사람의 동의가 다 있어야 조정을 할 수 있거든.
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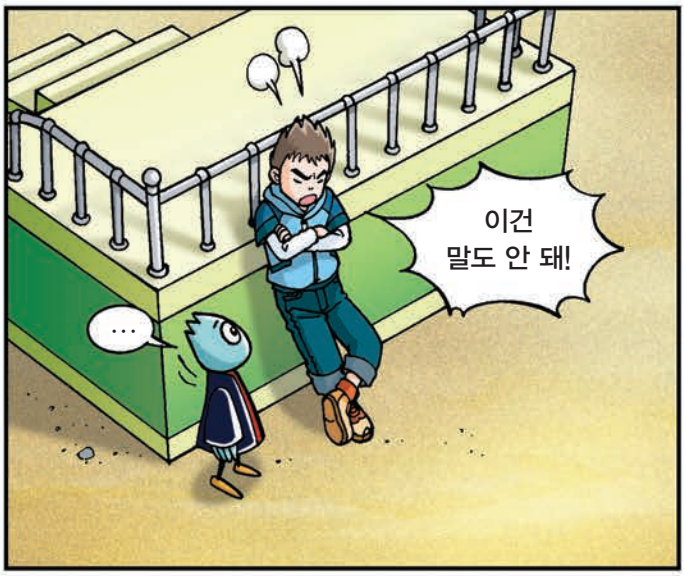

뭐.... 똘이의 성의를 거절하기 미안하니깐
일단 동의해 보지 뭐...
!


뭐? 윤찬이와 또래조정을?
내 생각도 너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화해를 했으면 해.


일단 똘이를 생각해서 나도 동의한다.
윤찬이 녀석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지.


누가 친구 아니랄까봐 반응이 똑같네.
그럼 또래조정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말해줘.


너랑 윤찬이의 일정을 맞춰본 후에 시간을 정해 초청장을 보낼게.
난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언제라도 O.K.야.


이건 말도 안 돼!
...


내가 신청서를 써서 두 사람이 또래조정을 하게 됐는데
나는 또래조정 자리에 끼일 수 없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또래조정의 원칙이 중립성과 비밀 유지라잖아.
진정해.
바로미, 우리 몰래 보러 가지 않을래?
나리가 어떻게 할지 또래조정 과정은 어떨지 궁금해.
따닥
따닥
그냥 끝난 후에 나리에게 물어봐.
야. 저번에 민기랑 윤찬이가 얼마나 살벌하게 싸웠는지 너도 봤잖아.
나리가 혹시 곤란해 지는게 아닐지 걱정도 안돼?
으이구! 아주 협박을 하는구나, 협박을...
오옷! 감사
샤랑
또래조정실

〈또래조정 과정〉
① 소개하기










다섯째, 분노를 폭발하지 말고 차분하게 말로써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화를 참지 못할 경우엔 일시중지를 요청하거나 이야기를 다음 순서로 넘겨도 좋습니다.
흐음…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


여섯째, 서로가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규칙에 모두 동의하십니까?
네….
자식들~ 매너 좋은데. 깍듯이 대답하는구만
암!
그래야지.


② 입장 나누기
우선 민기부터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말씀해 보세요.
잘한다. 우리 나리!


헛흠! 술래잡기를 하다가


내가 윤찬이의 등을 쳤는데 윤찬이가 갑자기 화를 내더군요.


우린 놀이 중이었고 일부러 세게 때리려고 친 것이 아닌데 윤찬이가 대뜸 화를 내 당황했죠.
게다가 윤찬이가 주먹까지 들이대니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건…!


자! 윤찬이는 왜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나요?
후우..! 일단 진정하고 심호흡……!
…


전 사실 달리기를 잘 못해서 술래잡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민기가 하고 싶어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런데 민기가 일부러 저를 잡고 제 등을 세게 치니까 화가 났죠.


야! 내가 언제 일부러...
벌떡
!


민기. 진정하고 앉으세요.
차근차근 각자 이야기할 차례가 올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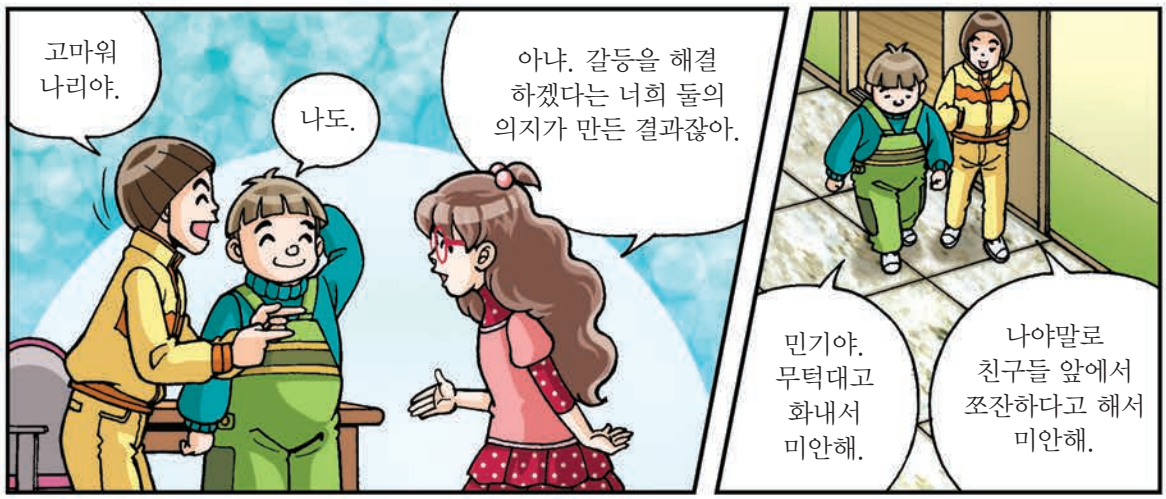

네
나리 카리스마 짱!
……


③ 문제 찾기
자! 그럼 다음은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를 이야기 해 보도록 하죠.
나도 얘기 하고 싶은데 ~
민기가 저를 일부러 잡은 것 같아요.
전 운동신경이 좀 둔해 만만 하잖아요.
일부러 윤찬이를 노리고 잡은 건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을 계속 놓치고 윤찬이를 잡은걸요.
일부러 목표를 정해서 잡은 건 똘이였지.
헤헤~ 대신 난 발이 느린 윤찬이는 봐줬잖아.
그 부분은 제가 오해했던 것 같네요.
민기가 저를 너무 세게 때려서 감정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달려가면서 등을 친 것이 그렇게 아플 지는 몰랐죠.
아파서 주저앉은 사람에게 고작 그것 때문에 앉아있느냐며 속 좁은 사람 취급 하는데 참을 수 없었어.
윤찬이 너도 화부터 내지 말고 좋게 말했다면 나도 이해했을 거라고.


④ 해결책 찾기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문제를 풀 방안을 서로가 말해보도록 하죠.
달리기를 잘 못하는 날 민기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놀이에 참가했으면 규칙에 따라야죠. 술래잡기는
도망 다니는 친구를 잡거나 치는 놀이인데 조금 세게 친 것을 때렸다고 하는 것은 너무해요.
그래요. 서로의 입장을 솔직히 말했군요.
그 문제점을 해결 할 방법은 없을까요?
뭘 눈치를 보고 그래?
그냥 화끈하게 속마음을 다 말해버려!!
……
……
낭
동


상대방에게 화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친구들 앞에서 속이 좁다고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자신들을 돌이켜 보며 스스럼없이 말할 수 있다는 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충분해...!
⑤ 합의하기
윤찬이는 민기의 해결 방법에 동의합니까?
흠…
…
…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함께 놀 때는 상대방도 원하는 놀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
나도 동의해요. 그런데 난 윤찬이가 술래잡기를 싫어하는 줄 몰랐어요.
앞으로 윤찬이가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
끔적
끔적


좋아요. 그럼 각자 상대에게 바라는 점을
합의서에 쓰고 서명해 주세요.
또래조정 합의문
조정자
조정날짜
년 월 일
당사자1
당사자2
위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 하였다
년 월
당사자1
당사자2
너석들 드디어
화해하는 구나!
…!
축하해 얘들아
우리 또 같이 놀자.
이제 또래조정은 원만하게 합의 되었군요.
두 친구는 앞으로 합의서에 적은 내용을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워 나리야.
나도.
아냐.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너희 둘의 의지가 만든 결과잖아.
민기야. 무턱대고 화내서 미안해.
나야말로 친구들 앞에서 쪼잔하다고 해서 미안해.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오해까지 했어.....
사실 나도 어떻게 사과할까 고민했었어.


야! 너랑 못 노니깐 너무 재미없더라.
나도야! 똘이한테 고맙다고 해야겠어.
툭


우리 오늘은 뭐 하고 놀까? 네가 하고 싶은 거 말해봐.
음~


재네 합의한 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
또 다시 대화를 시도해야겠지. 친구니깐!


또래조정자는 두 사람이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고
단지 공감해주는 역할이지만 그것만으로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는 거야.


또래의 일은 또래가 가장 잘 안다는 생각에서 또래조정이 시작됐어.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어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곧 여러 나라로 전파되었지. 우리나라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어.


또래의 일은 또래가 해결한다!!
좋은걸~


드르륵
나리야!!


수고했어. 너무너무 멋있더라.
민기와 윤찬이가 차분하게 말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하던 걸.
뭐?


똘이. 너 또래조정 하는 것을 몰래 본 거야?
응! 사실은 바로 네 옆에 있었지롱~
또래조정의 중요한 원칙은 비밀유지야.
어떻게 민기와 윤찬이의 동의도 얻지 않고 마음대로 그 원칙을 깰 수가 있니?
너 실망이다!
나... 나리야?
나리가 화났네... 무섭다.
싹
으아~! 바로미 어떡해?
그..글쎄 너도 또래조정을 신청해 보는 건 어때?



제5화 심화학습

또래조정, 이런 단계로 해요.

앞에서 또래조정에 관해 간단히 소개했지만, 여기에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갈등 조성 사안을 접수한다.



2. 사전모임 : 당사자들을 따로 만나서 각자의 이야기를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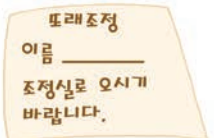


3. 갈등분석 : 각자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갈등해결을 위해 각자의 마음을 분석한다.



4. 본 모임을 위한 약속을 정한다.





출처: 학생주도형 관계중심 생활교육 또래조정자 양성과정(초등). 202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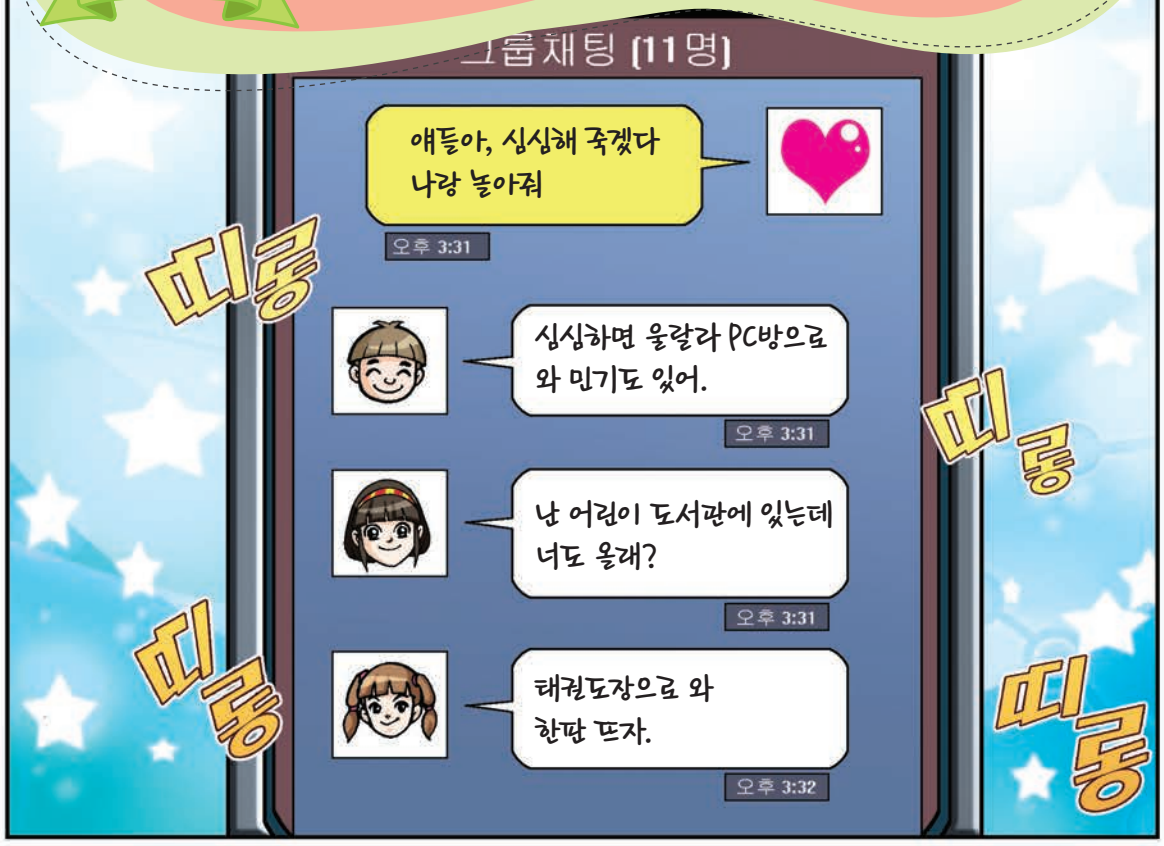
또래조정 단계

1단계 소개하기	• 환영과 인사하기 • 조정을 위한 기본 규칙을 말하고, 조정자의 역할 이야기하기 • 조정 과정 설명하기
2단계 입장 나누기	• 갈등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 하기 •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하기 • 공감하는 질문하기
3단계 문제 찾기	• 서로의 이야기에서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 • 공통점을 중심으로 서로를 이해해보기 • 각자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 풀어야 할 문제 찾는 질문하기
4단계 해결책 찾기	•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각자의 필요 말하기 • 갈등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하기
5단계 합의하기	•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합의 내용 정하기 •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명하기 • 합의된 해결안을 최종 확인하기 • 합의문 이행 확인을 위한 모임을 제안하기

출처: 학생주도형 관계중심 생활교육 또래조정자 양성과정(초등). 202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제6화

사이버 따돌림으로 상처받은 나연이








나러가 학생회의 중이라 가방을 지키고 있는 중!
나러가 집에 갈 때도 내가 옆에 꼭 붙어서
보디가드 해줘야 됨. 요즘이 좀 무서운 세상임?
도도도도
도도도도
히야~ 저 손가락 움직이는 속도 보게 저것도 일종의 초능력이지.
또, 나리냐?
으이구, 못 말려.
넌 심심해도 싸.
윤찬님이 퇴장했습니다.
채이님이 퇴장했습니다.
진실님이 퇴장했습니다.
엥? 애들아..?
갑자기 썰물 빠지듯 애들이 채팅방에서 빠져나가네?


혹시 나 왕따?
싱거운 소리 말고 가방이나 챙겨. 곧 회의가 끝날 시간이잖아.
에이~
지겨운데 나가서 기다려야 겠다.
무슨 짓이야?
앞 좀 보고...
타
닥
엇?
와다다다
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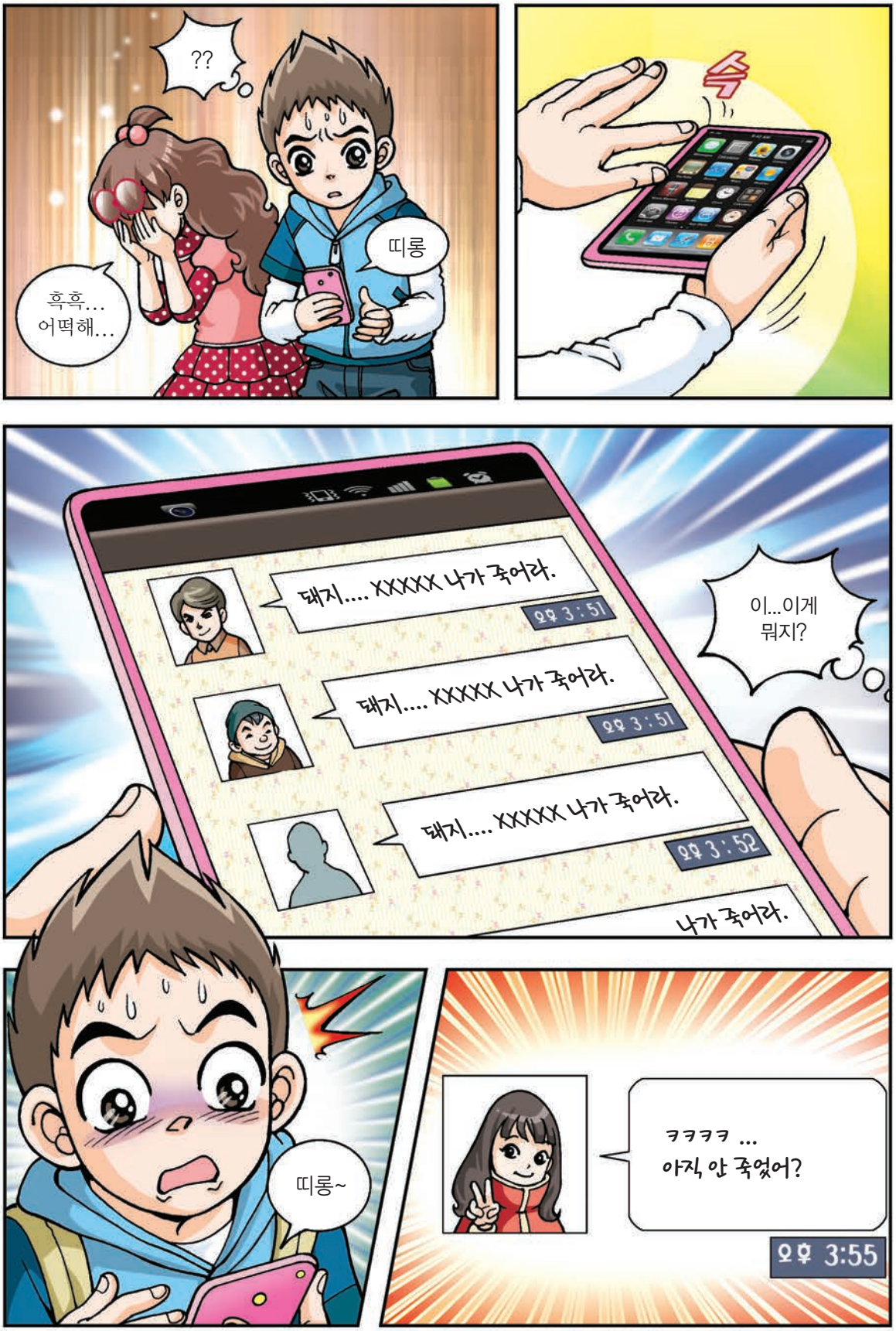

후다다다다
뭐지? 얼굴이 온통 눈물 투성이야...
옆 반인데 모르는 친구야?
올해 초에 전학 온 애야. 이름이 나연이랬던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안 좋은 소문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었어.
안 좋은 소문?
자세히는 모른다니깐.
똘아~ 미안미안 내가 많이 늦었지?
탁
타다
아냐. 어서와.
똘아, 폰 떨어뜨렸어?
응? 내 껀 가방 안에 있는데.
띠롱


좀 전에 부딪친 그 애 껀가봐.
그런가 보네.
띠롱~
계속 메시지가 오는데...?
띠롱~
띠롱
교무실에 갖다 드려.
아냐. 내일 내가 직접 전해줄래.
좀 전에 그 표정도 신경 쓰이고.....
그런데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간다니 너무 기대되지 않아?
응! 난 제주도는 처음 가봐.
므흣~ 우리 엄마, 아빤 신혼여행을 제주도에서...
꺄악!
또..똘아 저..저기!!


재는 아까 나랑 부딪쳤던.....
!
안돼!!


에잇!
번쩍
쌩
나..나무가...!!
HOR
바이옥


삐뽀삐뽀
에에엥
에에엥
나연이가
.....
AMBU IANCE
AMBU IANCE
띠롱


??
띠롱
흑흑...
어떡해...
슥
돼지.... XXXXX 나가 죽어라.
오후 3:51
돼지.... XXXXX 나가 죽어라.
오후 3:51
돼지.... XXXXX 나가 죽어라.
오후 3:52
나가 죽어라.
이...이게
뭐지?
띠롱~
ㅋㅋㅋㅋ ...
아직 안 죽었어?
오후 3:55


나연이는 바로미의 마법 덕분에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응급실
팔목골절과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대체 우리 나연이가 왜...?
크흐흐흑...
대체 학교옥상에서 뛰어내린 이유가 뭐지? 성적비관?
글쎄... 부모님이 맞벌이라 바빠서 아이에게 큰 신경을 못 써주었다던데...
어쨌든 초등학생이 자살시도를 하다니...
너무 살벌하군...


그런 끔찍한 장면을 보다니… 똘아, 많이 놀랐지?
…
네 옆엔 언제나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안심하렴.
똘아?
스윽
오늘은 좀 일찍 잘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엄마, 아빠.
저녁도 안먹고 계속 멍한 상태예요.
당장 오늘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잊겠어. 일단은 우리가 세심히 지켜보며 상태를 보자구.
똘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나 봐요.


똘아
괜찮아?
……


… 자꾸
후회가 돼…


나연이랑 문 앞에서
부딪혔을 때
왜 울고 있냐고
물어볼걸…


만약 물어봤다면
어쩌면… 나연이가
옥상에서 뛰어
내리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똘아…
이거
큰일났네.
파
닥
파
닥
파
닥
도울 수도
있었는데…


왜 우는 걸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내가 나연이를 도울 수
있었는데……


띠롱
띠롱
내 폰이 었구나.
탁
띡
나리의 문자야.
똘아, 나연이 폰을 경찰에게 드려야지.
.....
?
내일 아침에 경찰 아저씨께 드리자.
하지만 그 전에 나연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나연이를 돕고 싶어.
그러지 않으면 영영 오늘일을 후회하게 될 거 같아.
.....
좋아. 나연이 폰의 코코아톡 내용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
그게 뭔데?
휙
휙
내 초능력으로 나연이 폰의 기억 속에 들어가 보는거지.
정말? 그게 가능해? 그럼 당장 해봐!!
헉! 니가 날 놔줘야 초능력을 쓰지.
따닥
따닥
♪ 징가 ~ 징가 징가 ~♬
똘아. 뭐해? 아까부터 문자 보냈는데 확인 못했어?
미안해. 이제까지 엄마, 아빠랑 함께 있었어. 두 분도 많이 놀라셨나봐.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는 내가 다닐 상담센터를 알아보고 계셔.
정신적 충격은 오래간다고 말야.
나리야. 너 지금 나랑 어디 좀 같이 안갈래?
째깍 째깍 째깍
뭐? 지금은 너무 늦었잖아. 엄마도 허락하지 않을거라구.
바로미가 나연이 폰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게 해준다고 했는데…
뭐? 진짜?
나리를 이쪽으로 오게 할테니
끊지말고 폰을 내려놔.
뭐? 폰을…
똘앗!?
나..나리야!!
어머?!


내가 누구냐?
천가지, 만가지
뭐든 가능한
바로미잖아!
슈아아아


와~ 신형
스마트폰!!


우짜믄 좋노~
나도 인자 스마트한
인간이 됐뿟네~
시골에서 이사
왔다고 친구들이
만만하게 볼까봐
사주는 거니깐
학교생활
똑디
잘해라.


엄마, 아빠는 인제
서울에서 자리잡을라카면
한참 바빠질끼야.
걱정마이소.
잘 할끼요.


헉! 사투리다.
말투가 참 특이하네.
이거 갖고
뭐하지?
나연이는 원래
저렇게 밝은 친
구였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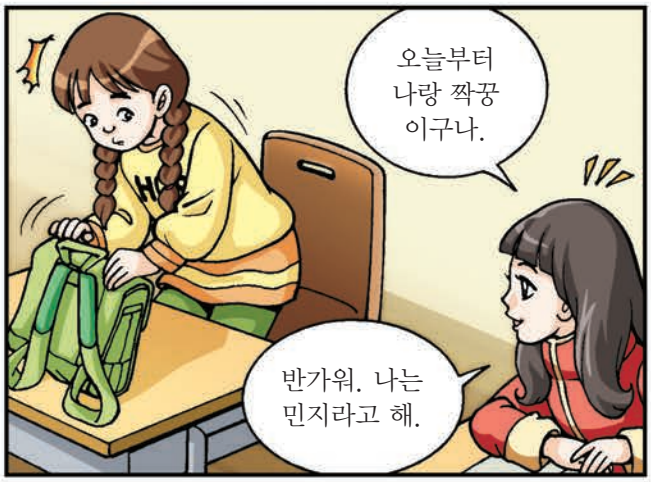

우선 코코아톡부터
깔아야지.
앗싸라비야~
그런데 어쩌다
그런 몹쓸 선택을
한걸까?


흐갸갸각 지각이다! 뛰어, 나리야!
난 틀렸어. 너 먼저가.
!
아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와~ 과거의 우리들이야. 신기해.
이...이상한 애들이다.
흑... 나 때문에 널 희생 시킬 순 없어.
오늘부터 내도 대법초등학교의 학생이 되는거재.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 좋겠다.
6-1
깔
깔
깔
깔


하하하.
억양 완전
대박!!
홍 나 연
모두들 그만!
친구의 말투를
놀리면 못써요.
쟤 자기소개를
뭐라고 한거야? 하나도
못 알아 듣겠어.


나연아. 1분단 끝에
빈자리 있으니
거기가서 앉으렴.
네...


부...부끄러워...
쿡쿡...
히히


오늘부터
나랑 짝꿍
이구나.
반가워. 나는
민지라고 해.


아..안녕.
와~ 억수로
예쁘네. 아역
탤런트 같아.


나연이의 채팅창에서 민지의 이름을 봤어.
민지랑 몇몇 아이들이 심하게 괴롭혔던 것 같아.
설마 그럴리가... 민지가 학교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민지가 많이 유명해?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데다가 아빠가 큰 병원의 원장님이래. 소위 '엄친딸'로 불리는 모범생이야.


띠리리링
서울 구경은 많이 했어?
엄마, 아빠가 바쁘시가꼬 아직 아무데도 못가봤다.


어머, 그럼 오늘 나랑 놀러 가자.
우와, 진짜가?
윽!!
벨렐렐레


민지야. 오늘 새 과외 선생님이 오시니까 일찍 들어오라고 했잖아. 지금 어디니?
엄마. 나 이제 막 수업 끝났는데 조금만 놀다가면 안돼?
아니 얘가 무슨 한가한 소리야?! 오늘 오시기로 한 선생님이 얼마나 유명한 선생님인 줄 알아?
샥
지금부터 그렇게 놀 생각만 하면 나중에 대학은 어떻게 들어가려고 그래?
이게 우리 엄마야... 미안해. 우리 다음에 놀러가자.
내는 괜찮다. 언능 집에 가.
아! 네 폰 좀 줘봐. 내 폰번호 가르쳐줄게.
여... 여기.
코코아톡 친구 등록 해놔. 같이 채팅 하자.


알았어. 엄마. 지금 간다구 가!!
와아... 저래 예쁜 애랑 내가 친구가 된기가...
처음의 나연이와 민지는 가까운 친구사이로 발전한다.
나연아. 얼른 폰 끄고 안 자나?
네 엄마.
띠롱
띠롱
띠롱
나랑 친하게 지내는 우진 오빠야.
안녕.
아..안녕 하세요.
우와... 니 중학생 오빠랑 알고 지내나?
헛! 내가 좀 정신연령이 높아서... 채팅하다가 만났는데 알고 보니 우리 이웃에 살잖아.


오빠는 누구보다도 날 이해하고 위해 주는 걸. 부럽지?
후후… 오늘은 뭐하며 놀까?
글쎄… 오늘은 모처럼 학원을 땡땡이 치니깐.
어머, 음악회 잖아.
작은 음악회 TOTO
민지야.
이곡 많이 들어봤는데 혹시 제목이 뭔지 알아?
아..아니. 나도 잘은 몰라.
너무 아름답다. 플롯 소리는 언제 들어도 좋더라.
소리가 정말 예쁘네.


난 사실 음악가가 되는게 꿈이야.
하지만 엄마는 내가 의사가 되어야 한대.
.....
우리 이거 다 듣고 갈까?
응.
난 클래식 음악만 들으면 잠 오는데...
Zzz
저렇게 사이가 좋은데 어째서 그렇게 된거지?
딸~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엔 중국어가 대세래.
중국어학원 새로 등록 했으니까 10시에 영어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데리러 갈게.
그런데 과외선생님이 어제 너 졸았다며 걱정하시더라. 정신 좀 안 차릴래?
공부. 공부. 공부!!
잔소리뿐이네 짜증나~


민지야! 엄마가 니랑 같은 학원 다니는거 허락해 주셨다.
학원비가 비싸서 고민하셨는데 니가 다닌다카이 바로 승낙해 주시더라.
그래.
엄마, 아빠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허락도 겨우겨우 받았어.
부럽다.
우리 엄마도 바쁘셔서 나한테 신경 좀 끄고 살았으면 좋겠어.
허구한 날 넌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면서 잔소리야.
학원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새벽 1시야.
여기서 뭘 더 노력하라는 거야?
엄마따윈 없어졌으면 좋겠어!!
민지야.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된다.
너거 엄마는 그래도 니 생각해서 그라시는거 아니겠나.
뭐?
학원이나 과외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애들도 많잖아.
이왕지사 다니게 된 학원 니도 편한 마음으로 다니는게 낫지 싶다.


너, 알고 보니 아주 웃기는 애구나.
니가 뭘 안다고 착한 척, 잘난 척 설교야?
미..민지야 나쁜 뜻으로 말한 건 아니고.
손 치워! 네가 내 진정한 친구라면 그런 말 절대 못해!!
탁
민지야...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재들 왜 저래?
미...민지야!?
재는 왜 갑자기 화를 내. 나연이가 바른말 했잖아!?
나연이가 무심코 민지의 가장 예민한 곳을 건드린 것 같아.
짜증 나! 스트레스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워~워~ 그러면 안되지~이.


엄마가 오늘 학원 한 개를 또 등록했다구.
참... 네 엄마도 대단하시다.
그런데 나연이 기집애는 뭐라는 줄 알아? 글쎄, 엄마가 날 생각해서 그런거래. 기가 막혀서!
스트레스는 쌓아 둬봤자 병밖에 안되지~이!
내가 기막힌 스트레스 해소법 가르쳐줄까?
그게 뭔데?
훗!
팍
악
난 우리 아빠가 날 때릴 때마다 물건을 부숴.
퍽


재수없는 애들을 쥐어 팰 때도 있지. 그러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 지더라고.
창문을 깨뜨리거나 자동차 타이어를 펑크내거나
난 모범생이잖아. 그런 짓을 어떻게 해?
못할게 뭐 있어.
끔적 끔적
띠롱!
민지야. 내 너희학원에 다왔다. 니는 어디 있는데?
이런 싸가지 좀 봐. 내 기분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얘까지 학원 타령이네.
이 둔탱이를 한 번 갖고 놀아봐...?
...
학원 시작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깐 우리 쇼핑하러 가자.
또도독


DRESS
우와~ 민지야. 억수로 잘 어울린다.
언니, 이 옷도 사이즈 있어요?
당연하지. 잠깐만 기다려봐.
민지 표정이 여전히 싸늘하네. 단단히 틀어졌나봐.
난 바보야. 민지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그냥 위로나 할 걸... 우짜노.
언니, 이 옷이랑 아까 입었던 옷 포장해 주세요.
그래, 잠깐만 기다리렴.
나연아.
응?
어? 화가 풀렸나?


내가 깜빡하고 돈을 안 가져왔어. 돈 좀 빌려줘.
내도 큰돈은 없는데...
엄마한테 받은 학원비 있잖아.
내일 갚을테니 내일부터 나랑 학원가자.
학..학원비를....?
어쩌지 .....
내일 준다는데 안 빌려줄 수도 없고....
꼭 갚아야 해.
알았다고. 이까짓 것 가지고 사람을 못 믿어?
삭
친구일수록 돈 관계는 위험하다고 했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아.
민지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나연이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


와~ 대박! 너희들 그 소식 들었어?
나연이가 우리 학교에 전학온거 사실은 이전 학교에서 큰 사고를 쳐서 온 거래.
어머, 얌전하게 생긴게 반전이네.


솔직히 난 나연이 처음부터 별로였어.
사투리 쓰는 것도 웃기고 뚱뚱하고.
안녕


어머, 갑자기 얘들이 왜 저러지?
글쎄? 나연이가 걱정되네.
둥
둥


어젯밤 민지가 다른 친구들과 채팅을 하면서 헛소문을 퍼뜨렸어.
말이 오고 가며 헛소문의 내용이 눈덩이처럼 부풀어진 상태야.
너무해!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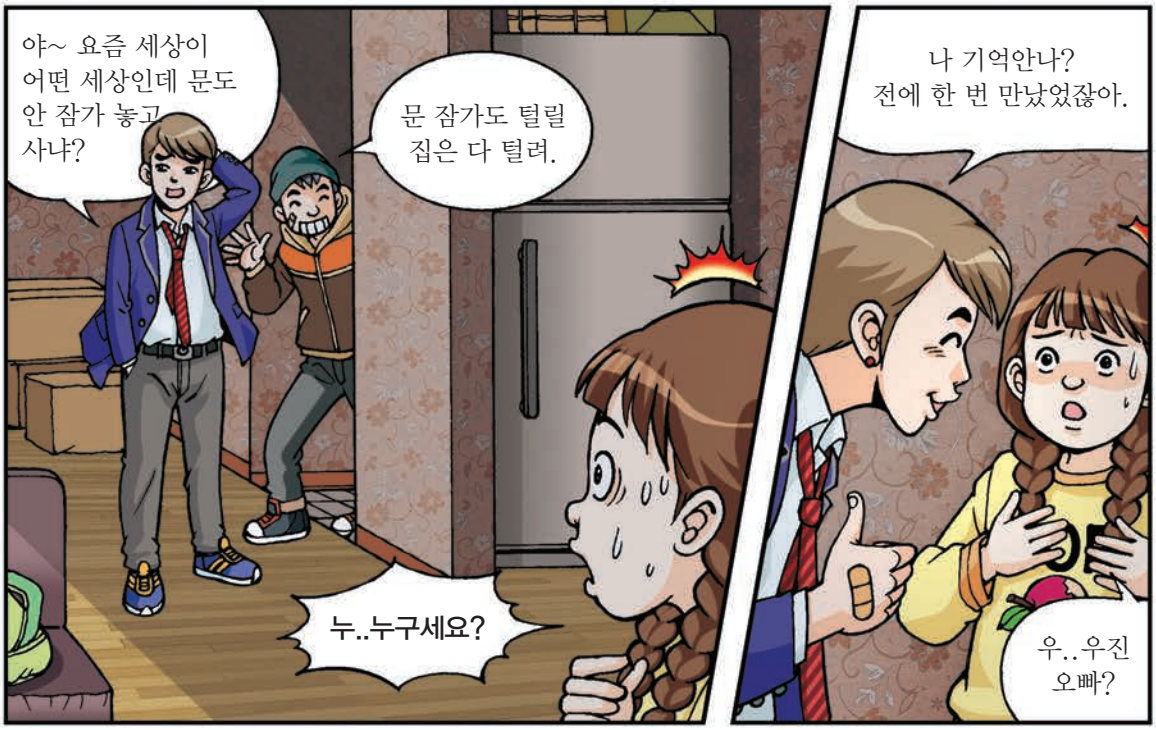

애들아,
안녕.
!...
?
애들아,
안녕.
안뇽~!!
민지야,
안녕.
스윽
...?
드륵
저..있잖아.
니가 전에
빌려간 돈...
뭐라고?


너 사투리 좀 그만 쓸 수 없니? 억양이 웃겨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얘들아, 나 완전 웃긴 어플 찾았는데 볼래?
뭔데?
..... 민지야...
우리랑 놀고 싶으면 살 빼고 와.
같이 다니기 창피해.
사투리도 좀 고치고 촌스럽게...
이후 민지는 나연이를 대놓고 따돌리기 시작했다.
민지야. 갑자기 와 이라노.....
내가 도대체 뭐를 잘못했는데.....
호호 호호 깔깔 깔


찰칵
하하하, 이것봐! 돼지가 운다.
우니깐 진짜 못생겼네.
야. 그 사진 나중에 나한테 좀 보내봐.
오냐.
나연이의 우는 모습은 포토샵으로 조작되어 퍼지게 된다.
하하하.
까르르르 정말 못 봐 주겠다.
띠롱
흑흑 나 같이 먹지 마세요
이...이건


키득 키득~
미..민지
뭘 보니?
돼지야.
꿀꿀꿀
돼지!!
흑!
우다다다
ㅋㅋㅋㅋ...
하하하!
흐흐흑...
엄마...
아빠...


띠롱
깜짝
야 돼지!
오후 8:22
탁
띠롱
띠롱
띠롱
와!!
도대체 내한테
와 그라노
말이다!!!?
탁


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문도 안 잠가 놓고 사냐?
문 잠가도 털릴 집은 다 털려.
누..누구세요?
나 기억안나? 전에 한 번 만났었잖아.
우..우진 오빠?


응. 민지가 네가 연락이 안된다고 걱정을 하더라고~
왜 친구의 문자를 자꾸 무시해? 기분 나쁘게~


거짓말할래?!! 너희 부모님 12시 넘어서 들어오잖아!
꺅!


나가세요. 조금 있으면 부..부모님 오실 거예요.


민지가 말 좀 전해달래. 돈 좀 꾸어달라고~
친구끼리 없을 땐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안그래?
우리가 아직 젠틀맨 일 때 얌전히 내놔.
흐흑...
돼지야. 돈 좀 많이 가지고 다녀라.
월요일마다 용돈 탄다며?!
그때 오빠가 다시 올게.
아, 그리고 민지 문자 한번만 더 무시하면 내 손에 죽어.
바이, 바이 또 보자~
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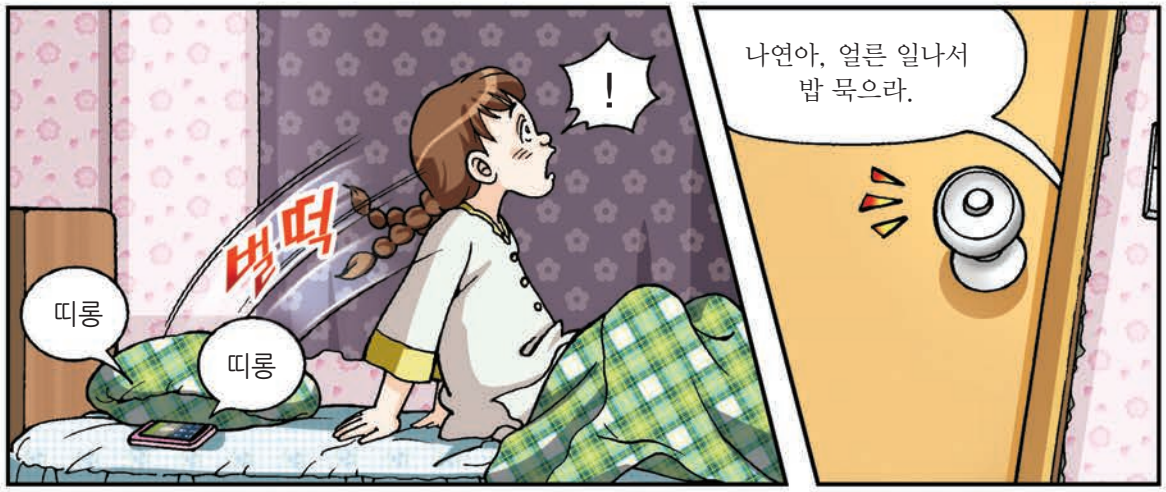

흐흐흑...
민지는 다른 친구들을 주도하여
나연이를 집요하게 괴롭히기 시작했다.
띠롱
고코아톡
친구
채팅
더보기
공생공사 (22명)
학원 (11명)
얼짱모 (37명)
띠롱
띠롱
돼지 잡는 모임
(1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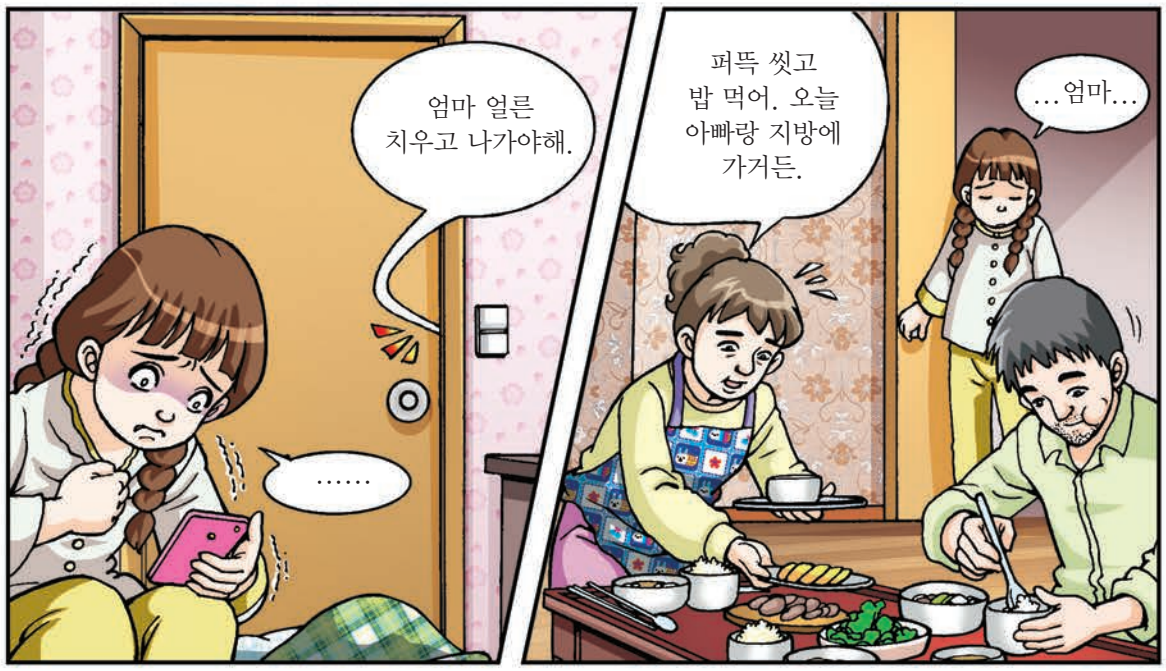

돼지. 점심시간에 여물 먹는 것
봤어? 완전 돈 나와. 그러니깐
살이 뒤룩뒤룩 찌지.
도도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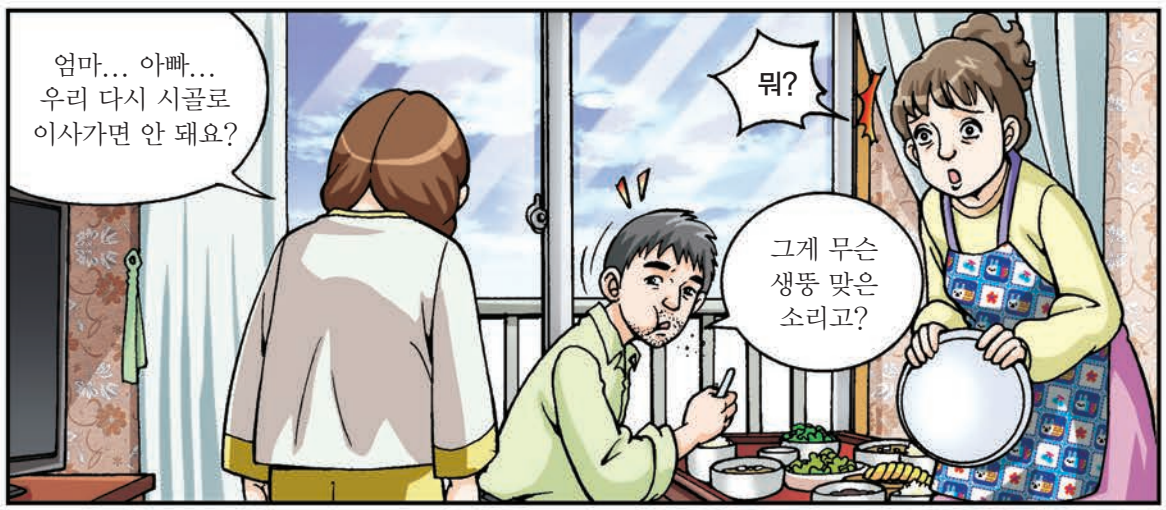

크크크~ 맞아.
완전 역겹더라.
걔 사투리 쓸 때 어디서
구린내 나는 것 같아.
ㅋㅋㅋ 너희 그거 알아?
돼지네 부모가 맞벌이 하는거
돼지 성형수술 시켜서
인간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야.
정말? 대박!!
아냐. 실은 돼지랑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서가 아닐까?
오올~ 그것도 일리 있다.
야, 돼지! 너도 보고 있어?
.....
띠롱
띠롱


보고 있어.
ㅋㅋㅋ 보고 있었구나.
다행이야. 10초 내로
대답 안 했으면
우진 오빠랑 규호 오빠,
너희 집에 보내려 했어.
민지야.
이러지마...
우리 친구잖아.
친구? 좋아하시네.
넌 그게 진심인 줄 알았니?
난 그냥 너 갖고 논거야.
ㅋㅋㅋ. 돼지 충격받겠다.
돼지, 나대지 마라.
냄새나.
너 학교 화장실 쓰면
내 손에 죽어.
짐승이랑 같은
화장실 쓰기 싫다.
재수없는 ×.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우와와!!
더는 못 보겠다.
선생님께 아니 경찰에
알려야겠어!
뚤아...
으아앙~!!
우린 지금
나연이의 과거
속에 있잖아.
크흐!
그렇지.


날이 갈수록 괴롭힘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갔다.
사이버상의 괴롭힘이라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티나지 않았고
이것 봐. 돼지가 넘어진 사진.
ㅋㅋㅋ... 분홍색 팬티네.
.....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밤에도 낮에도 그 괴롭힘에 나연이는 숨을 곳이 없었다.
야! 돼지, 라면 좀 끓여라.
...!
맛 없으면 나 슬퍼진다.
내일 용돈 받는 날 맞지? 알아서 해라.
바로 옆반인데, 미리 좀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 볼 수도 있었을텐데...
민지란 계집애 이해가 안돼.
띠롱
깜짝


!
벌떡
띠롱
띠롱
나연아, 얼른 일나서
밥 묵으라.


엄마 얼른
치우고 나가야해.
.....
퍼뜩 씻고
밥 먹어. 오늘
아빠랑 지방에
가거든.
...엄마...


엄마... 아빠...
우리 다시 시골로
이사가면 안 돼요?
뭐?
그게 무슨
생뚱 맞은
소리고?


사실은...
민지가 자꾸 절 괴롭혀요. 그..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흐흑...
나연아?
아휴! 친구끼리 사이 좋게 지내야지.
그래. 민지랑은 친구니까 사이좋게 잘 이야기해서 풀어.
이제 민지랑 친구 아니야. 민지도 내가 친구가 아니래.
걔가 날 얼마나 괴롭히는데.
너 자꾸 속 좁게 그럴래?
니가 얼마나 어리버리하게 굴었길래. 친구가 널 괴롭히겠노?
우물
우물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요!
탕


자가 아침부터
와 저러노?
우리 나연이도
이제 사춘긴가
보네...




여러분.
기다리던 수학
여행을
2박 3일간
제주도로 가게
되었어요.


앗싸! 신난다!!!


자세한 일정은 가정통신문에 있으니 부모님께 드리고
여러분은 자율적으로 6명씩 각자 조를 짜두도록 해요.
돼지야~ 우리 꼭 같은 조 하자.
2박 3일간 밤낮으로 너랑 같이 있을 생각을 하니
움찔
너무 기뻐서 숨이 막힐 것 같아.
뭐하면서 놀지 이제부터 천천히 계획을 짤 테니깐 너도 기대해.
따로리라링
얘들아 잘가.
6-1
응. 내일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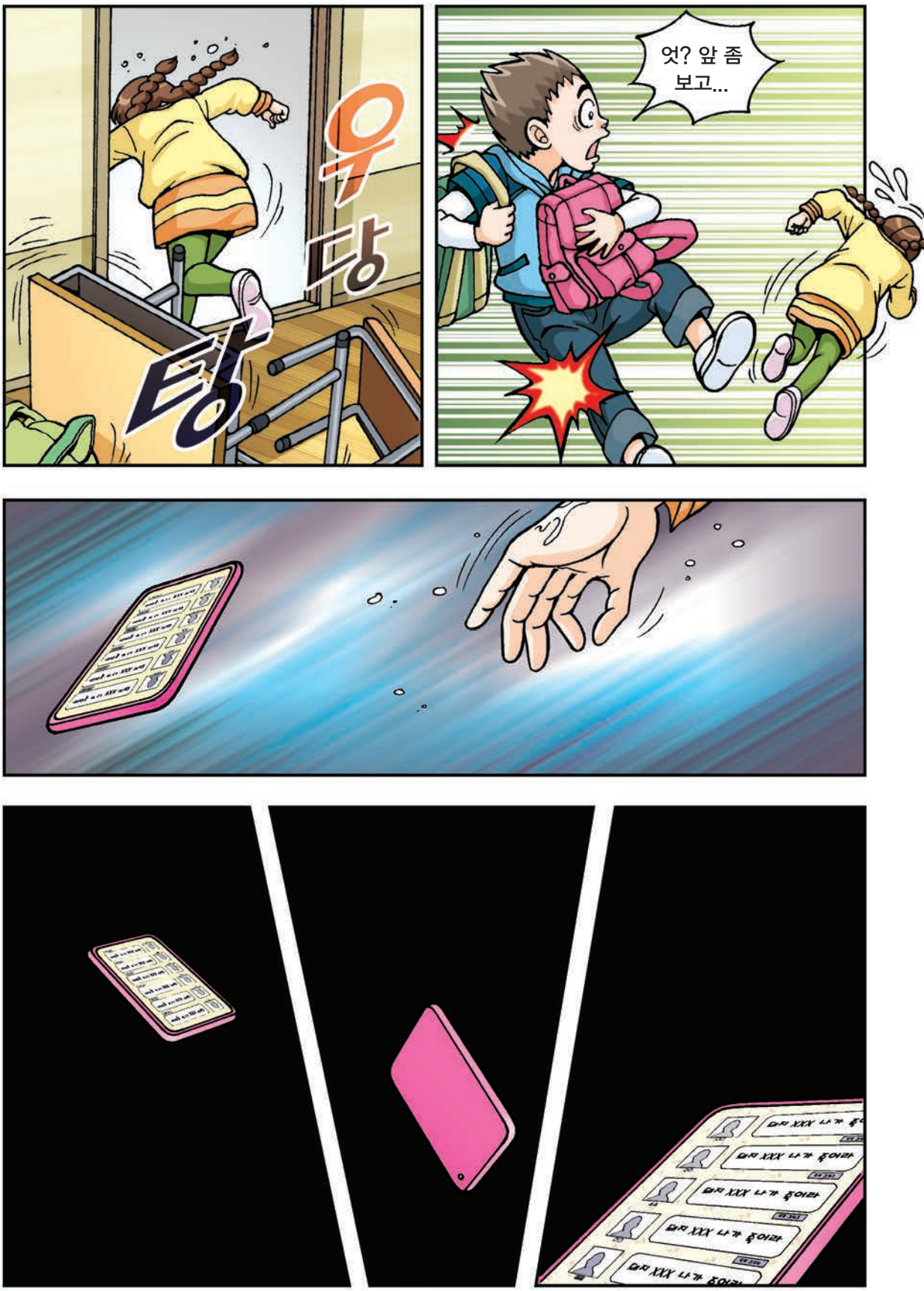

PC방 가자. PC방!!
O.K.
……
그거 알아? 제주도에선 돼지에게 똥을 먹인대.
우웩 정말?
그런데 고기 맛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
쟤들 너무 심한거 아냐?
냅둬! 우리만 안 걸리면 되지.
우리도 제주도로 가면 한 번 시험해 볼까?
글쎄~ 재밌긴 하겠는데.
……


띠롱
모든 친구들이 다 너 싫어해.
오후 3:40
띠롱
솔직히 이런 취급 받으며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않아?
띠롱
그냥 나가 죽어!
돼지 ××× 나가 죽어라.
키득 키득
돼지 ××× 나가 죽어라.
크크크
돼지 ××× 나가 죽어라.
히히히


돼지 XXX 나가 죽어라
돼지 XXX 나가 죽어라
돼지 XXX
나가 죽어라
돼지 XXX
돼지 XXX
나가 죽어라
돼지 XXX
나가 죽어라
돼지 XXX
나가 죽어라
돼지 XXX
나가 죽어라
돼지 XXX
나가
죽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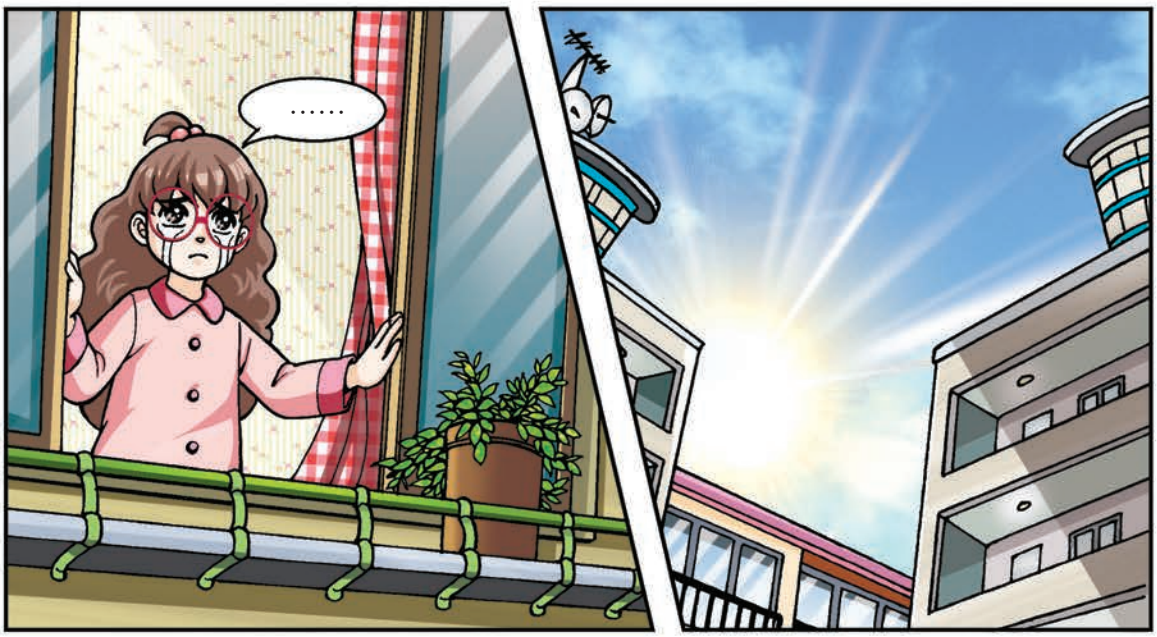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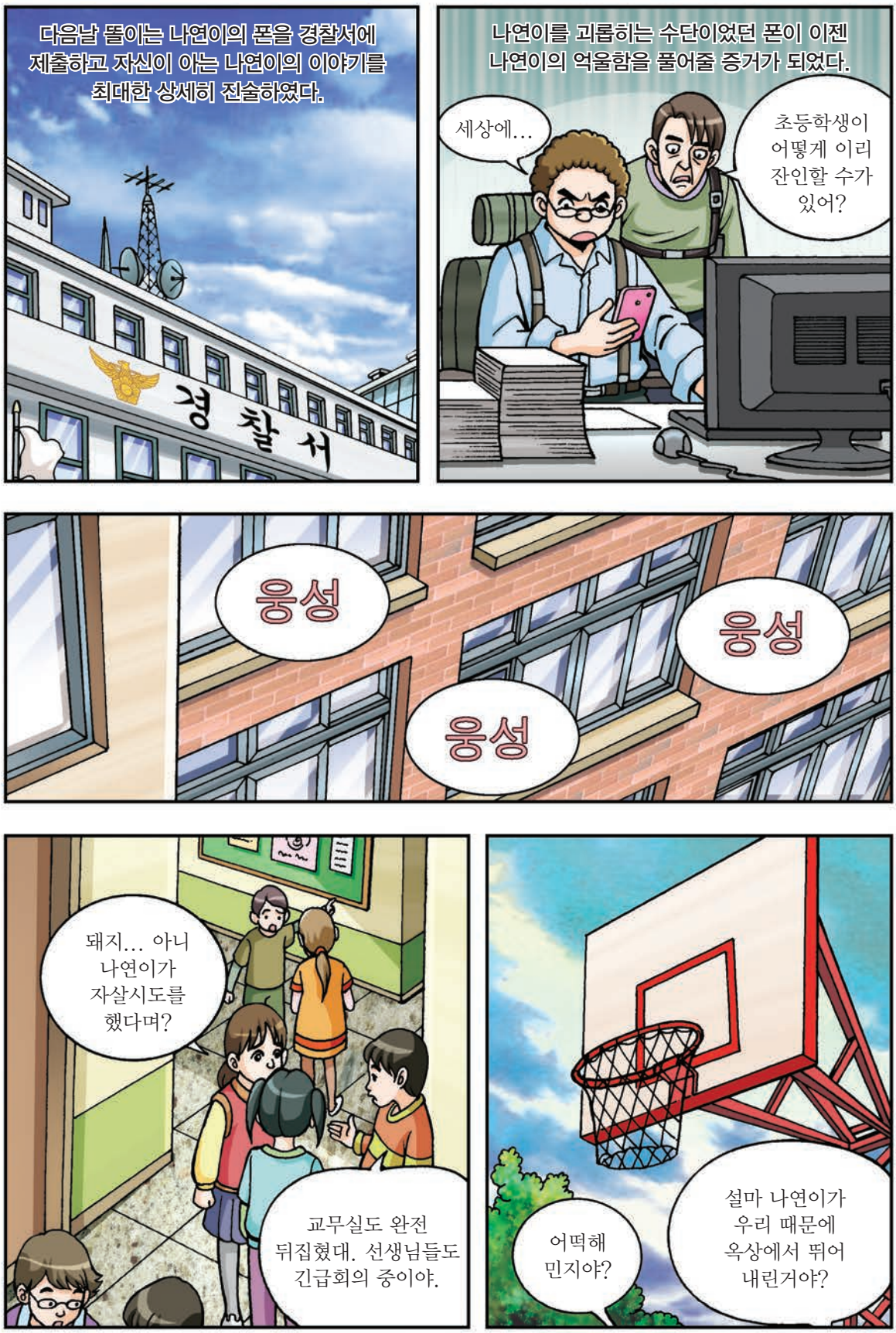



우당탕
엇? 앞 좀 보고...


끄윽
끄윽
끄윽


흐어어어엉~
어떻게 이럴 수가
이건 말도
안 돼!!


……


다음날 똘이는 나연이의 폰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자신이 아는 나연이의 이야기를 최대한 상세히 진술하였다.
경찰서
나연이를 괴롭히는 수단이었던 폰이 이젠 나연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가 되었다.
세상에...
초등학생이 어떻게 이리 잔인할 수가 있어?
웅성
웅성
웅성
돼지... 아니 나연이가 자살시도를 했다며?
교무실도 완전 뒤집혔대. 선생님들도 긴급회의 중이야.
어떡해 민지야?
설마 나연이가 우리 때문에 옥상에서 뛰어 내린거야?


우리가 갤 옥상에서 밀었어? 아님 때리기를 했어?
장난으로 몇 마디 한 것 가지고 나연이가 오바해서 옥상에서 뛰어내린거잖아. 우린 책임 없어.
맞어.
우린 그냥 장난이었잖아.
장난?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그런 장난쳐도 돼?
…
학생회장 신나리와 2반의 한똘이야.
남의 일에 참견 말고 그냥 너희 반으로 가지?
이게 왜 남의 일이야? 나연이는 나랑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인데!
나연이 폰을 우연히 우리가 보게 됐어. 너희들이 한 짓은 엄연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범죄야.
학교폭력?



Tip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너흰 나연이가
죽고 싶어 할 정도로
끔찍한 폭력을
휘둘렀던 거야.
너희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
장난이니 뭐니하며
모른척 한다고
끝나지 않는다는거
몰라?


어떡해... 우린 정말로 나연이가
죽길 바란건 아니었다구...
맞어.


진짜, 시끄럽네...
너희들,
정의로운 척
하며 정말
잘난 척
하는데.


나연이 걔 죽지도
않았다며,
다 쇼였던거 아냐?
이랬든 저랬든, 우리 엄마가
알아서 처리하실테니
난 걱정 안 해.


아... 어떻게 저런 말을...


!!
접근금지
POLICE LINE
접근금지
.....



제6화 심화학습

‘SNS의 부작용’ 문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봐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부작용



SNS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로서, 웹상에서 친구 등 아는 사람들과 연락을 하도록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알아가도록 하며 사회적 관계를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말해. 이야기 속의 친구들이 사용하던 코코아톡 같은 것이 대표적인 SNS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이 SNS는 장점도 있지만, 요즘 들어 그 문제점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예를 들어, 이야기에서 본 것과 같은 악플, 모욕 내지 언어폭력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지.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누구나 정보를 올리고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보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경우도 많단다.

그뿐 아니라 개인정보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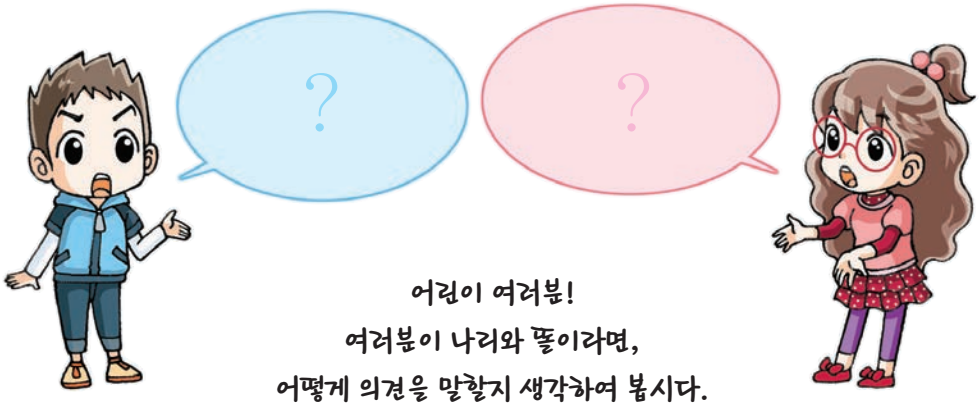
바로미 말이 맞아, 나도 뉴스에서 이런 SNS 피해 사례를 보았다구.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파일들을 공유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뉴스를 보았어. 또 SNS를 통해 친해진 인물들이 실제로 접근하여 돈에 관한 피해를 주는 새로운 사기들이 요즘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



무섭다. 무서워. SNS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엄청 위험한 거로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바로미, 나리야.



요즘 SNS의 대표적인 종류 중 하나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데,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처럼 나쁘게 사용되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사이버 괴롭힘 또는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나리와 또이라면,
어떻게 의견을 말할지 생각하여 봅시다.

제7화

재판으로 상처를 치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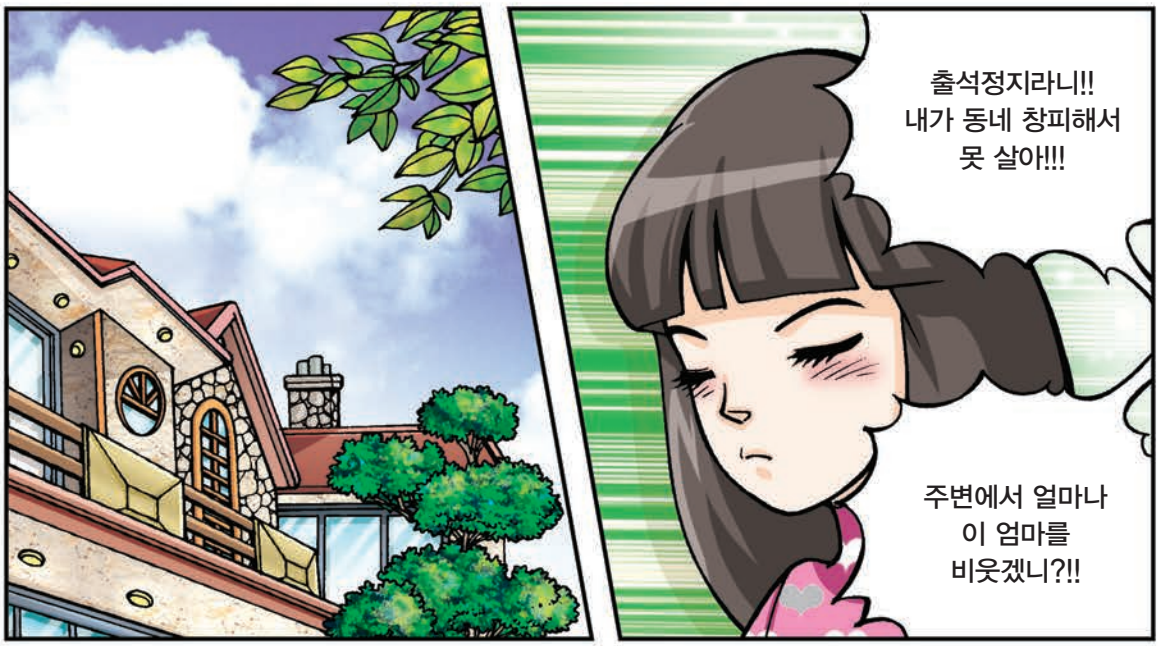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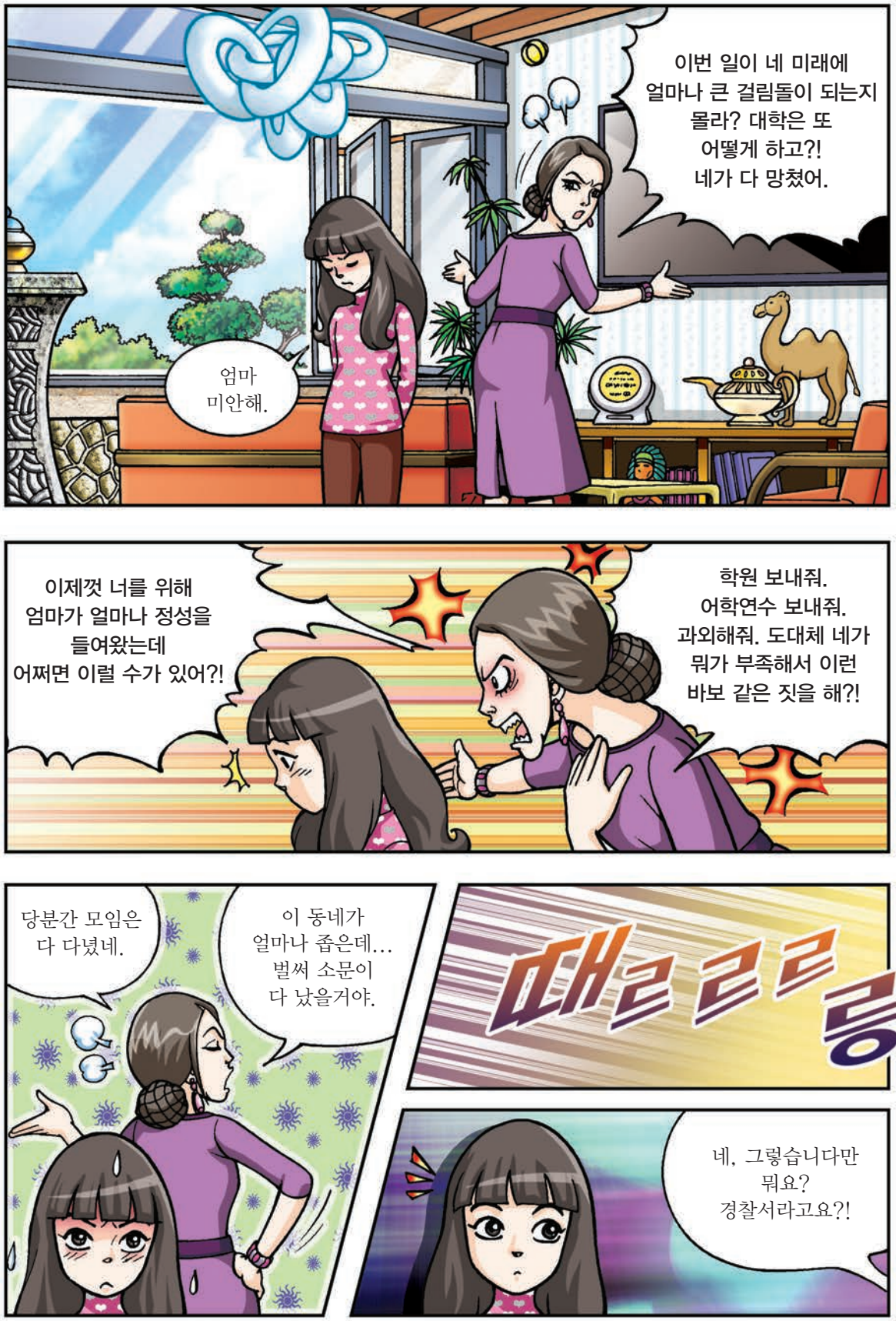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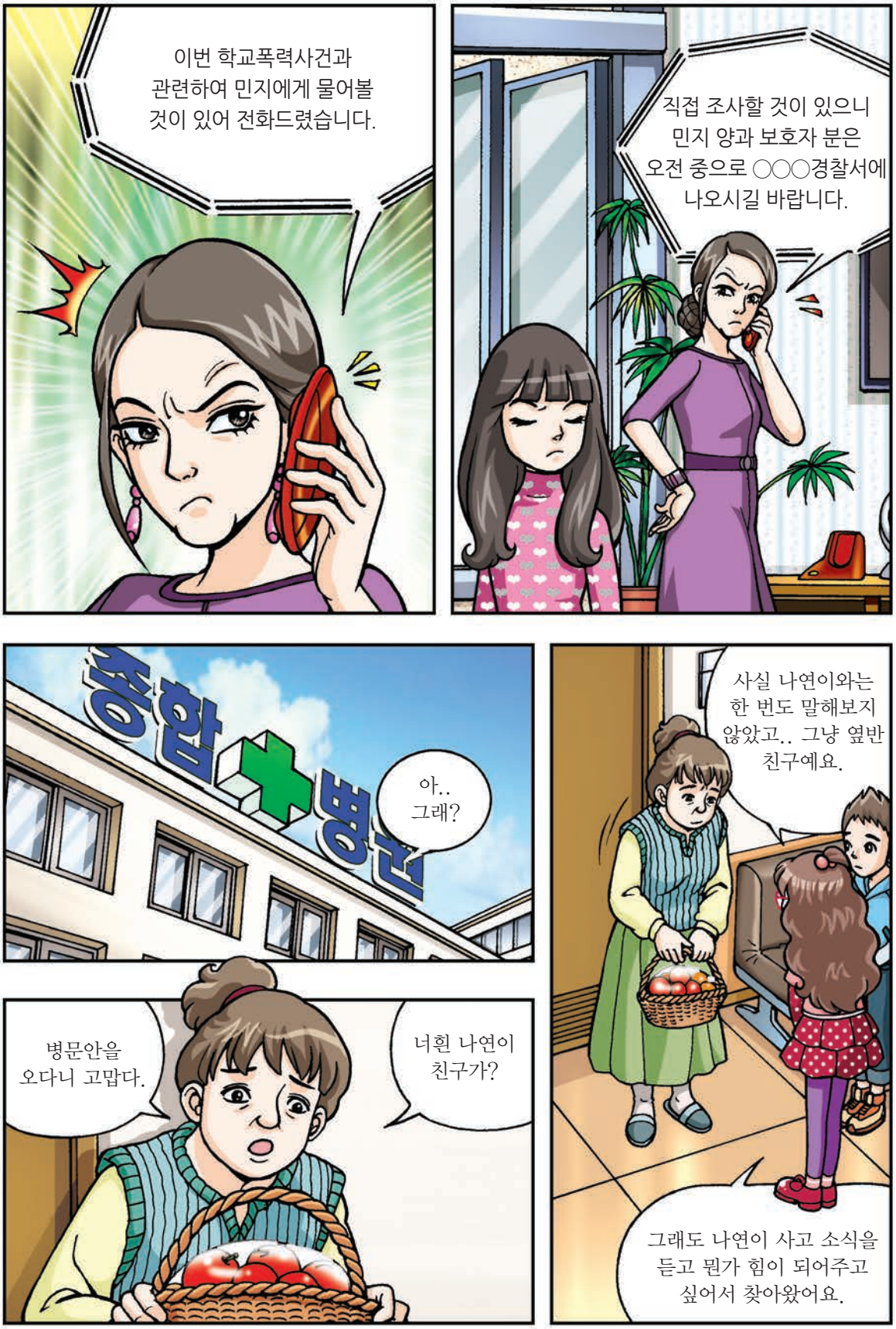

아휴.. 아예 말이 통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엄격히 잘잘못을 따지자면 책임은 학교에 있지 않나요?
나연이가 자살 시도를 한 곳은 바로 이 학교입니다.
.....
맞습니다. 나연이의 일은 우리 교사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차후 전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 두번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고
사이버 따돌림을 주동한 민지 학생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 다른 친구들이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잘못 가르친 책임
그리고 아이들의 행동을 세세히 살피지 못한 책임입니다.


뭐…
뭐라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럼 민지 양에게
2주간의 출석정지 및 3주간
학교 내 봉사활동의 벌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나연 양과
격리시키기 위해 민지 양을
다른 반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출석정지라니!!
내가 동네 창피해서
못 살아!!!
주변에서 얼마나
이 엄마를
비웃겠니?!!


이번 일이 네 미래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몰라? 대학은 또 어떻게 하고?! 네가 다 망쳤어.
엄마 미안해.
이제껏 너를 위해 엄마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왔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학원 보내줘. 어학연수 보내줘. 과외해줘. 도대체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
당분간 모임은 다 다녔네.
이 동네가 얼마나 좁은데... 벌써 소문이 다 났을거야.
따르르릉
네, 그렇습니다만 뭐요? 경찰서라고요?!


이번 학교폭력사건과
관련하여 민지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직접 조사할 것이 있으니
민지 양과 보호자 분은
오전 중으로 ○○○경찰서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종합병원
아..
그래?
병문안을
오다니 고맙다.
너흰 나연이
친구가?
사실 나연이와는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고.. 그냥 옆반
친구예요.
그래도 나연이 사고 소식을
듣고 뭔가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정말 착하네. 나연이 옆에 진작 너희 같은 친구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란데 우짜면 좋노. 미안한데 다음에 다시 찾아와주면 안 되겠나.
나연이는 지금 누굴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아이다.
폰울림소리 같은 기계음만 들어도 비명을 지르고.
저 또래의 애들을 보면 겁에 질려가 덜덜 떨어서…
다 내 때문이다. 내가 그놈의 돈 좀 몇 푼 벌어보겠다고…
내 딸내미를 저 지경으로 만들었어… 나연이가 그동안 내를 얼마나 원망했겠노.
아.. 아주머니
바로 옆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몰랐다니…
나도 마찬가지야.
민지 그앤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글쎄?… 난 민지나 민지 부모님이 병원을 찾지 않았다는게 이해가 안돼.


너희들도 충격이 클텐데 기운 내.
민지는 지금 경찰서에 있어.
경찰서?!
민지의 남자 친구인 우진이도 우진이 친구 규호도
함께 조사를 받고 있지.
그렇구나.
한 친구가 자칫하면 허무하게 목숨을 잃을 뻔 했어.
아무리 어린아이의 일이라도 법으로 자세한 시비를 가려야지.
바로미! 그 뻔뻔한 애들이 어떤 벌을 받을지 궁금해.
경찰서에서는 조사를 하는 거지 벌을 내리는 건 아니잖아.
O.K.! 이럴 줄 알고 이 바로미가 왔잖아!
당장 가보자!!
샤랑


경찰서
어! 저기 있다.
우선 우진 군과 규호 군. 그리고 보호자 분은 잠시 그쪽 의자에 앉아 계시구요.
민지 양과 어머님께서는 이쪽으로 앉아 주십시오.
그런데 규호 군은 왜 혼자 왔니?
전.. 부모님이 안 계신데요.
끄응…
할머님이 계시다며
그.. 그게 갑자기 감기가 드셔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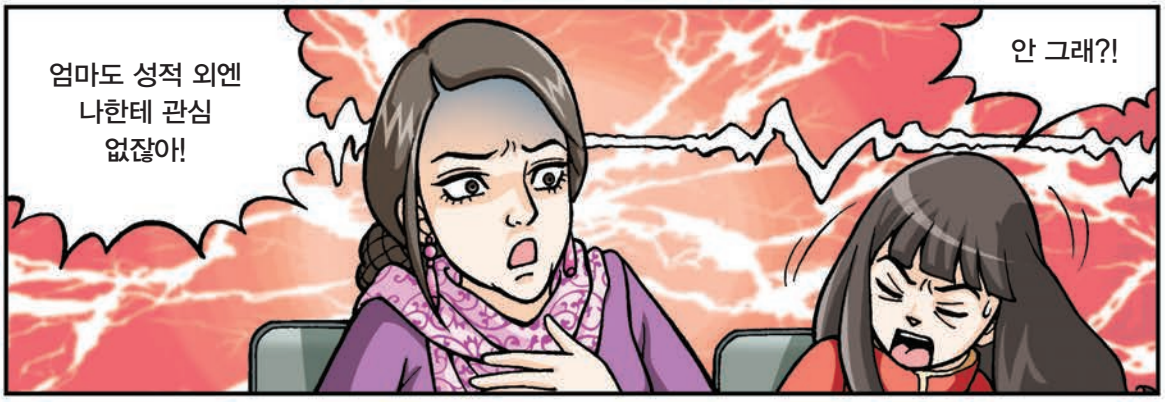

근데 우진 군은 얼굴이 왜 그래? 싸웠나?
아.. 아닌데요.
아닌데 웬 멍투성이냐?
……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혼을 낸다는게…
어제 연락을 받고 얼마나 놀랬는지 아십니까?
뭐가 모자라 초등학생의 돈을 뺐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구! 못난놈! 창피하게
내가 용돈도 많이 주잖아!
퍽
퍽
진정하세요! 여긴 경찰서입니다.
무식하긴..
아무리 자식이라도 함부로 아이를 폭행하시면 이제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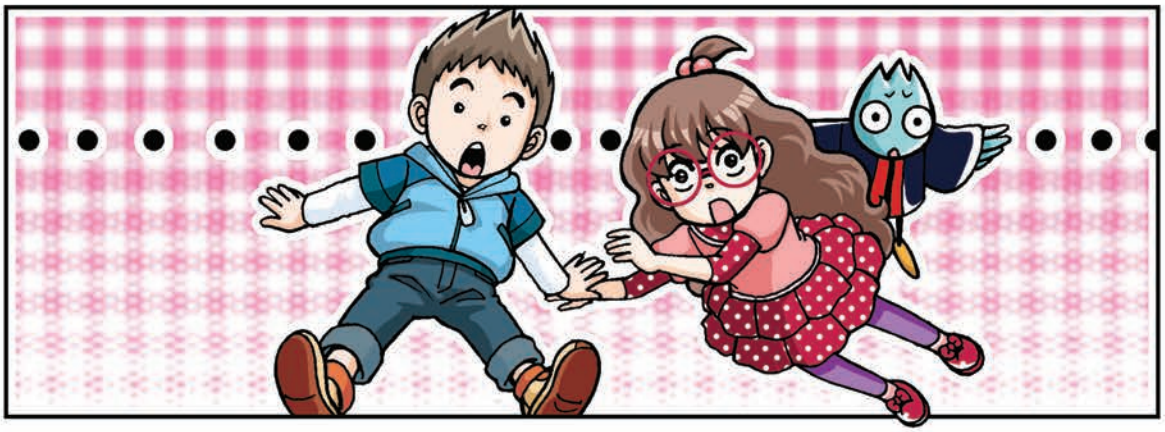

이거 원
속상해서...
죄..
죄송합니다.
저런 질 떨어지는
애들이랑 어울리니깐
이런 일에 휘말리지!
친구는 가려서
사귀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왜
말을 안 들어?
.....
.....
뭐지? 잘못한 걸
알긴 아는 건가?
나연이한테
그렇게 지독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던 모습들은
어디 가고...
완전 뉴스에
나오는 죄인들
모습이잖아.
...그러게
보는게 왜지
불편해...
타 타 다
그럼
민지 양부터
이야기 해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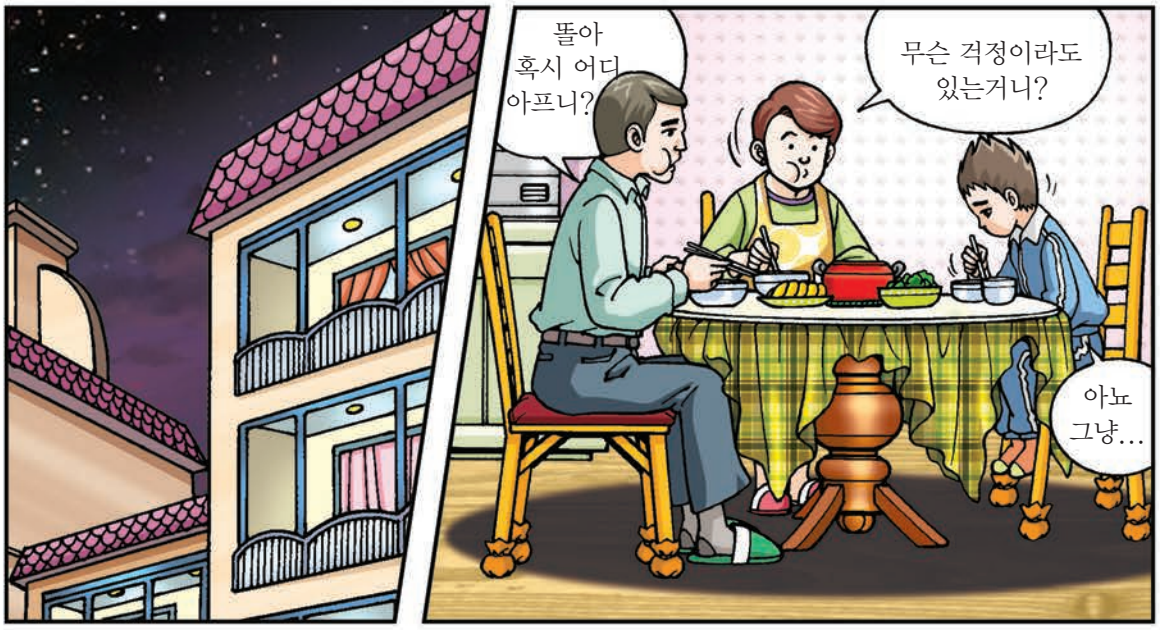

너희들이 한 행동은 정말 친구로서 하지 못할 짓이더구나.
도대체 나연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친구에게 그런 짓을 한거니?
죄송합니다. 아직 애가 어려서 나쁜 짓인줄 모르고 한 거예요.
학교기록을 보니 성적도 우수하고 여러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한 모범생이더군요.
그런데 사이버 따돌림이 나쁜 짓인줄 몰랐다고요?
토 도 둑
아무리 모범생이래도 초등학생이잖…
짜증나서 그랬어요.
뭐?
얘가…?!
…!!


그냥 짜증나서 나연이를 괴롭혔다구요.
스트레스 쌓일 때마다 나연이에게 욕하니깐 아주 상쾌하던걸요.
아니..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왜 이래?
엄마, 나 내가 한 짓이 나쁜 짓인줄 알았어. 그런데 그냥 했어.
시.. 시끄러 당장 조용히 못하니?
왜? 또 내가 부끄러워?
탁
음...!
!?
걱정마!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적은 그대로 유지할테니깐. 영어도 계속 배우고 중국어도 계속 배울게.


어차피 엄마는 다른 사람 생각만 중요하지. 내 생각은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
걱정마! 다른 사람들이 다 엄마를 위해 생각해줄거야!
병원 원장님댁 딸은 사람을 죽일뻔 했지만 성적은 최고라고!!!


엄마도 성적 외엔 나한테 관심 없잖아!
안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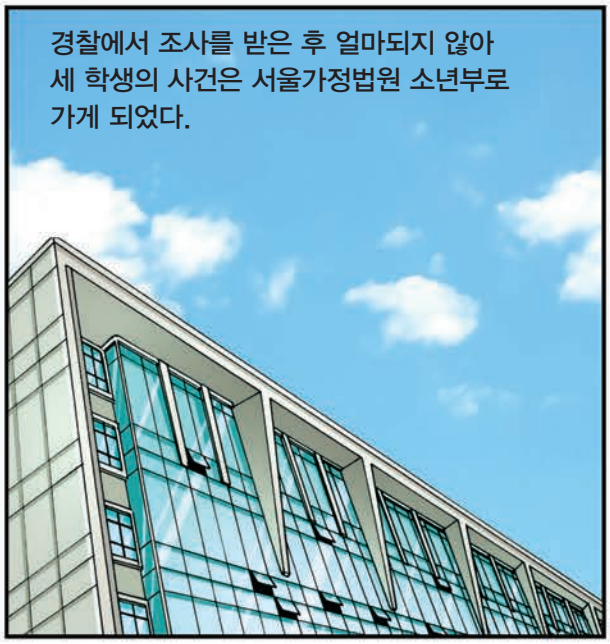

똘아
혹시 어디
아프니?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거니?
아뇨
그냥…


그냥?


그냥 나는 엄마
아빠와 함께
저녁식사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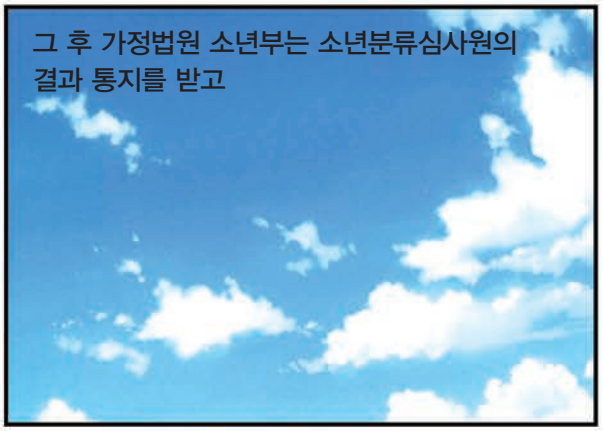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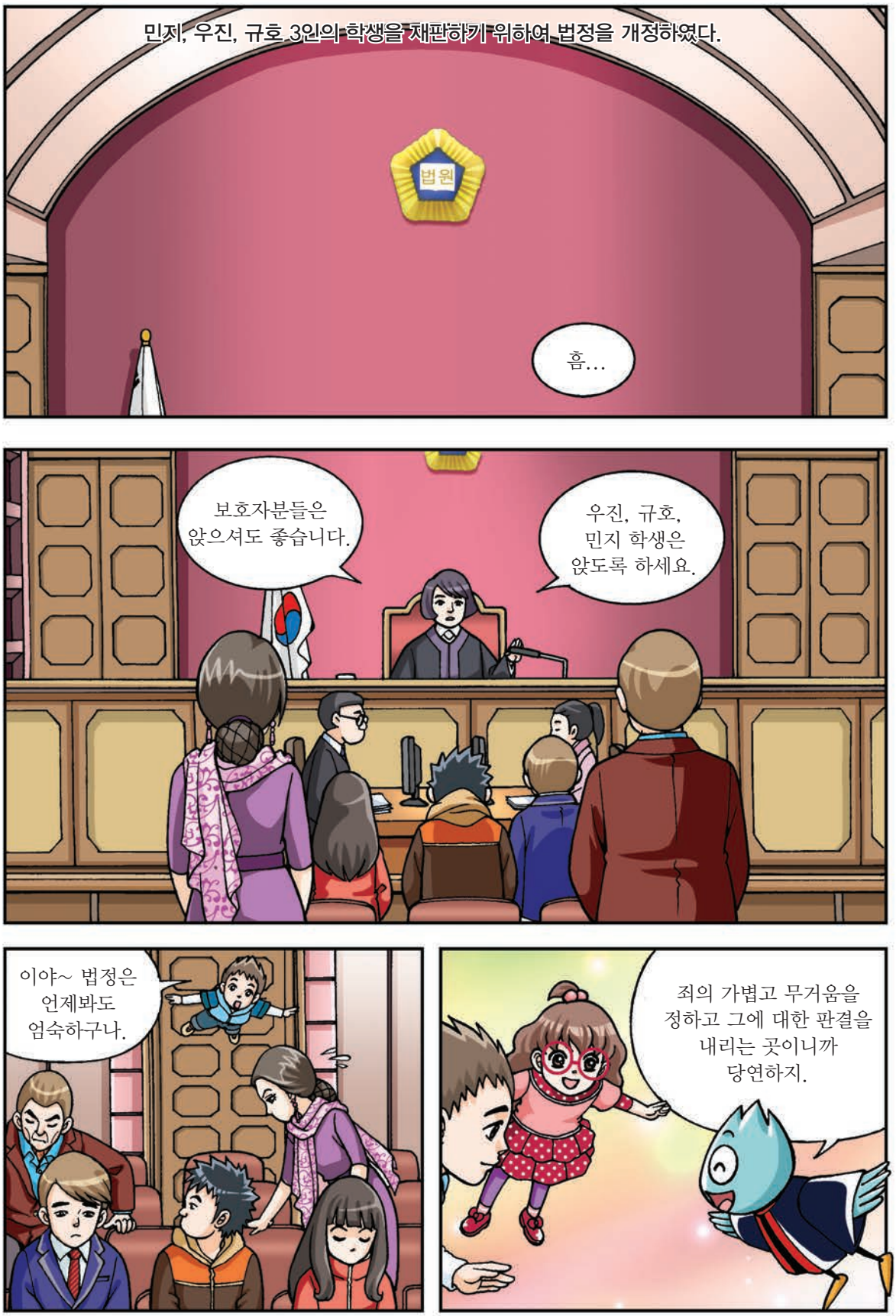


Tip

소년분류심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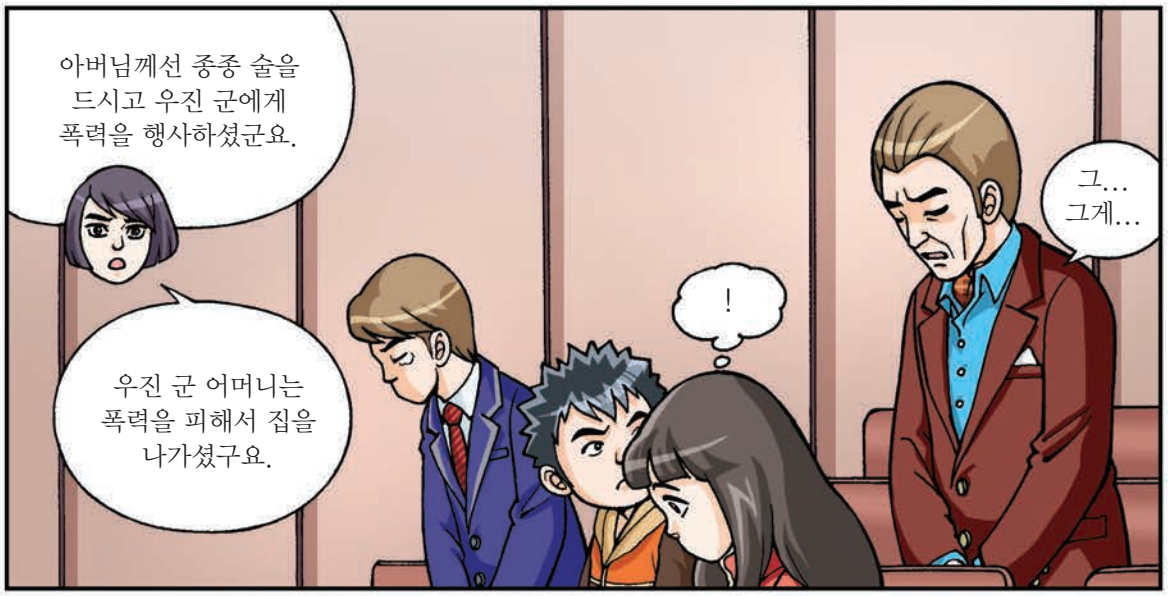
비행소년들을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받아 보호하면서 이들의 비행원인과 문제행동을 진단한 후 법원소년부에 조사와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도움을 주는 국가기관.




민지, 우진, 규호 3인의 학생을 재판하기 위하여 법정을 개정하였다.
법원
흠…
보호자분들은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진, 규호, 민지 학생은 앉도록 하세요.
이야~ 법정은 언제봐도 엄숙하구나.
죄의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고 그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곳이니까 당연하지.


우진 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죄송합니다. 나연이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않고
별 생각 없이 괴롭혔어요.
별 생각 없었다는 말은 그냥 재미로 그랬다는 건가요?
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번 자전거 절도 사건 및 학교폭력사건으로 지금 보호관찰 중인데…
또 비행을 저질렀네요.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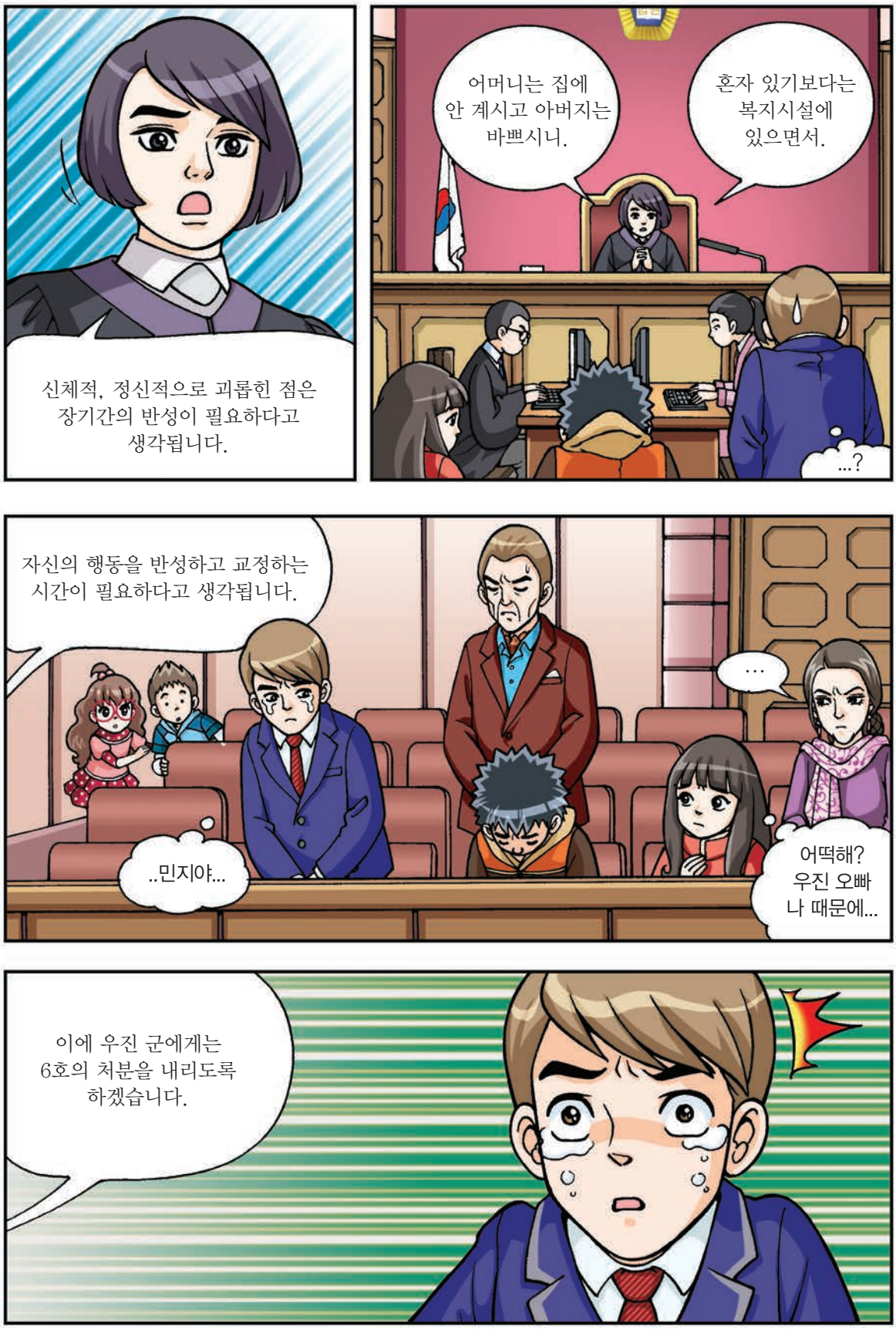

죄..송합니다.
…
둥둥
흥! 판사님께서 심한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닌데 왜 우는거지?
새삼 잘못을 크게 깨달은게 아닐까?
법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엄격한 잣대야.
법원
그래서 잘못이 클수록
법정에서 깊이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 같아.
우진 아버님, 아들이 이렇게 계속 비행을
반복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커흠..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보니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날 일이 많고,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 많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버님께선 종종 술을 드시고 우진 군에게 폭력을 행사하셨군요.
우진 군 어머니는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가셨구요.
!
그… 그게…


우진 군은 아버지를 피해 늦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게 되고.
그래서 비행만 반복해서 저지르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자.. 잘못 했습니다.


우진 군은 이미 자전거 절도사건 및 학교폭력 사건으로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거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나연 양을 자살시도에 이를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힌 점은
장기간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머니는 집에
안 계시고 아버지는
바쁘시니.
혼자 있기보다는
복지시설에
있으면서.
...?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교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지야...
...
어떡해?
우진 오빠
나 때문에...
이에 우진 군에게는
6호의 처분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군은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에 있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훌륭한 학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럴줄 알았어! 그럼 난...?
대체 6호 처분이 뭐길래 우진 오빠가...!?


알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다지만 목소리를 낮춰. 여긴 법정이야.
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 시설에 들어가서
6개월에서 1년까지 보호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복지시설에 들어가야 한다고?
그럼 그동안 학교는 어떻게 해?
학교에 가는 대신 복지시설에서
따로 교육을 받는거지.


꽤 무거운 벌 같아..
그렇지. 우진이의 가정형편 등 여러가지가 참작된 당연한 판결이지.


크윽..
뭐야? 이제 와서 후회하는 것인가?


빌어먹을...!


다음은 규호 군 일어서세요.
나다.!?


보호자로 할머니가 계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할머니는 안 오셨나요?
아프셔서요…
……
친구들과 같이 나연 양을 괴롭힌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냥 재미로 그런 것인데 일이 이렇게 크게 될지 몰랐습니다.
일이 커질지 몰랐다고요?
쉽게 납득하기 어렵군요.
잘못했습니다.
꾸벅


규호 군 역시 우진 군과 오랜시간 함께 지내며 소년 보호재판을 함께 받은 경험이 있군요.
지난번 절도 및 학교폭력사건으로 인해 2번이나 기회를 주고 지켜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행동을 저지르다니...


규호 군도 보호시설에 있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움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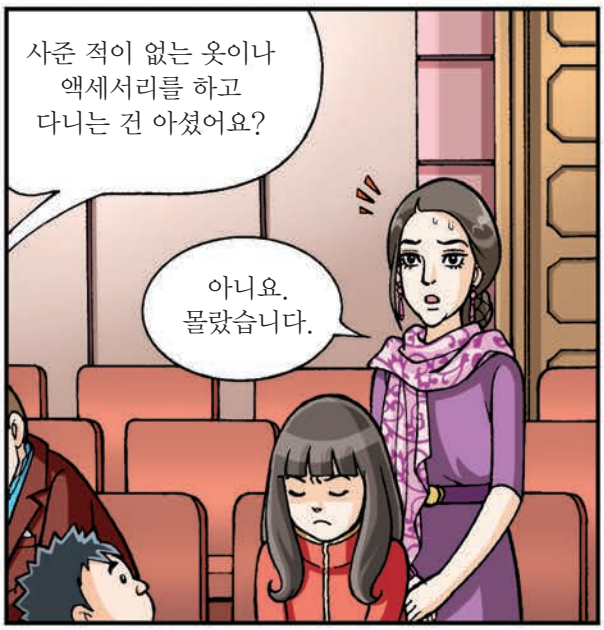

우진 군과 같이 6호 처분하겠습니다.
...
흑!!


꼴깍
우진 오빠도, 규호 오빠도 시설에 들어가게 되다니...
그럼 나도 ...?!


다음으로 민지 양
움찔


민지 양,
조사기록을 보니
나연 양을 괴롭힌게
이번 한 번이
아니네요?
그동안 얼마나
나연 양을
괴롭혔죠?
……
민지 양은 나연 양이 전학오자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지금까지 금품갈취
및 협박 등을 해왔군요.
친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부터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민지 양?
아니
얘가...
어서
대답해야지...
민지 양?
……


아닙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순수한 나연이가 좋았는데……
그냥…
스트레스를 풀 사람이 필요했어요.
스트레스를 풀 사람이 필요하면
나보다 약한 친구를 괴롭혀도
되는건가요?
…
민지 어머님.
네.
따님이
이렇게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히고
있는걸
아셨어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사준 적이 없는 옷이나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는 건 아셨어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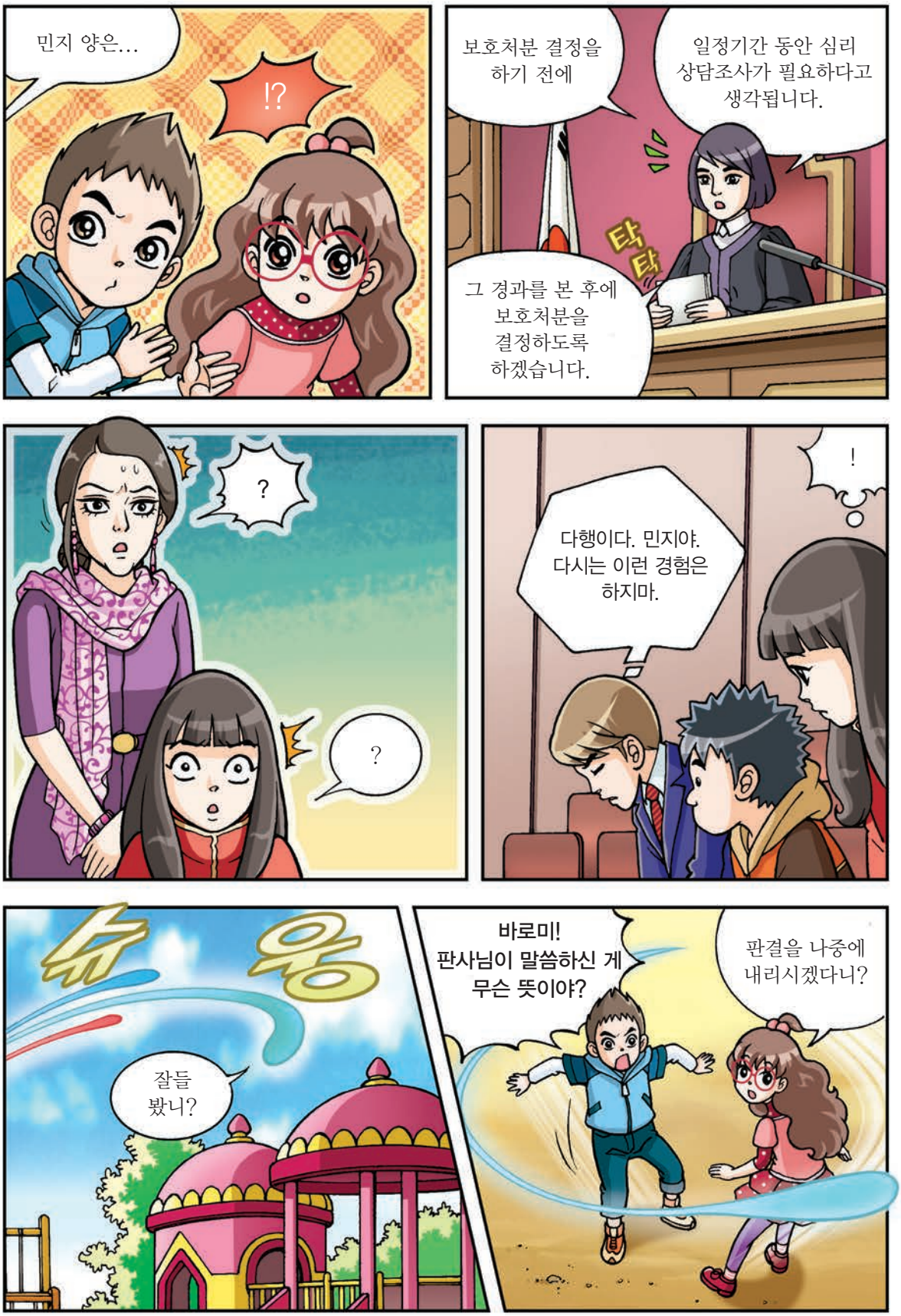

따님이 밖에서
무얼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아셨습니까?


모..
몰랐습니다.


다
모르시네.
민지가 경찰서에서
그렇게 화를 냈던 것도
조금 이해가 가...


그렇다고 나연이를
괴롭힌 것까지
이해한단 소린 아냐.
바로미의 마법이
아니었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테니깐...


하지만 민지와
형들의 재판을
보니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란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응...
나도 그래.


민지 양은...
!?
보호처분 결정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심리 상담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탁 탁
그 경과를 본 후에 보호처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
!
다행이다. 민지야. 다시는 이런 경험은 하지마.
뉴 욍
잘들 봤니?
바로미! 판사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야?
판결을 나중에 내리시겠다니?


판사님께선 민지의 사정을 살펴보시고
심리상담을 통해서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고 보신 것 같아.
민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뒤에
처분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거지.
뭐야! 그게?!
나연이가 병원에 아직도 누워있는데 민지에겐 너무 관대한거 아냐?
똘아, 소년보호재판은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야.
합리적인 보호조치로 학생들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
똘아.. 우리 나연이 병문안이나 다시 한 번 가지 않을래?
종합병원


너희가 몇 번이나 찾아왔다는 얘기는 들었다.. 고맙대이...
몸은 좀 괜찮아?
넌 우릴 잘 모르겠지만 우린 옆 반의
안다.. 대법초등의 명물 바퀴벌레커플
한똘과 신나리잖아.
바..바퀴벌레...
오고가며 너희들을 봤었어..
누구보다 절친한 둘을 보면서 나도 저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이젠 다 필요없다.


퇴원하면 엄마랑 다시 시골로 전학가서 살기다.
도시는 끔찍해서 이제 못 살겠다.
나연아, 가면 안돼. 우린 이제 친구잖아.
응?
학교에선 그동안 사이버 따돌림과 집단 괴롭힘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어.
민지와 어울려 널 괴롭히던 애들, 모른척하던 애들 모두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어.
이건 그 애들이 너에게 쓴 사과편지야.
학생회장으로서 대신 가져왔어.
사..과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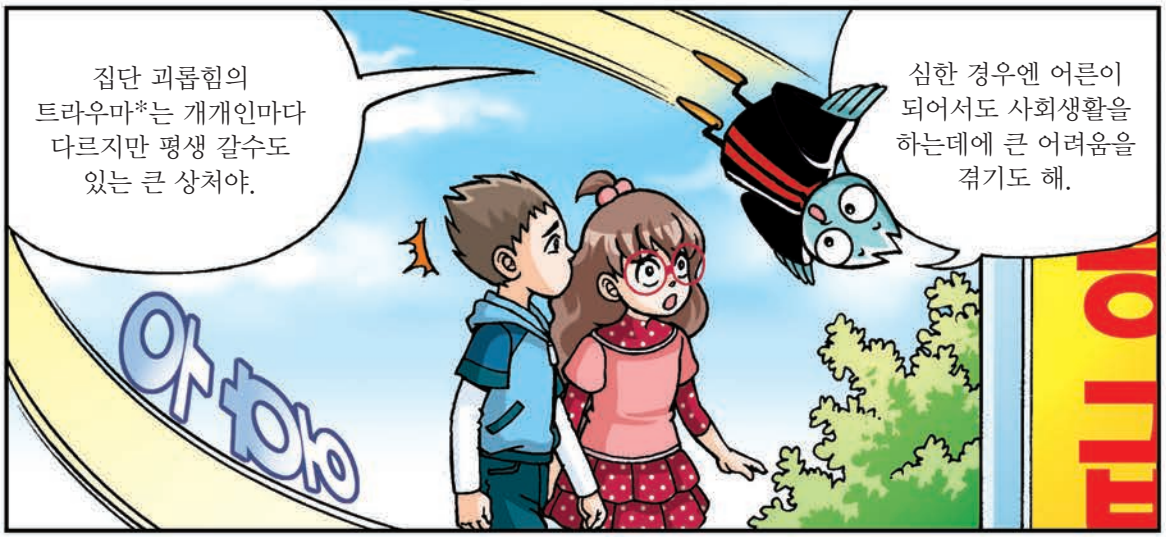

돼지... 죽어라.
사투리 진짜 웃겨
××××...
×××...××××
냄새나는 ×××...
×××...××××


치아라캐라!
이제 와서 무신 소리고!!
차악


나.. 나연아.
미안.. 미안해 내는 개네들을 못 믿겠다.


찾아와줘서 고맙대이..
그라믄 잘가라...









*트라우마: 정신적 상처, 충격


판사님의 심리조사명령에 따라 민지와 민지부모님은 담당조사관과 면접하기로 했다.
안녕 하세요.
커흠!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
이 자리를 너무 어려워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질문은 민지 양을 이해하고 돕기위한 질문들일 것입니다.
민지에 대한 교육은 모두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솔직히 저까지 이 자리에 나와야 할 필요성을 못느끼겠군요.


학교폭력 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일수록 부모의 관심, 가족 간의 대화가 부족하다고 나오더군요.
아이들은 보통 부모 및 보호자를 통해 사회성과 도덕성 및 대인관계를 배우고,
사랑과 신뢰관계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부모님이 바뀌셔야 민지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분도 모신 겁니다.
민지 아버님은 일주일에 몇번이나 민지와 대화를 하시나요?
제가 병원 일로 워낙 바빠서…
민지 어머님은 평소 민지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학업성적에만 신경을 쓰셨군요.


그것이 민지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민지가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만…
민지 양, 이번엔 민지 양에게 물어볼게요.
민지 양은 이번 재판과정을 통해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처음 친했던 나연이의 마음도 이제 좀 이해가 되나요?
……
……
민지야, 조사관님이 네게 물으시잖니?
어서 대답해!
민지야!
……
괜찮습니다. 그냥 두세요.
민지는 자존심이 강하고 어른에 대한 불신감이 깊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어...
어떻게 마음을 열어야 할지.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민지 양과 함께
저희가 연결해 준 상담전문가를 자주 만나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실하게 상담을 받으시고 민지 양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반성하고 옳은 방향으로 변화되게 도와 주셔야 합니다.
이거야 나 원...
아직 민지의 처분이 결정되려면 멀었지?
그렇겠지, 지금은 민지가 부모님과 함께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니깐..
나연이는 아직도 다른 친구들을 거부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일을 살짝 보여줄까?
와아~ 할 수 있어?
이대로 있다간 너희들 한숨에 내가 짓눌려 죽겠어.
특별히 천기누설을 하여 앞날을 보여주도록 하지.


번쩍
이 거울 속을 잘 봐.
바로미 멋져♡
앗! 민지다.


민지는 법원에 소속된 전문상담가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고 있었다.
민지야 오늘 날씨가 쌀쌀하지?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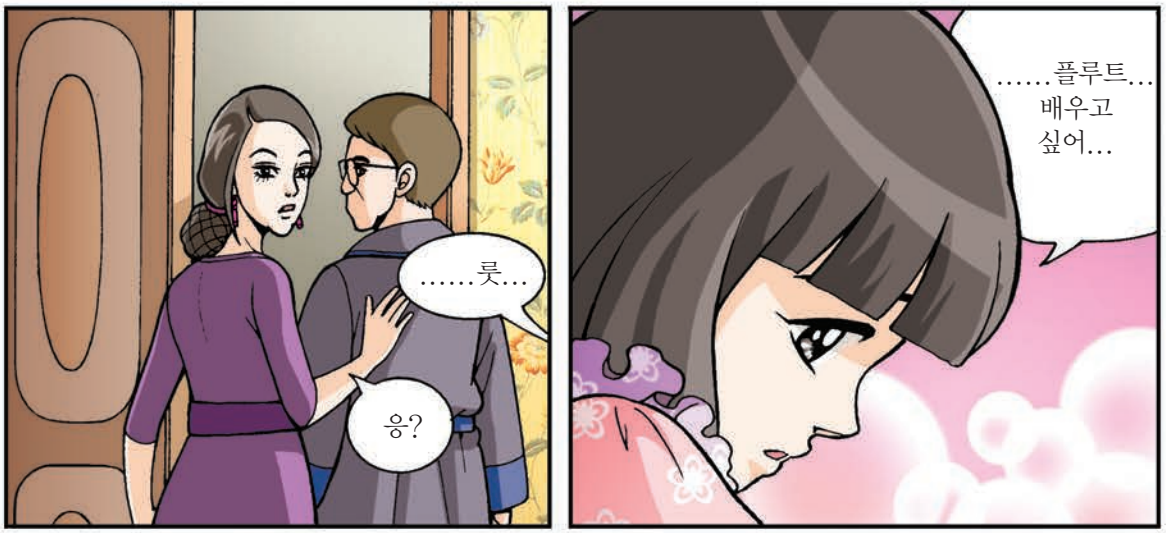

오는데 길은 안 막혔니?
네.


오늘 기분은 어떠니? 뭐 마실거 줄까?
왜 자꾸 친한척 하는거야? 귀찮게시리.....


짜증나고 ×같은 기분이에요.


저런... 민지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짜증이 났을까?
어라? 왜 화를 안내지?
선생님께 민지 마음을 이야기해주지 않을래?
.....
부모님의 공부, 직업, 인생관을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고 주입시키는 것도 일종의 폭력입니다.
혹시 부모님의 만족을 위해 부모님의 가치관을 민지에게 강요하진 않았나요?
...!
민지는 이번 일로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으며, 부모님도 자신을 곧 버릴거라고 자포자기식으로 말하더군요.
!!


무엇보다 부모님이 민지를 믿고 사랑한다는
표현에 인색해서는 안됩니다. 민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물어봐 주세요.
...!
알겠습니다. 선생님.
민지야, 엄마 아빠랑 이야기 좀 할까?
... 말해.. 들을게...
뽁
뽁뽁
뽁
옮긴 반의 분위기는 어떠니? 친구들이 잘해줘?
뽁
뽁
민지야, 혹시 따로 좋아하는 건 없니? 가령 갖고 싶은 것이나 배우고 싶은거...
아직도 우리와는 말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


……룻…
응?
……플루트… 배우고 싶어…


민지의 부모님은 상담가 선생님과 의논하여 복지센터에서 민지가 플루트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다.
종합사회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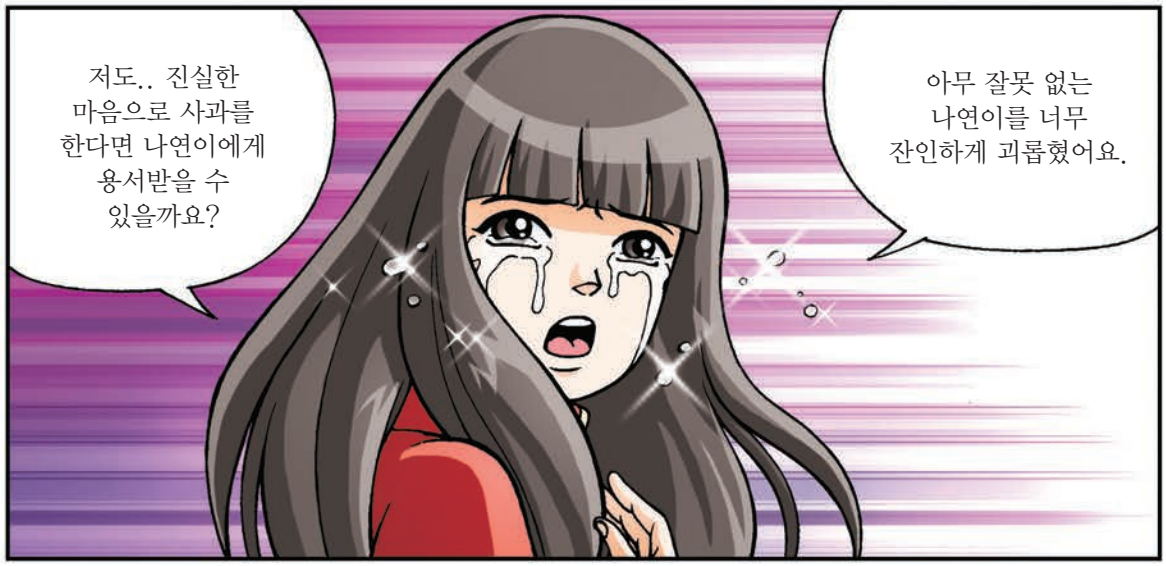

초딩이 똘방하게 생겼네.
잘 부탁합니다. 선생님
그래, 민지라고 했지. 열심히 해보자.
복지센터에선 음악치료를 겸하여 악기를 가르쳐주는 곳으로 민지처럼 문제학생으로 분류된 언니, 오빠, 친구들이 많았다.


내가 정말 플루트를 배우게 되다니...
..꿈만 같아...
팔에 너무 힘이 들어갔구나. 숨을 조절할 수 있는 배에만 힘을 주고
어깨, 팔, 손가락까지 자연스럽게 힘을 빼줘야 해.
네, 선생님.
민지 부모님 말씀으로는 민지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하시던데
상담 선생님께서 보시기엔 어떤가요?
네. 민지가 차츰 마음을 열어가고 있어요.
처음엔 부모님에 대한 원망만 했는데 지금은 고마운 점도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사 사 삭
학교에 전화해보니
담임 선생님께서도 민지가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칭찬했습니다.
배우고 싶던 악기를 연주하게 된 것이 많은 위로가 된 것 같아요.
민지 부모님도 차츰 민지를 이해하고 계시고요.


민지의 마음이 치료되고 나면 친구인 나연이의 고통을 공감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음악실
타
다
닥
탁
웬일이야 아빠가 플루트를 사주다니..!
얼른 연습실에 가서 연습해 봐야지.
이 음악은 예전에 나연이와 공원에서 함께 듣던 곡...
Zzz


민지가 연습하러 일찍 왔구나.
너무 열심인데… 하지만 보기 좋다.
선생님, 방금 그 피아노로 연주하신 그 곡.. 뭐예요?
마음에 드니? 뮤지컬 〈캣츠〉에 나오는 「Memory」 '추억'이라는 곡이란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아름다운 곡이지.
어떤 이야기에요?
〈캣츠〉는 고양이를 사람에게 빗대어 여러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노래와 춤으로 보여줘. Memory는 '그리자벨라'라는 고양이가 부르는 노래야.


그리자벨라는 젊었을 적 아름다웠지만 오만했기 때문에
늙은 뒤에 친구들에게 외면을 당해.
Memory(추억이여)
달빛을 향해 고개를 돌려요.
추억이 당신을 이끌도록 하세요.
하지만 진실한 마음이 담긴 노래인 Memory를 부르고 친구들에게 용서를 받아 화해를 하게 된단다.
Memory는 용서와 화해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
미..
민지야?


저도.. 진실한 마음으로 사과를 한다면 나연이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 잘못 없는 나연이를 너무 잔인하게 괴롭혔어요.


이후 민지는 나연이가 치료받는 병원으로 찾아가 몇 번이나 진심으로 사과하지만, 매번 문전박대를 당했다.
또 오다니 정말 뻔뻔하구나.
종합병원


네가 올때마다 나연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 줄 아나?
혹시 나연이를 괴롭히는 새로운 방법이가?! 그냥 가라! 가!!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만 가자. 민지야.
죄송합니다. 아저씨.


다시는 오지 마라!!
!


누구 때문에 나연이가 밖에도 못 나오고 숨어사는데
음악회 초대장을 줘?!
에잇! 누굴 놀리나?!
탁
나.. 나연아...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
일시:○○월 ○○일 오후 2시
장소:○○공원 야외콘서트장

얼마 후 공원에서 민지의 밴드부가 연주하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위한 공연이 열렸다.






서..선생님,
민지가 우리를
모른척
하는데요?
부끄러워서 그래요.
속으론 아주 기뻐하고
있을 거에요.
나연아, 인자
돌아갈래?
사람 많은데
괜찮나?
.....
밖에
나오는거 많이
무서웠는데...
그래도 민지가
사과할 때마다 조금씩
용기가 생겼어요.
학교도 다시
나가보려고요.
나..
나연아


엄마, 아빠 저 생각 바꾸기로 했어요.
이제 다시 시골로 내려가자는 말도 안 할게요.
정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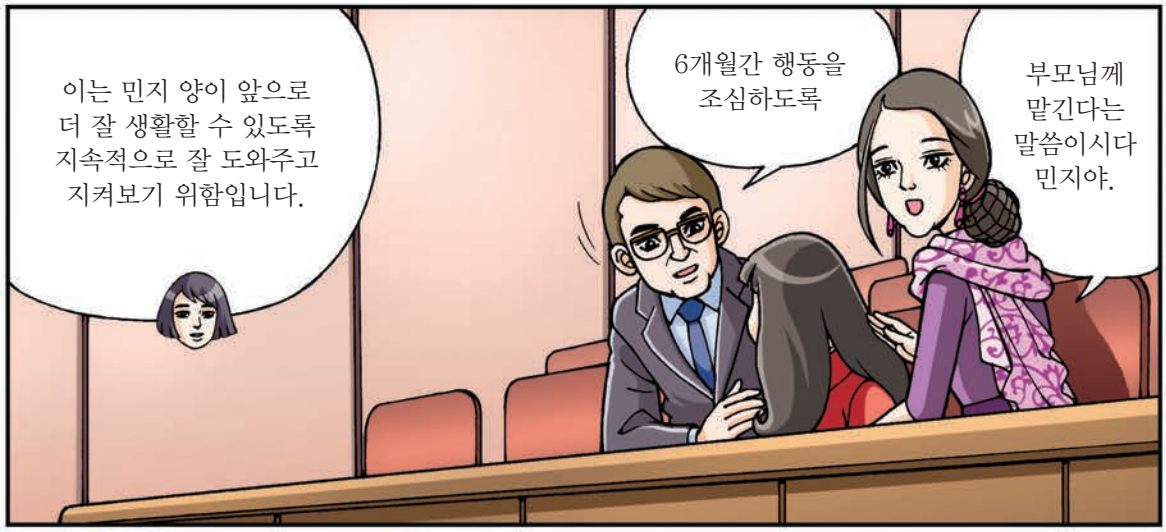

아직은 이만큼 떨어져서 민지를 보지만 곧 민지 앞에 평범하게 마주 설 수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 그게 뭐예요. 창피하게...
잘했다. 우리 딸.


처음 친구였을 때처럼...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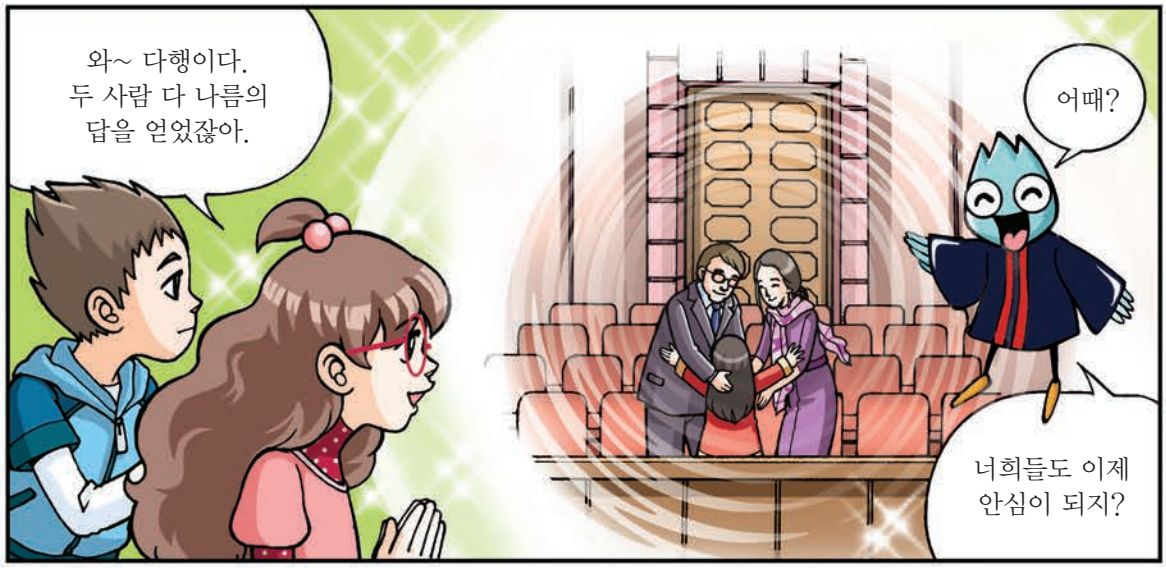

법원
모두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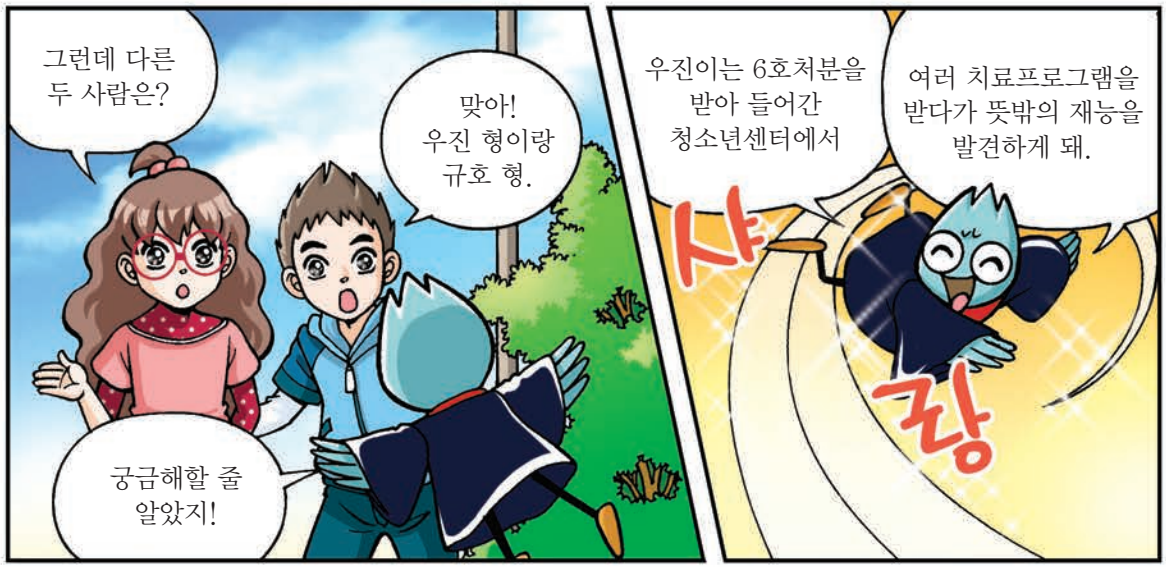

민지 양을
살펴보았던 조사관
보고에 의하면
심리상담조사
보고서
민지 양이 그동안
놀랍도록 많이
변했다고
하는군요.
민지 양은 물론
부모님들께서도 그만큼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나연 양에게
준 상처와 그 피해가
크므로…
1호처분(보호자감호
위탁처분-6개월)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 처분?


이는 민지 양이 앞으로 더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잘 도와주고 지켜보기 위함입니다.
6개월간 행동을 조심하도록
부모님께 맡긴다는 말씀이시다 민지야.


판사님께서 제일 가벼운 처분을 내려주셨구나.
가..감사합니다. 판사님.


감사합니다.


와~ 다행이다. 두 사람 다 나름의 답을 얻었잖아.
어때?
너희들도 이제 안심이 되지?


그런데 다른 두 사람은?
맞아! 우진 형이랑 규호 형.
궁금해할 줄 알았지!
우진이는 6호처분을 받아 들어간 청소년센터에서
여러 치료프로그램을 받다가 뜻밖의 재능을 발견하게 돼.
샤
깡


우진아. 이 그릇 정말 네가 만든거니?
네.. 왜요?


대단해! 이건 초보자의 솜씨가 아냐!!
그.. 그래요?
금적 금적


넌 내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 솜씨가 제일 특출하구나.
도예를 본격적으로 배워보는 건 어떻겠니?


색다른 기분인걸...
열 받으면 무엇이든 부수고
망가뜨려 온 내가 물건을
만드는 재능이 있다니...
확실한 건 부수는 것
보다 만드는게
더 재미있단거야.
.....


우진이를
불러드릴까요
아버님?
아니오,
괜찮습니다.
끝날때까지
기다리지요.


우진이의 저런
순수한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문제아가 된
것은 이 못난
아비탓인 거겠지요.
부끄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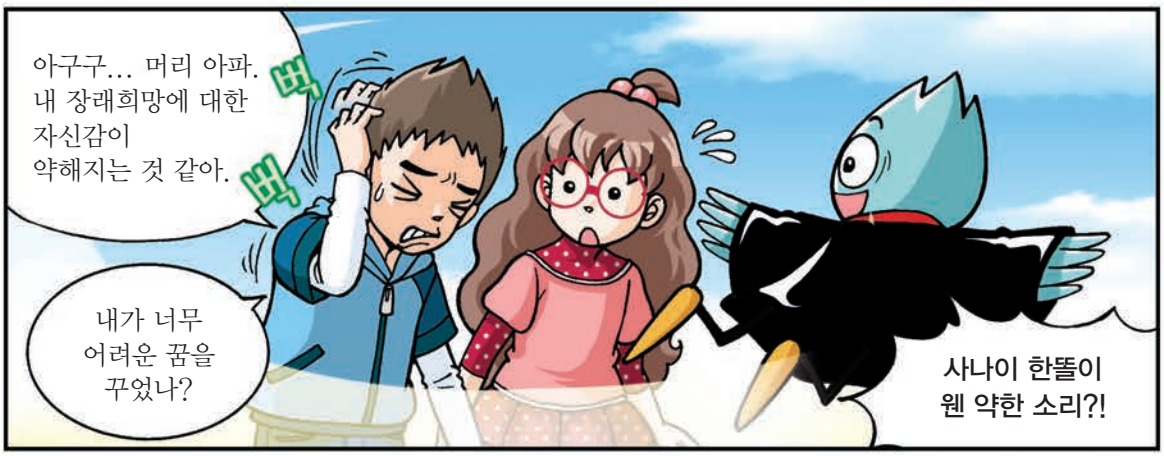

우진이는 도예가의 길을
걷게 되고 훗날 특허기술까지
등록하게 된단다.
헐~
대박!!


그리고
규호는...


규호야.
어…엄마!?
어? 규호 형은 엄마가 없다고 했잖아.
할머니가 엄마는 죽었다고 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거짓말을 한거야. 너희 아빠가 죽자 네 엄마가
재혼해 버린 것이 괘씸해서 우리 연락처를 숨기고 살았고, 네게도 거짓말을 했단다.
그.. 그럴수가
규호야, 엄마는 널 한시도 잊은적이 없었어.
못 믿겠어요! 그럼 왜 찾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껏 엄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다고 믿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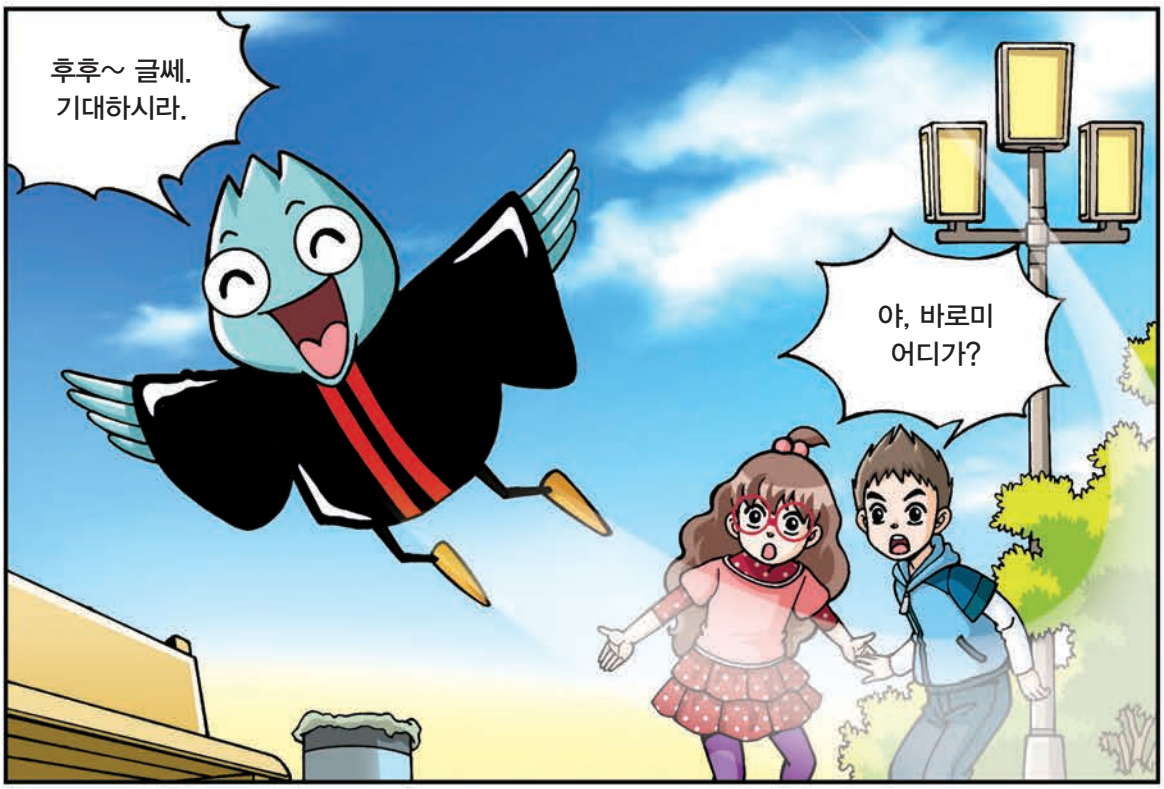

미안하다.
규호야...
제발 엄마를
용서해 줘.
왜 이래요?
놔요!!
놓으라구요!!
엄마...
규호가 큰 충격을 받긴 했지만
결국 엄마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 잡는단다.
크크
울었나?
누..눈에
먼지가
결과적으로 저
두 사람도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서
다행이야.


아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재판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
응?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제일 처음 나연이의 과거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
민지와 형들에게 반드시 큰 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민지와 형들의 자세한 집안사정을 알고나니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더라.
동감..
판사는 피해자의 사정, 가해자의 사정, 주위 요건 등 여러가지를 살펴보고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잖아.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네.
응.. 뚜렷한 자기 기준과 지혜를 갖추지 않으면 힘든 일이겠지.


아구구... 머리 아파.
내 장래희망에 대한
자신감이
약해지는 것 같아.
퍽
퍽
내가 너무
어려운 꿈을
꾸었나?
사나이 한똘이
웬 약한 소리?!


좋아! 네
멘토가 될만한
훌륭한 판사님을
소개시켜주지.
파아앙


어머, 그 분이
누군데?
당장 힘이 난다.
지금 만나보러
가자!!


후후~ 글쎄.
기대하시라.
야, 바로미
어디가?



제7화 심화학습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은 어떻게 다를까요?

<table>
<tr><th></th><th>소년보호재판</th><th>형사재판</th></tr>
<tr><td rowspan="2">대상</td><td>•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중에서,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버릇이 있고, 위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td><td>• 14세 이상
• 14세 이상이기만 하면, 누구나 형법을 어겼을 때, 형사재판의 대상이 돼요</td></tr>
<tr><td colspan="2">• 14세 이상이고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재판 중,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더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재판을 받게 돼요.</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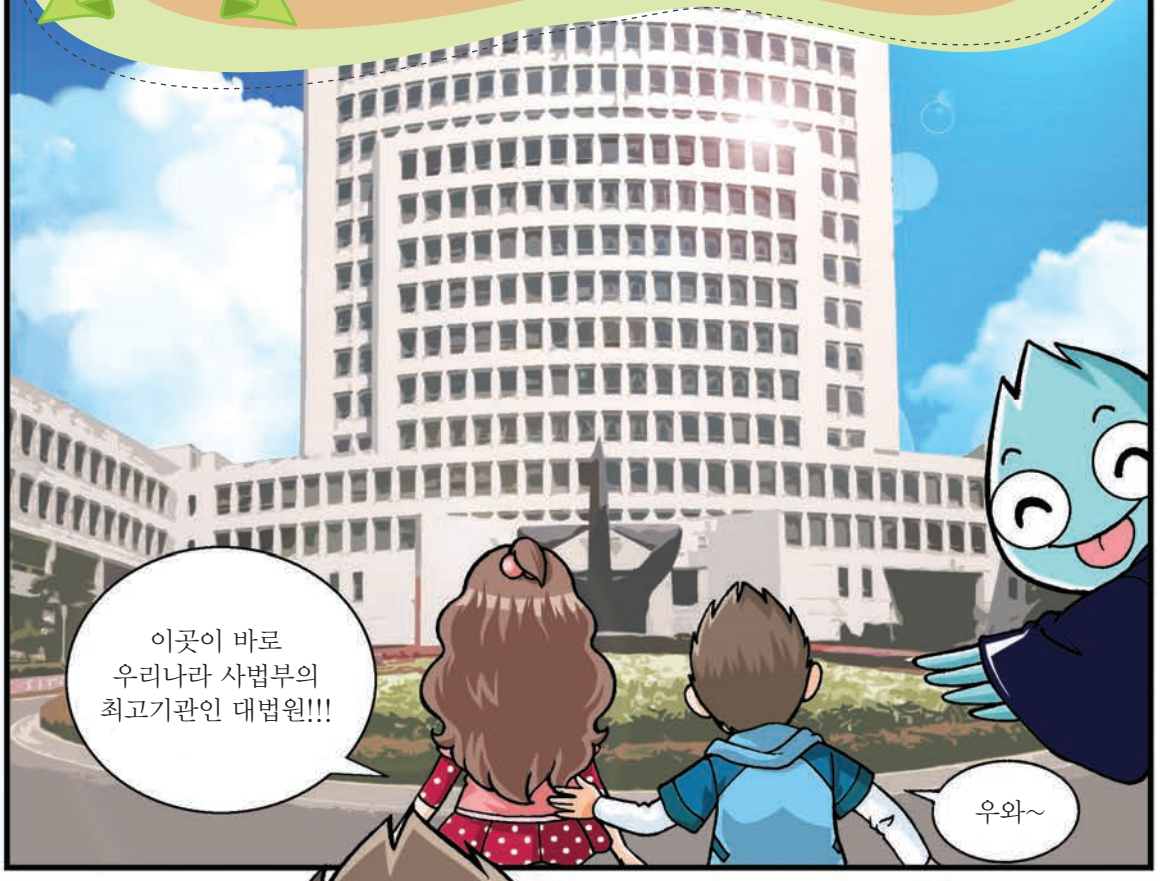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보호처분과 형벌	• 보호처분은 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위한 처분이에요. 보통 청소년의 미래를 생각한 적당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 14세 이상이기만 하면 누구나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전과 유무	• 전과가 남지 않음 • 전과(前科)는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확정된 형벌을 받았다는 기록이에요.	• 전과가 남음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 소년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는 곳이에요. 소년부에서 8호, 9호, 10호 처분을 받은 19세 미만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하는 시설로 단기처분은 6개월이고, 장기처분은 2년 내에서 부정기형으로 이루어지며 21세까지 수용할 수 있어요.	• 소년교도소는 소년범죄자가 일반 형사법원으로부터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성인 범죄자와 분리하여 수용하기 위한 곳이에요. 그리고 미성년일 때 형을 선고를 받은 경우 성인이 되더라도 23세가 될 때까지는 소년교도소에서 분리수용되어야 해요.
관할법원	• 가정법원 소년부	• 형사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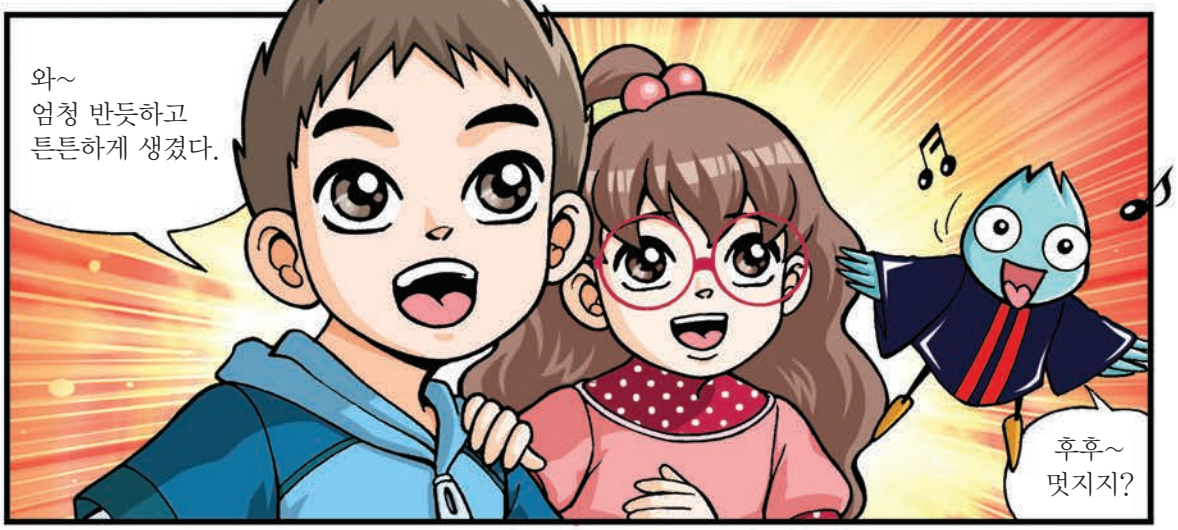




제8화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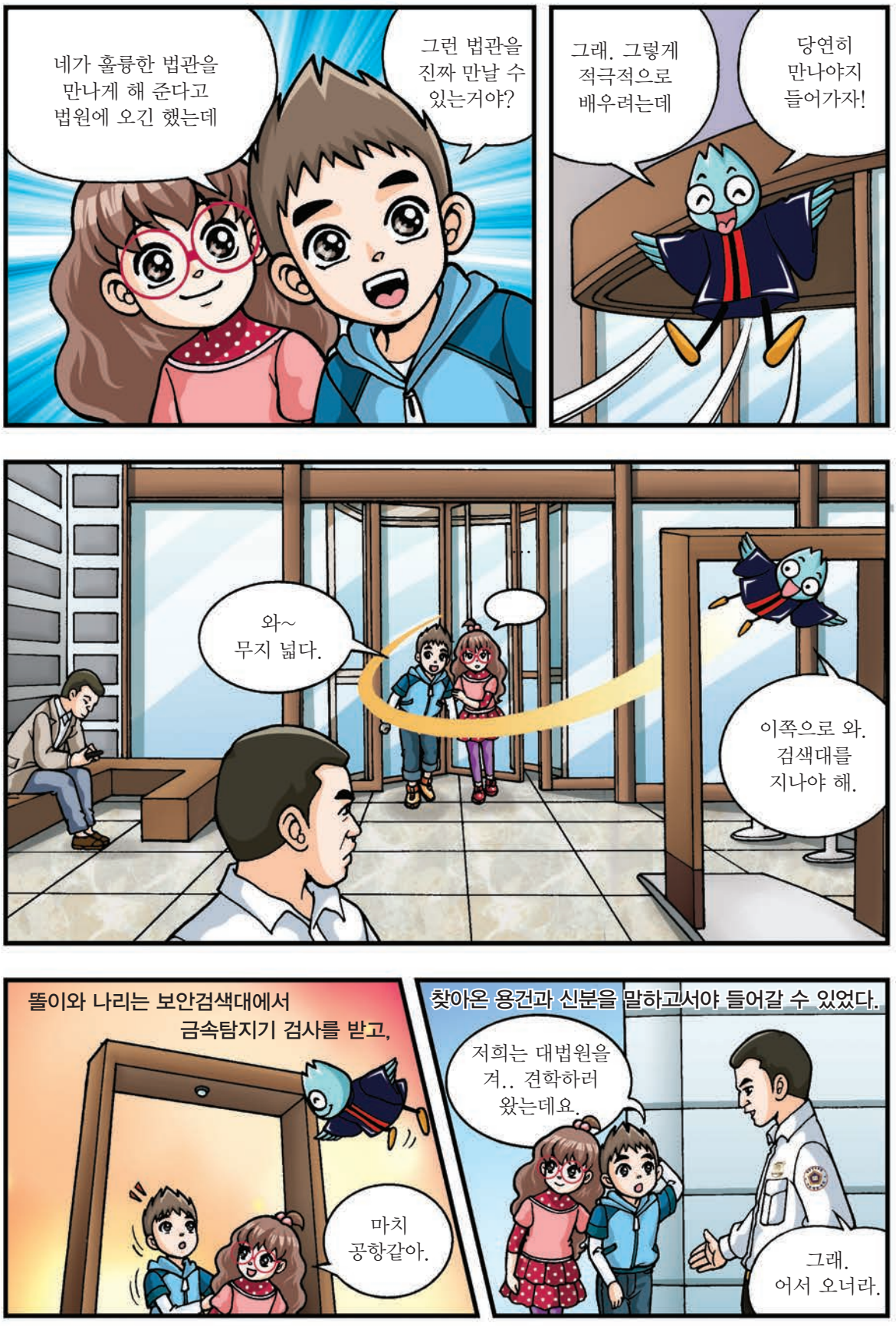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곳을 견학할 수 있는거야?
괜찮아. 개인이나 소수인원은 예약 없이 전시관 관람을 할 수 있고
단체 관람일 경우에는 담당 직원의 설명도 들을 수 있어.


그럼 혹시 대법원에서 하는 재판도 견학할 수 있는거야?
그야 바로미가 있으니 가능하지 않을까?


대법원에서 하는 상고심재판은 필요한 경우에만 열려.
아쉽지만 오늘은 공개재판이 없는 날이야.


그렇구나. 재판도 볼 수 있었다면 재밌을 텐데…
재판을 꼭 보고 싶다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언제든지 방청할 수 있어.
우리 다음에 또 데이트… 아니 재판을 보러 가자.


네가 훌륭한 법관을 만나게 해 준다고 법원에 오긴 했는데
그런 법관을 진짜 만날 수 있는거야?
그래. 그렇게 적극적으로 배우려는데
당연히 만나야지 들어가자!
와~ 무지 넓다.
이쪽으로 와. 검색대를 지나야 해.
똘이와 나리는 보안검색대에서 금속탐지기 검사를 받고,
마치 공항같아.
찾아온 용건과 신분을 말하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다.
저희는 대법원을 겨.. 견학하러 왔는데요.
그래. 어서 오너라.


여기가 전시관이야. 들어가 봐. 혹시 유명한 판사님을 만날지도 몰라.
COURT MUSEUM
정말?
열려라, 참깨!
자유, 평등, 정의가 대법원을 상징하는 글인가봐.
어서 가보자.
自由
자유 Freedom
Equality 평등
不等
Justice 정의
正義
법원의 역사부터 현재의 법제도까지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구나.
나리야, 이것 봐. 법복의 변천사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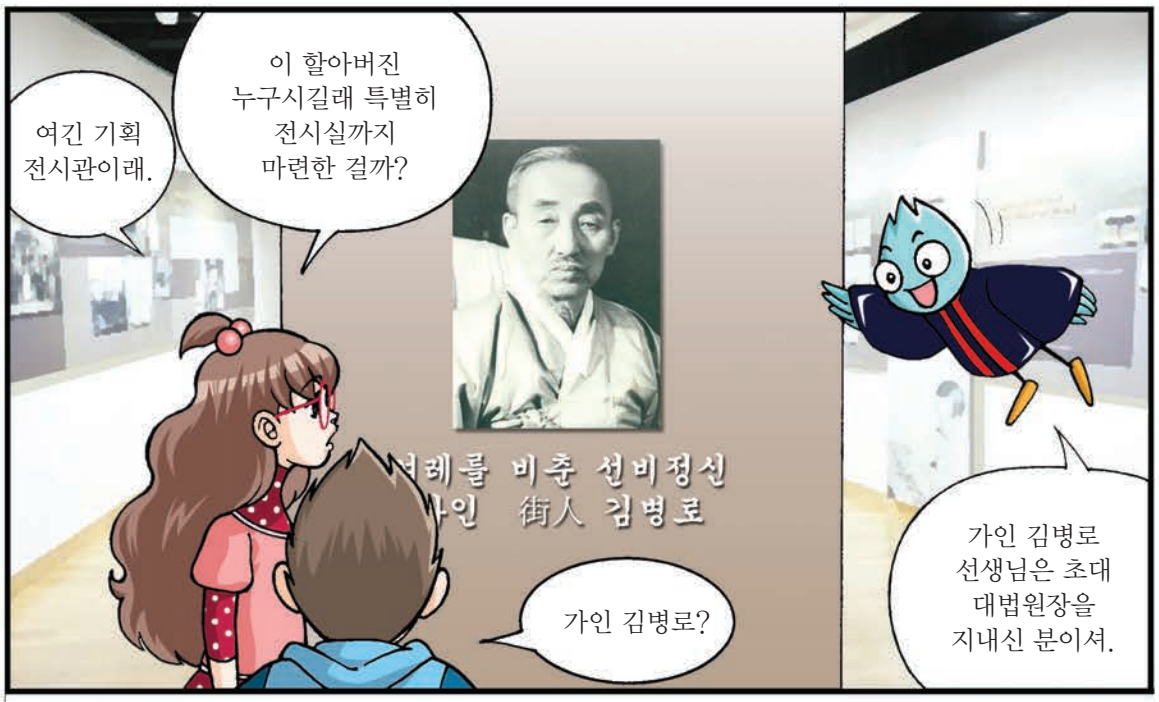

옛날에는 모자도 썼구나.
그러게.


어린이법 체험실도 가봐.
법 체험실?


그곳에선 진짜 법복을 입어볼 수도 있어.
오~ 입어 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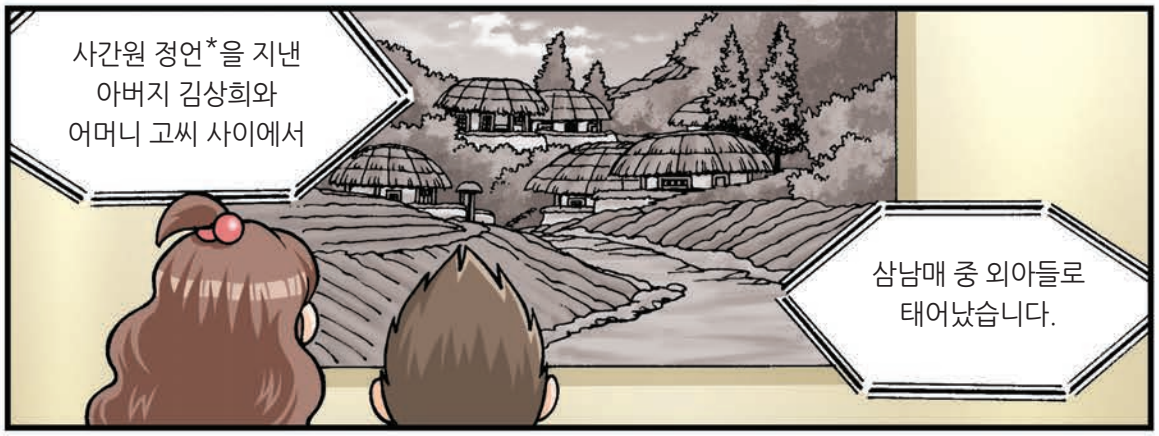

똘아! 여기 와봐.
응?


...?
춘 선비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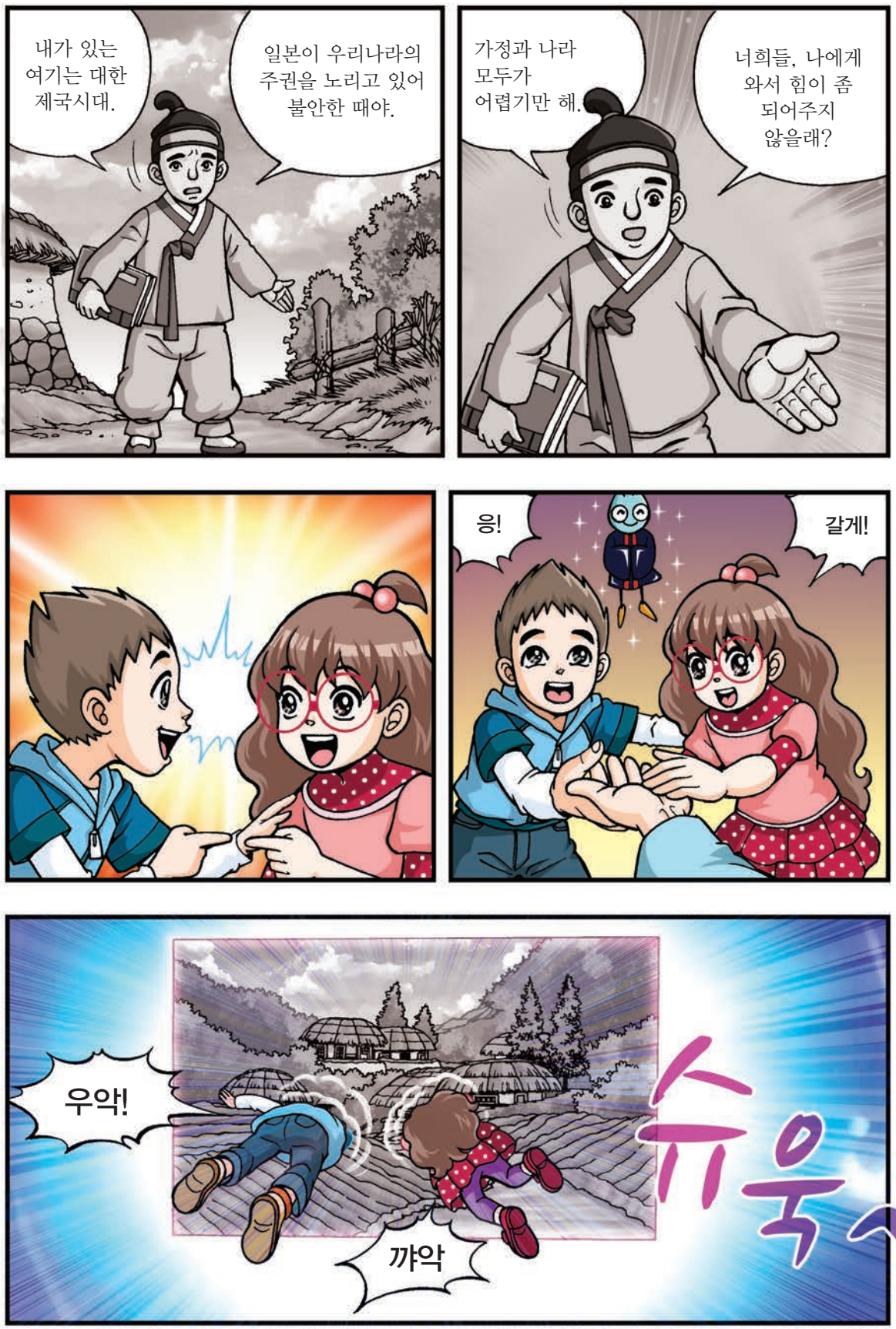






*사간원 정언(司諫院 正言): 조선시대 임금의 잘못을 비판하고 바로잡는 일을 담당하는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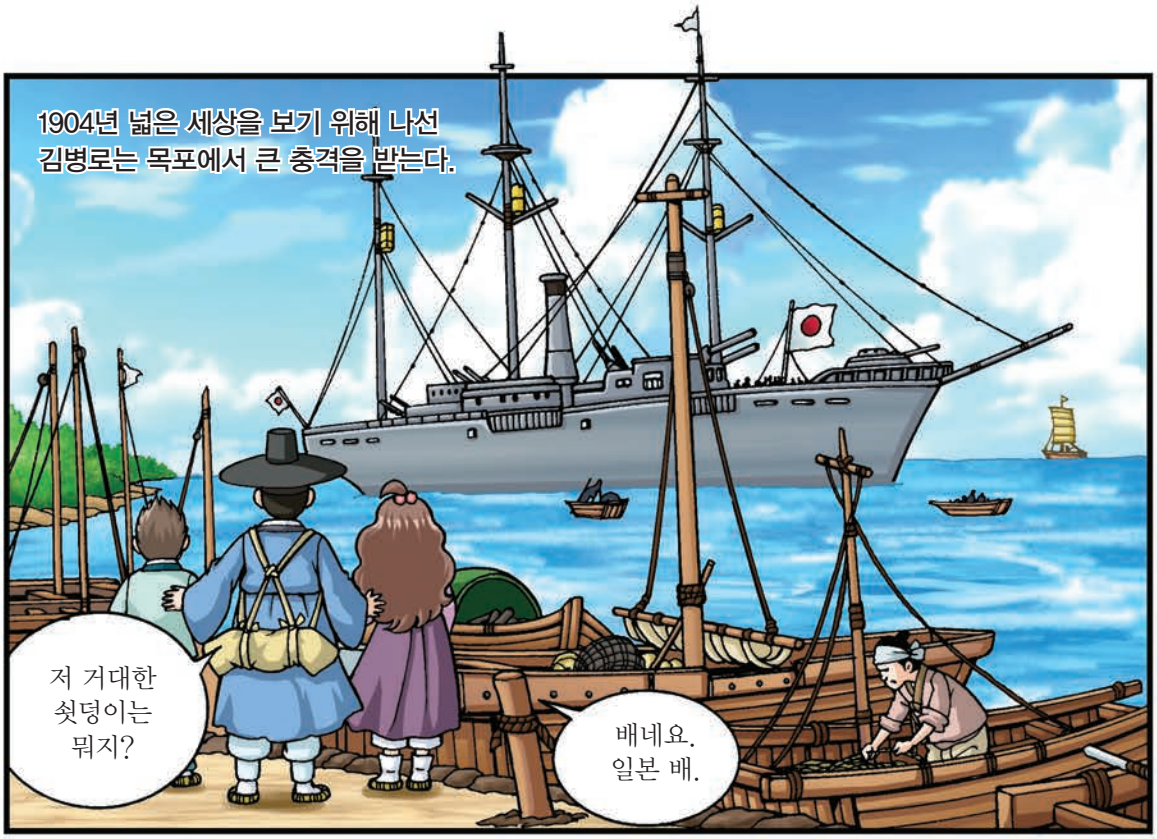

1898년 12세 때
4살 연상의 정씨와
혼인을 했지요.
12살에
혼인했다고..?
와~ 겁나게
부럽다.
히히~ 우리
또래에 결혼했네.
뭐? 부럽다고?
내가 일찍 결혼한 건
10살도 되기 전에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두 돌아가셔서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뭐야?
우리한테 하는
말 아니야?
어머?
여.. 영상이
말을...?!
우와~
하하하
신기하냐?


내가 있는 여기는 대한 제국시대.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노리고 있어 불안한 때야.
가정과 나라 모두가 어렵기만 해.
너희들, 나에게 와서 힘이 좀 되어주지 않을래?
응!
갈게!
우악!
까악
슈욱~


전라북도 순창
어머, 똘아. 이것 봐.
우리 옷이 한복으로 바뀌었어.
우리가 대한제국 시대로 시간이동을 했나봐.
근데 화면 속에 그애는 어디 있는거지?
글쎄?
똘아, 나리야.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뭘 그리 재미있게 얘기 해.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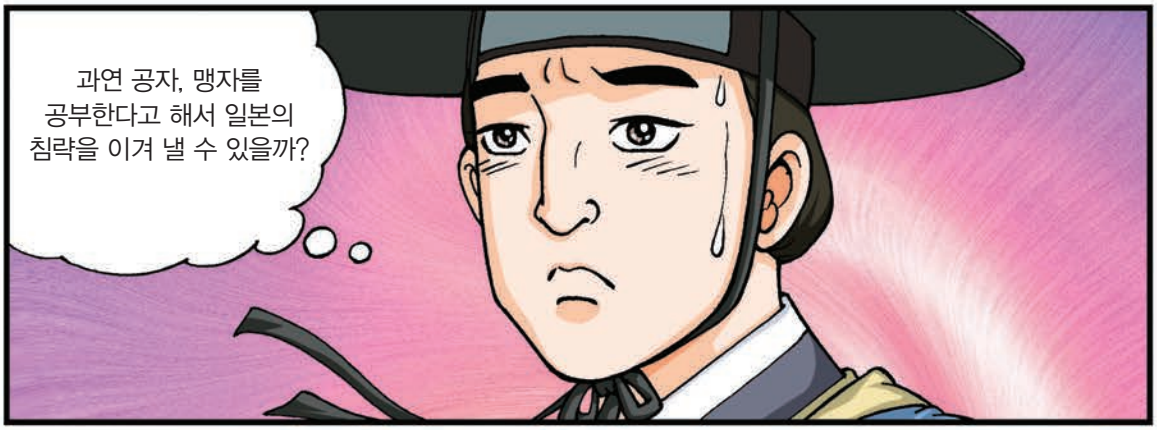

병로야, 방가 방가~
우리 아까 봤었지?
이놈들!!!
아무리 내 나이가 어리지만 촌수로는 너희 삼촌뻘인데 말을 함부로 하다니.
엥?
사.. 삼촌?
아까 대법원에서는 반갑게 굴더니 갑자기 왜 저래?
삼촌뻘 이래잖아.
놀라지 마. 내가 능력을 쓴 것 뿐이니까.
역시 범인은 바로미 너였구나.


너희들이 김병로 선생님 곁에 좀 더 있기 편하도록 내가 이곳 사람들에게 최면을 걸었지.
너흰 사정상 함께 살고 있는 먼 친척 조카야. 영광인 줄 알아.
야! 그래도 나이가 비슷한데 삼촌은 너무하잖아.
걱정 마. 너희는 그대로 있겠지만 앞으로 김병로는 나이를 팍팍 먹을꺼거든.
응?
김병로는 16세가 되자 간재 전우에게 찾아가 학문을 배웠다.
군자란 도덕과 의리를 중요시 여겨야 한다.
네. 스승님.
간재 전우는 조선 최후의 정통 성리학자라 불리는 선비야. 무려 3,000명의 제자가 있었대.


1904년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나선
김병로는 목포에서 큰 충격을 받는다.
저 거대한 쇳덩이는 뭐지?
배네요. 일본 배.


소문으로 듣긴 했지만 일본의 발전상태가 어마어마 하구나.


우리나라 배들과는 심하게 비교되는군.
이런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니…


과연 공자, 맹자를 공부한다고 해서 일본의 침략을 이겨 낼 수 있을까?


김병로는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담양에 「일신학교」를 세우고 서양인 선교사를 초빙하여 산술(수학), 서양사, 일본어 등 신학문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나이스 투 미츄~ 에브리원.
nice to meet you everyone
?
나 이거 원... 에구
미쳐버리겠네...??
하지만 1905년 11월
크흐흑!! 어찌 이런 일이!
삼촌 왜 그러세요?
왜놈들이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는 내용의 조약을 강제로 맺었다는구나.
외교권을 빼앗기다니...
으..을사조약 인가봐.
외교권이 없다는 것은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도 잃어버렸다는 것이야.


나라가 이런 수치를 당했는데 이까짓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살아있는 것도 무의미하다. 차라리 죽고 말겠어!!
탕
삼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죽다니요?!
놔라!! 나라 없이 살아 무얼 하겠느냐?
진정하세요, 삼촌. 사실 이건 비밀인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긴 하지만 어찌어찌해서 잘 살게 되어요.
응?
월드컵이랑 올림픽도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IT강국으로...
똘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거야?
끄으응~~
앗?
어머? 정신 차리세요.
야! 미래를 함부로 말하면 어떡해?


역사를 바꿀 참이냐?
아니면 우리나라 역사를 판타지로 편집 시키고 싶어?
그..그게 너무 괴로워 하시니깐 주위를 딴 곳으로 돌린다는게 그만……


시끄럿! 한번 더 입방정을 떨면
벼락 맞을 줄 알아!!


잘..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런데 삼촌은 어떻게 되신거야?
걱정 마. 잠시 후 깨어날테니…


네가 말한 것은 김병로의 기억에서 지워줄테니 앞으로 조심해!!
번쩍
알았어. 고마워.
휴~ 바로미가 화나니깐 완전 무섭다.


을사조약 이후…
와
와
와


와
왜놈들은 우리 땅에서
물러나라!!!
와
와
김병로는 의병부대에 합류해 일본인시설을 습격하기도 했다.


으악!
타 타
멍청한
조선인들
탕


탕
아...


죽창으로 일본경찰들에게
맞선다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다.....


크으윽... 어떡해야 왜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단
말인가.....?


삼촌, 이제 위험한 의병활동은 안 하시는거죠? 다행이에요.
그런데 지금 책 보따리를 지고 어디 가시는 거에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힘의 차이가 너무 크구나.
저들과 싸우려면 나도 힘을 길러야 하지 않겠니.....
신학문을 다시 배울 작정이다.
그렇군요.
김병로는 6개월간 창흥학교에서 고등과정을 배우고
민족주의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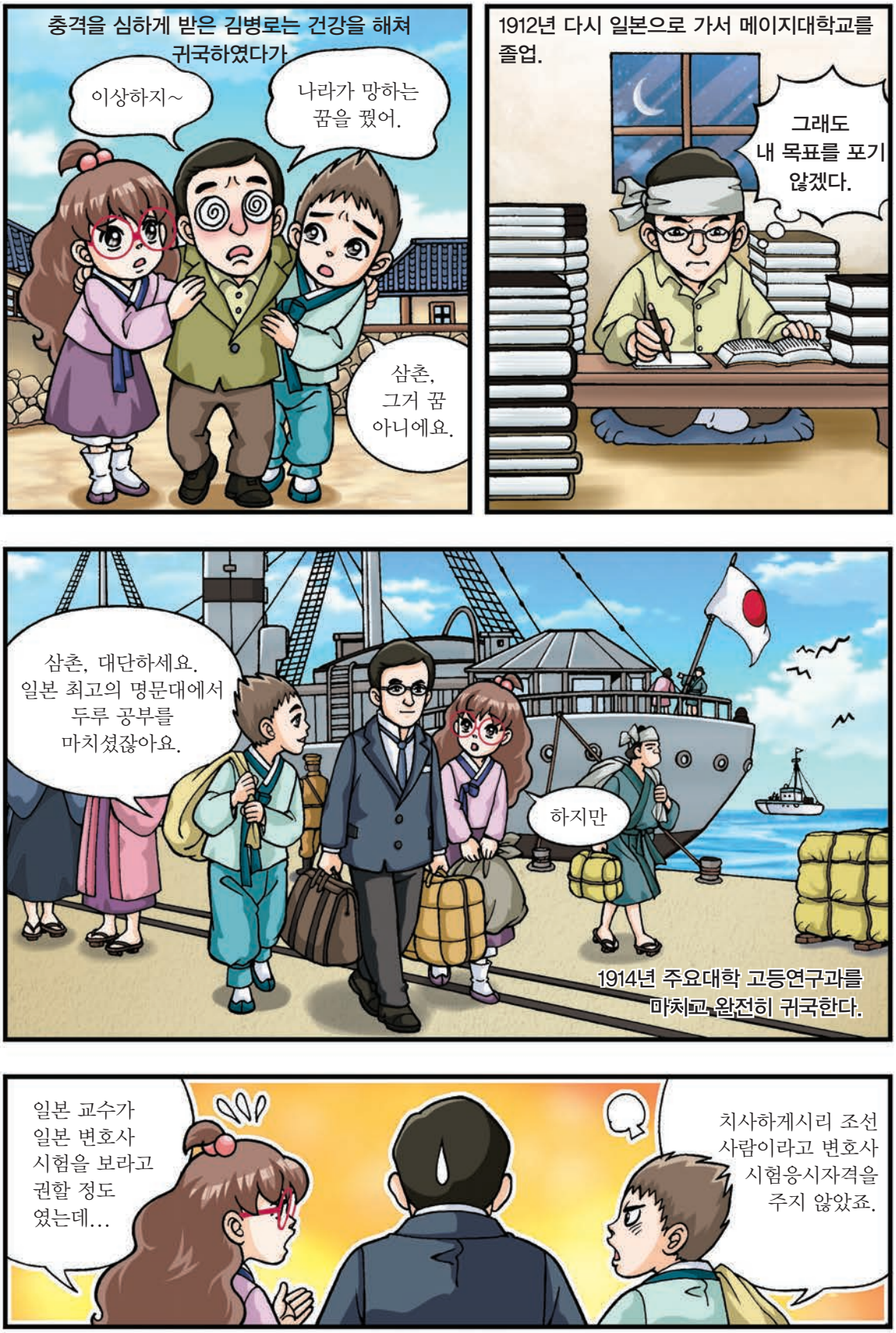

그리고 1910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다.
와아... 이곳이 일본의 대학! 확실히 당시의 우리나라보다는 발전했구나.
똘아, 어서 삼촌께 점심 도시락을 전해야지.
크크크~ 웬 조선인 꼬마들이람?
어디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 했더니 얘네들이었군.
무슨 소리야? 냄새라니?
참아... 혹시 문제를 일으키면 삼촌께 폐가 될지도 몰라.....


소문 들었어? 조선에 가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대.
만만한 조선인을 상대로 다짜고짜 돈을 갚으라고 고소를 해서 재판이 열리면 대부분 일본인이 승소한대.
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무식한 조선인들이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재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재판 출석도 안한다는 거야.
게다가 조선의 사법권까지 우리 차지가 되어서
재판이 모두 우리 일본인 중심으로 돌아간다잖아. 클클클…
우리도 당장 조선에 가서 조선인들 등이나 쳐 볼까?
핫하하. 좋은 생각이야. 바보 같은 조선인들~
이봐요!!
깜짝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시끄럽다! 조선인 주제에 감히 어디서.


조선인 주제? 더는 못 참아!!
우리 주제가 어떻다는 건데?
똘아!
삼촌.
제 조카들이 실례를 했군요. 죄송합니다.
삼촌?! 흥. 딱 걸렸어. 어디...
커흠... 지성인인 우리가 참아주지 뭐.
?
조선인에게 트집 잡을 좋은 건수인데 왜 물러나고 그래?
저 조선인 몰라? 김병로잖아.
김병로?


아! 그래. 우리 니혼대학 전문부 법학과와
메이지대학 야간부 법학과 두 곳을 동시에 다니고 있다는 그 독종!!
끌정
저런 독한 놈을 함부로 건드리면 뒤끝이 안 좋아.
쳇! 조선인이 법을 배워 뭘해? 농사나 지을 것이지.
저것들이 아직도 궁시렁거리네. 짜증나.
삼촌, 소란을 피워서 죄송해요.
아니다. 저들이 하는 소리는 나도 들었어.
너희들이 화낼만 했어.
삼촌... 일본이 우리나라의 법과 재판마저 자기들 멋대로 우롱하고 있는데
삼촌이 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정말로 소용이 있을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으려고 법을 이용하며 정의를 무시하고 있지만,


형식적일지라도 대등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곳은 법정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저들의 약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공부하고 공부해서 나 또한 법으로 맞서 싸워주겠어!
하지만 1910년 국권침탈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만다.
크흐흑.... 나라가 망하다니!!
나라가 망하다니!!!
삼촌... 진정하세요.
클럭
클럭
흐흐흑...
삼촌?
턱
피..피를 토 하셨어?!!


충격을 심하게 받은 김병로는 건강을 해쳐 귀국하였다가
이상하지~
나라가 망하는 꿈을 꿨어.
삼촌, 그거 꿈 아니에요.
1912년 다시 일본으로 가서 메이지대학교를 졸업.
그래도 내 목표를 포기 않겠다.
삼촌, 대단하세요. 일본 최고의 명문대에서 두루 공부를 마치셨잖아요.
하지만
1914년 주요대학 고등연구과를 마치고 완전히 귀국한다.
일본 교수가 일본 변호사 시험을 보라고 권할 정도였는데…
치사하게시리 조선 사람이라고 변호사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았죠.


학업을 마치긴 했으나 마냥 기쁘진 않구나.
처음 일본으로 떠날 땐 대한제국 유학생이었는데 돌아올 땐 식민지 백성으로 전락해 버렸어.
힘내세요. 삼촌에게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도 있잖아요.
응? 그게 뭐니?
짧은 키…
끙
김병로는 1916년 경성법학 전문학교 조교수로 발령받고
보성전문학교에도 강의를 나가며 법학자로 차츰 인정받기 시작했다.
정의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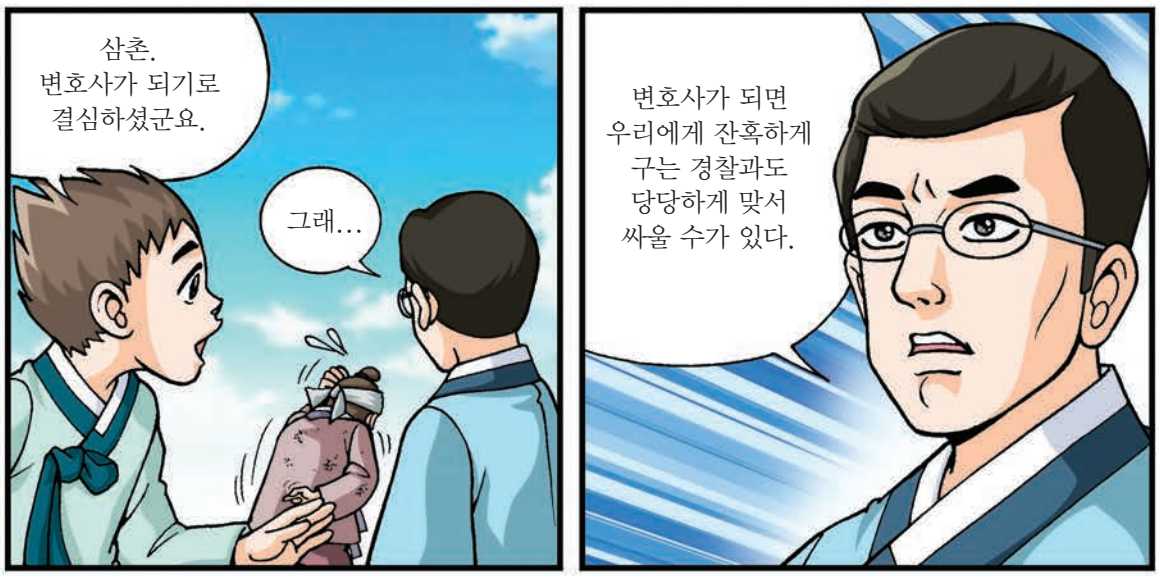

1919년 4월
얘들아, 희소식이다.
삼촌?
내가 부산지방법원의 밀양지원판사로 특별임명되었단다.
와~ 정말이예요?
축하드려요.
여보, 드디어 변호사가 될 길이 열렸소.
꿈을 이루셨군요.
김병로는 뛰어난 법률 실력을 인정받아 판사가 되었지만, 당시 일본 법정에서는....
조선백성들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이 많았다. 1919년 3·1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일본은 이들을 합법적으로 잡아들이기 위한 재판을 열었다.


이 사람들은 단지 만세를 불렀을 뿐이다.
제대로 된 변호를 받으면 바로 풀려날 수 있어.
어려운 백성들을 손 놓고 보고만 있어야 하다니
너무나 괴롭구나.
김병로는 1년 뒤에 판사직을 그만두고 만다.
삼촌, 왜 1년만에 판사를 그만두셨어요?
앞으로 뭘 하실거예요?
그게 말이다.
이 더러운 조선인!! 기분 나쁘게 어딜 노려봐?
퍽
오..오해십니다. 나으리.
팍
헉
오해는 무슨!! 콩밥을 먹여주.....


그만두시오!
어엉?
네 놈이 뭔데 감히
내 앞을 막는게냐?
변호사요.
벼..변호사?
이 분이 어떤 법을
어기셨길래 폭행을
하고 있는게요?
버.. 법?
그렇소.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당신을 폭행죄로
고소하겠소.
움찔
헷!
고소?!
웃기시는군!!


할 테면 해봐!
누가 겁낼 줄 알아?
나는 대 일본제국의 경찰이다, 이거야!!
사라졌다.


큰소리치며 도망가네. 고소란 말에 겁먹었나봐.
가..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 변호사 김병로라고 합니다. 혹시 좀 전 그 자와 문제가 생기면 절 찾아주십시오.


삼촌.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하셨군요.
그래...
변호사가 되면 우리에게 잔혹하게 구는 경찰과도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가 있다.


또 공개적인 법정에서
내 민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고,
변호사 수입으로는
우리 동포들의 실력을
향상 시킬 사회운동을
시작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가 아니겠느냐?


그런 깊은 뜻이
있으셨군요.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직업을 선택하셨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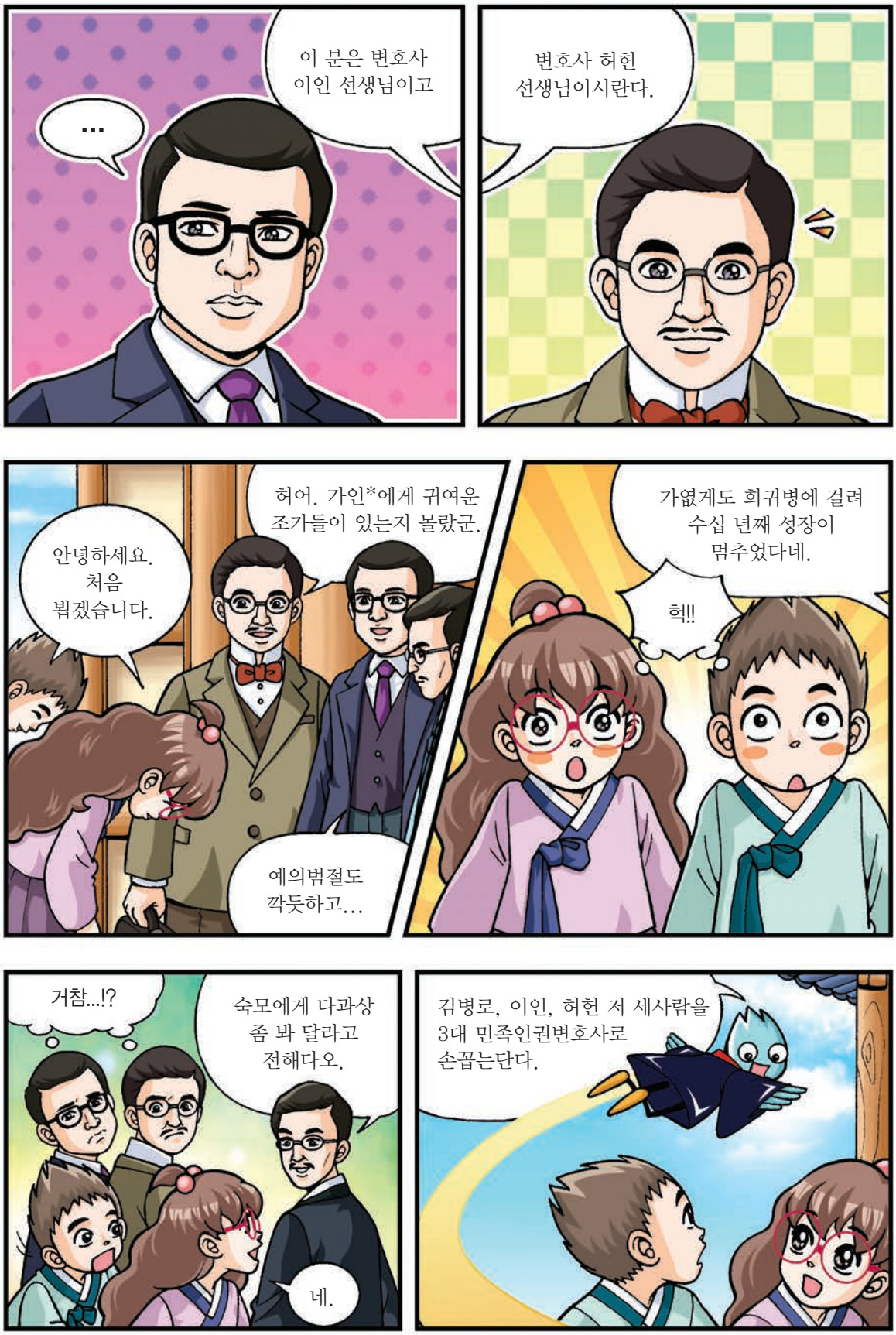

삼촌
따봉!!
따봉?


이후 김병로는 수많은 독립운동사건을
무료로 변호하였다.
판사님!
피고인은 대 일본
제국에 위협을
가하는
무시무시한
테러리스트이므로
엄벌을 내려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2천만 동포야.
죽음으로 결단코 싸우자
만세! 만세! 조선독립
만세...」
누가 봐도 일본제국
을 모독한 명백한
불온문서로군.
그 죄가 명백하다.
조선독립문서가
불온문서라니!!
판사의 자질이
의심스럽소!!
벌떡
뭐라?!
당장 법정모독죄까지
추가하고 싶은게요?
크크크... 저 어리석은 조선놈이
알아서 매를 버는구나.
피고인은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으시오.
!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선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따다다다 다다다
법에 의하면…
냉정하게 사실을 보면…
이성적인…
뜨아! … 논리적인 공격에 당해 낼 수 없구나.
따닥
똘아. 이번에도 큰 벌을 받게 된 독립운동가를 삼촌께서 가벼운 벌만 받도록 도와주셨대.
정말 대단하시다니깐.
김병로 저자는 위험인물이다. 법정에서 조선독립 운동을 하고 있음이야.


너희 삼촌이 변호를 많이 맡긴 하지만 대부분 보수를 받지 않으시니...
너희들을 배불리 먹여 주질 못하고 있구나. 미안하다.
아녜요, 숙모님.
저흰 이걸로도 충분해요.
죽
오죽 못 먹었으면 수십 년째 눈곱만치도 자라질 못하고 있을까?
정말, 미안하다.
수..숙모님 그런게 아니라니까요.
바로미의 마법으로 시간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밥상이 빈약한 건 사실이지.
어서들 들어오게.
삼촌, 다녀오셨어요.
오냐. 삼촌 친구들이다. 인사하거라.


이 분은 변호사 이인 선생님이고
...
변호사 허헌 선생님이시란다.
허어. 가인*에게 귀여운 조카들이 있는지 몰랐군.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의범절도 깍듯하고...
가엾게도 희귀병에 걸려 수십 년째 성장이 멈추었다네.
헉!!
거참...!?
숙모에게 다과상 좀 봐 달라고 전해다오.
네.
김병로, 이인, 허헌 저 세사람을 3대 민족인권변호사로 손꼽는단다.

*가인: 김병로의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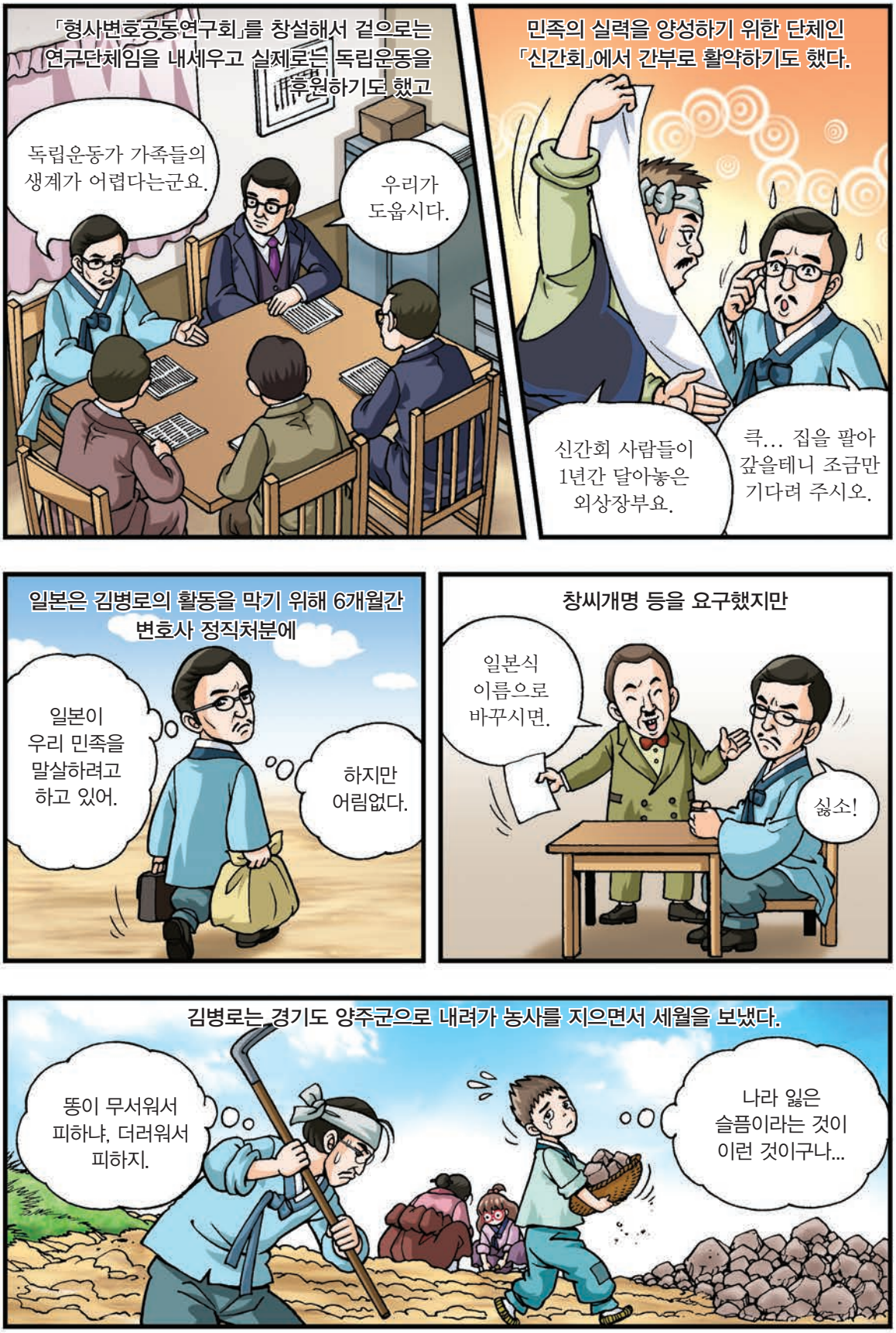

민족인권 변호사?
응. 세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 검사들의 오류를 지적하며 독립운동가들을 재판에서 보호했어.
일본인들이 형식만 유지했던 재판을 치열한 독립운동의 장으로 변모시켰다는 평가를 받게 된거야.
재판으로도 독립 운동을 할 수 있었구나.
그렇지.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었던 만해 한용운도 변호사들의 활동을 보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
변호사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을 돕다니, 고마운 일이다.
지금 저 세 사람이 모인 것도 독립운동가들을 잔인하게 고문한 종로경찰서의 고등계 경찰들을
고소하기 위해서야. 증거와 증언을 확보하고 경성 지방법원에 제출할 고소장을 작성 중이지.
일본경찰을 고소한다고?
오히려 큰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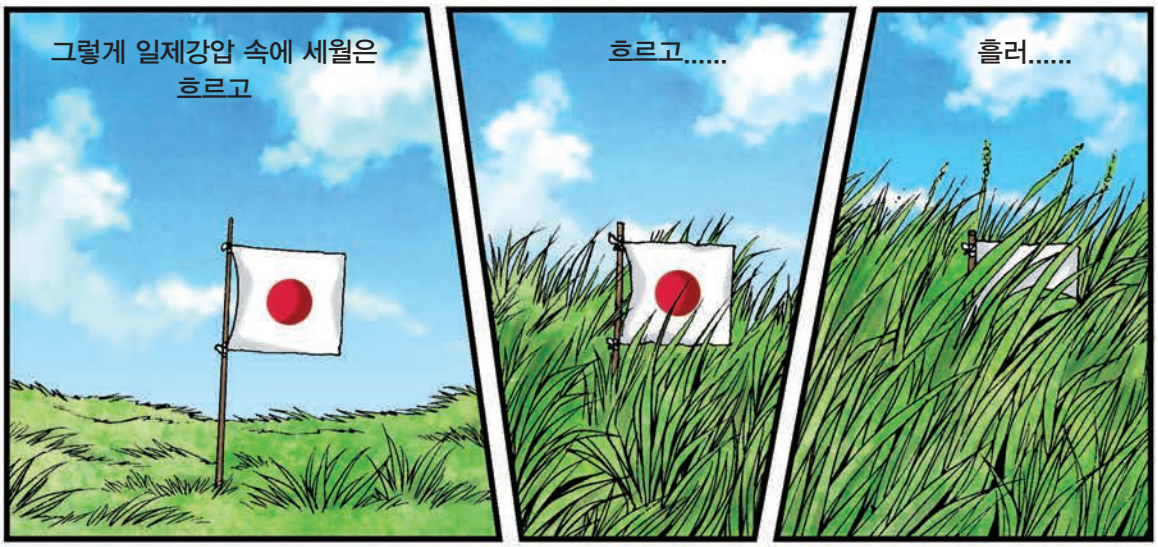

글쎄? 우선 방 안에 다과상을 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먼저 큰일날 걸~
아차차
변호사의 고소장제출은 검찰이 고문한 적 없다고 잡아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문이노 뭡니까?
우린 그런 무서운 말 모르므니다.
거짓말쟁이


하지만 이 소송은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에까지 큰 영향을 끼쳤고, 많은 사람들이 변호인단의 활약에 성원을 보냈다.
경성상
일본 경찰들을 상대로 고소장 제출을 하다니 배짱이 대단하군.
캬~ 내 속이 다 시원해!


김병로의 활약은 그 뿐만이 아니었어.


여운형, 안창호 등이 연루된 치안유지법사건, 백정들의 평등을 위한 조선형평사 사건, 광주학생운동 등 우리 역사에 얽힌 중요한 사건들을 변호하였다.
가인. 바깥 동지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선생께서 빨리 풀려나기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사변호공동연구회」를 창설해서 겉으로는 연구단체임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독립운동을 후원하기도 했고
독립운동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렵다는군요.
우리가 도웁시다.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기 위한 단체인 「신간회」에서 간부로 활약하기도 했다.
신간회 사람들이 1년간 달아놓은 외상장부요.
큭... 집을 팔아 갚을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일본은 김병로의 활동을 막기 위해 6개월간 변호사 정직처분에
일본이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어.
하지만 어림없다.
창씨개명 등을 요구했지만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시면.
싫소!
김병로는 경기도 양주군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면서 세월을 보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나라 잃은 슬픔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일제강압 속에 세월은
흐르고
흐르고.....
흘러.....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이하였다.
와
와
와
대한 독립 만세!!!
드디어 나라를
되찾았구나!!


살아 생전에 이리 기쁜 날이
올 줄이야.
와
만
제
그동안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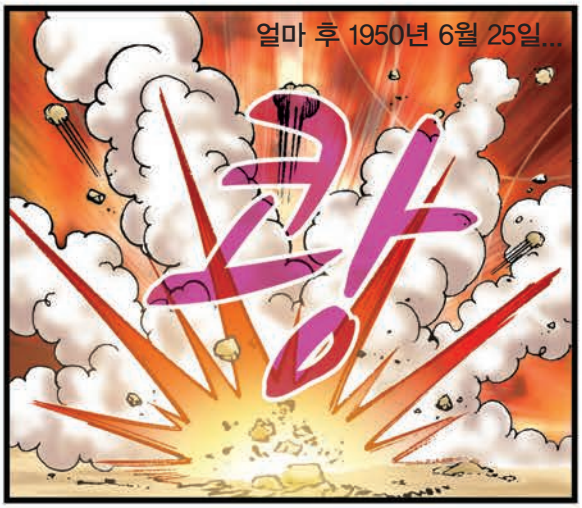

하지만 광복 이후 남북이 분단되고 만다.
뚝
아얏!


김병로는 미군정기 사법부장을 역임하며 법원을 다시 세우는데 힘을 쏟았고,
이 황무지가 현재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현실...
1948년 8월 5일.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의 자리에 올랐다.
대법 임식
삼촌, 축하드려요.
이제 사법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삼촌이신 거죠?
대법원장님의 부인이 되다니 영광이네요.
내 자리가 명예롭긴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막중하다오. 부인.
그러시겠지요.
나는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의 초석을 세우고 있다오. 사법부의 체계를 세워야 하고
법전도 새로 만들고 법복도 새로이 정해야 하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법부의 미래가 결정되고
대한민국이 공정한 법치 국가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오.


김병로는 자나깨나 법을 정비하는 데 심혈을 쏟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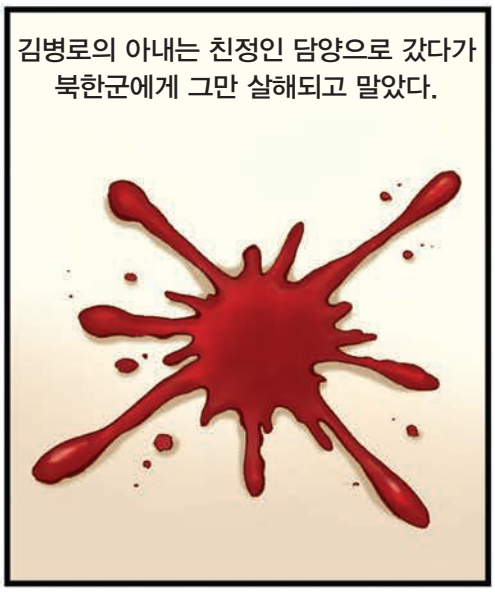

자신의 몸을 미처 돌보지 않은 탓에 왼쪽다리에 골수염이 생겨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불행을 당한다. 그리고...


얼마 후 1950년 6월 25일...
쾅


얘들아!! 당장 떠나야 한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어!
저..전쟁이요?


이..이것이 말로만 듣던 6 · 25전쟁!!
무서워...


부인! 난 피난하는 정부를 따라 부산으로 가야하니.
당신은 당분간 친정에 가 있도록 하시오.
어떡해요? 당신 몸도 성치 않으신데...


김병로의 아내는 친정인 담양으로 갔다가 북한군에게 그만 살해되고 말았다.


크흐흐흑... 부인 내가 죄인이오...
내가 부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크윽...


김병로는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대법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는데


김병로는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도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법전
두둥


남한과 북한이 38선을 그어 휴전하자 김병로는 서울로 돌아와 다시 대법원을 정비한다.
으드드드~~~ 너무 추워. 아무리 껴입어도 춥다구~~
왜 우린 난로가 있어도 켜지 못한단 말인가...
그야. 대법원장님께서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난로를 켜지 말라고 지시하셨으니깐.
크윽... 이건 아니야.
박 판사. 내 잉크 좀 보라구! 얼어서 글씨도 쓸 수 없어.
김 판사, 이 판사. 걱정말게.
대법원장님이 잉크를 녹이기 위해서 잠시 숯불을 쓰는 건 허락하셨으니깐.
뜨아!!
주위에선 내가 판사라고 우러러 보는데
설마 이렇게 궁핍하게 일하는지는 꿈에도 모를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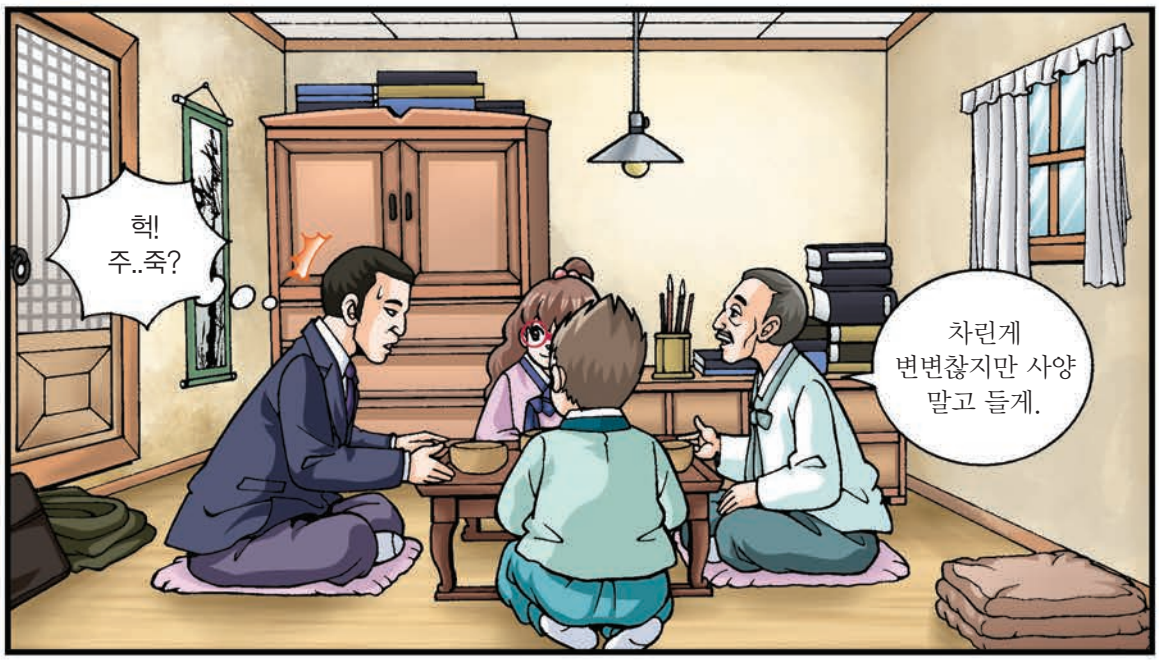

대법원장님께선 예산이 내려오면 아끼고 아껴서 남는 돈을 나라로 돌려 보내고 계시지.
젠장! 그래서 내 봉급이 그토록 쥐꼬리였구만.
어째서 이렇게까지 아껴야 하는거지?
어째서 냐고?
헉! 대법원장님!!


남의 나라 원조로 예산을 짜서 쓰는 판에 우리가 물건을 아껴야지. 독립했다고 선포만 해 놓으면 그것이 나라인가?
돈 없어서 일을 못 하겠으면 그만두고 나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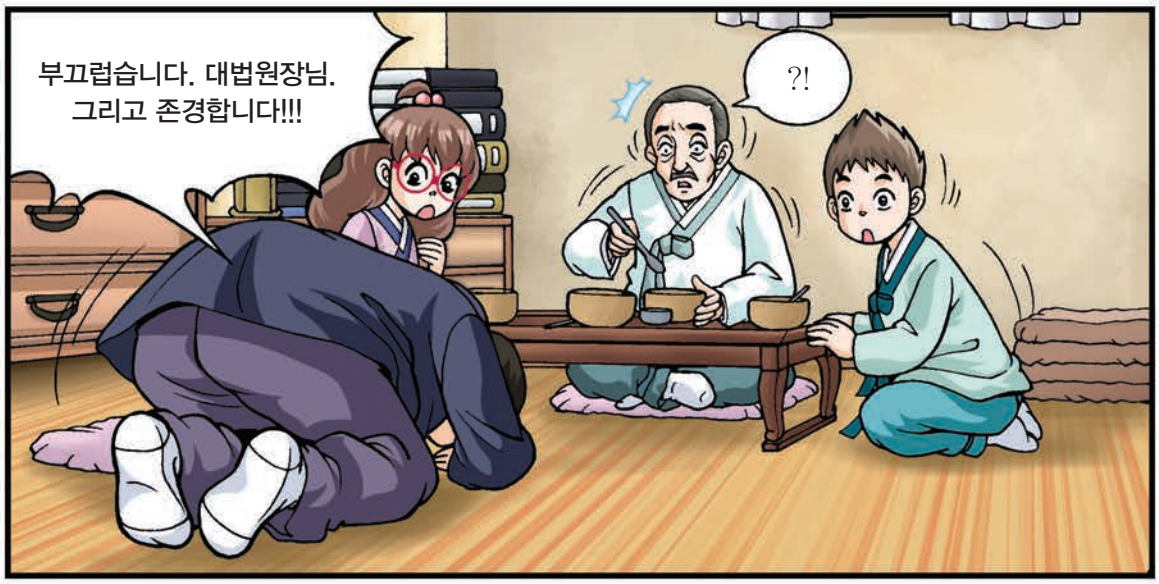

자..잘못했습니다.




... 그래도 예산이 남는다면 봉급을 이렇게 까지 짜게 할 필요는 없잖아.
대법원장님께 개인적인 인정에 호소해 보자.
저기... 누구세요?
응?
난 대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란다. 대법원장님 계시냐?
아! 삼촌께 찾아 오신 판사님이시군요.
곧 식사할 예정인데 어서 들어오세요.
끼익
툭
둥


헉!
주..죽?
차린게
변변찮지만 사양
말고 들게.


그래...! 생각해보면
대법원장님께선 언제나
두루마기에 고무신만 신는
검소한 분이셨지.
연필도 3센티만 남을 때까지
쓰시고 담배도 반으로
잘라 파이프에 꽂아 피셨어...
이런 분께 생활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러 오다니.....


부끄럽습니다. 대법원장님.
그리고 존경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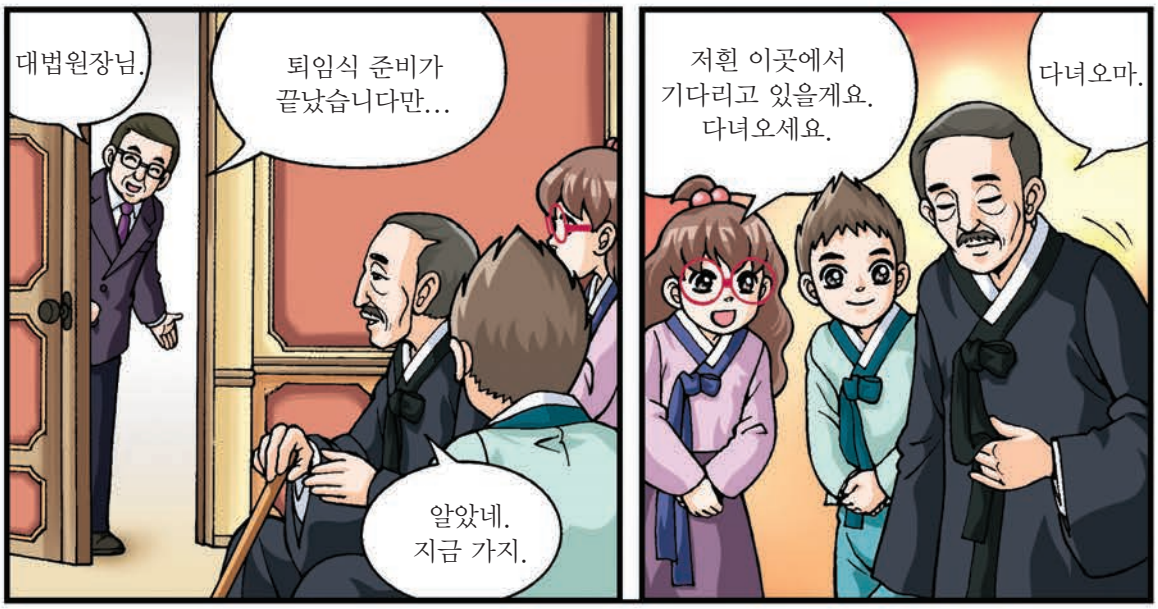

김병로는 9년 3개월간 대법원장직에 있으면서 당시 혼란했던 정치상황에서 권력자들에게 사법부가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애썼다.
재판에서 내가 시키는대로 판결을 내리게.
재판은 오로지 법대로 진행될 뿐이오.
판사가 내린 판결은 나도 어쩔 수 없소. 억울하면 항소하시오.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켰고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냈다.
괜찮소!
몸도 안 좋은데 그만 쉬시지.


김병로가 가진 무기는 청렴과 원칙이었지.
그리고 그 강력한 무기로 부패한 권력에 맞서 이겨냈어.


그리고 1957년.
드디어 오늘 삼촌께서 퇴직을 하시는군요.
꽉
꽉
아이구... 시원하다. 나리야, 이제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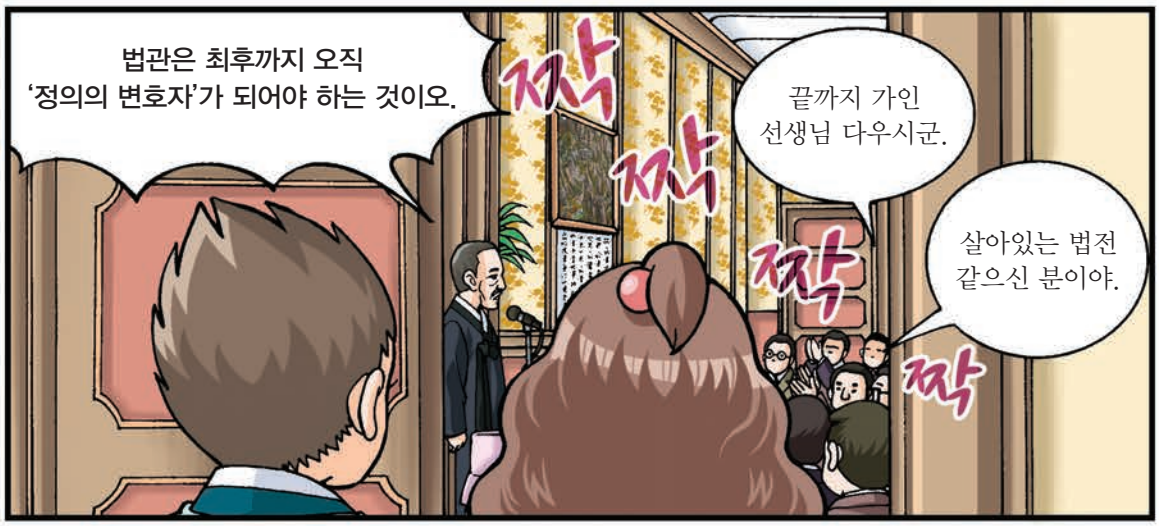

오랫동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법조인의 길을 걸어 오셨는데
스스로 그만두신다니 기분이 이상해요.
후후... 나도 그렇구나.
그런데 궁금한게 있는데요.
삼촌의 호가 '가인'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잃고
갈데 없어진 처지를 생각해 '거리의 사람'이란 뜻으로 지었지.
하지만 이제 해방도 되었고 대법원장으로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해방이 된 뒤에도 현실은 바뀐게 없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여전히 나는 거리의 사람일 뿐이야.
너희도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주렴.
네. 열심히 노력할게요.


대법원장님.
퇴임식 준비가 끝났습니다만…
알았네. 지금 가지.
저흰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녀오세요.
다녀오마.


짝 짝 짝
짝 짝 짝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법질서의 확립과 인권보호를 위해 밤잠을 자지 않고 일하는 법관들을 볼 때마다 나는 안타까운 심정이었소.
허나.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손상이 될 것이오.
정의를 위해 굶어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배 명예로운 것이오.


법관은 최후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오.
짝
짝
끝까지 가인 선생님 다우시군.
짝
살아있는 법전 같으신 분이야.
짝


저런 훌륭하신 분이 우리 나라의 초대 대법원장이셔서 정말 다행이지.
응.


너희들은 왜 박수 안쳐?
깜짝이야.


가인 선생께서는 퇴직 후에도 법조계의 큰 어른으로서
정부의 잘못된 행동에 서슴지 않고 쓴소리를 하셨지.
1963년에는 그간의 공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 받으셨는데
이듬해에 78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고 말아.
어머! 어떡해?
훌륭하신 분이니까. 좋은 곳에 가실거야.
바로미. 가인 김병로 판사님을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난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새삼 감사하게 됐어.
흐뭇~
나라의 독립과 인권, 정의를 지키려고 애쓰신 여러 훌륭한 분들 덕분에 내가 그것들을 모두 누리며 살고 있는 거잖아.
나도 이제는 판사라는 내 꿈에 대해 흔들리지 않을거야.
어떻게 해야 훌륭한 판사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


후훗~ 감동으로 몸이 벅찬 것 같지 않니?
엥? 벅찬 것이 아니라 작아지는 거잖아!!
어머?!
돌아가자 21세기로!!
슈우우우


이제껏 판사님과 함께 있다가 판사님의 유품들을 보니 기분이 묘한걸?
너희들 한복도 어울렸는데 아쉽네.
춘 선비정신
街人 김병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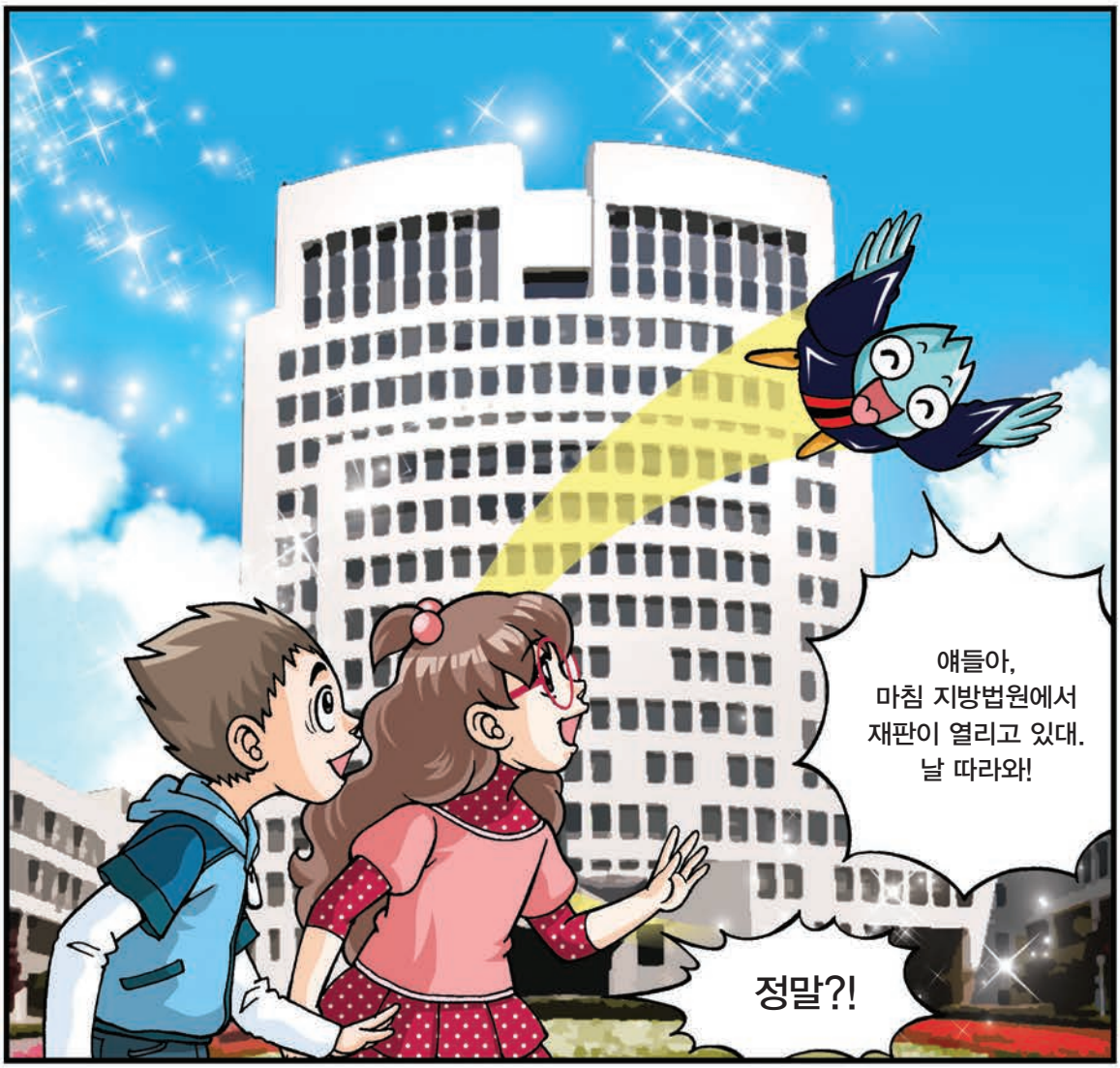

애들아.
곧 관람시간이 끝난단다. 다음에 다시 오렴.
아! 네.


어서 나가자, 나리야.


오늘부터 당장 공부 해야지.
어머, 기합이 단단히 들어 갔는걸.




안녕히 계세요.
대법원장님.
대법원장님께
절대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될게요.
겨레를 비춘 선비정신
가인 街人 김병로


얘들아,
마침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대.
날 따라와!
정말?!



제8화 심화학습

법조인에게 필요한 자질을 생각해 볼까요?

어린이 여러분! 지금까지 법원과 재판이야기를 잘 읽었나요?

그리고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번 화 마지막 장에서는 어린이 여러분에게 '법조인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지식만 잘 알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답니다. 이제부터 제가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첫째



첫째,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는 깊이 있는 법률 지식 습득이 있답니다. 법조인이 얕은 지식으로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면 그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겠지요?

그래서 법조인은 법률 지식을 잘 익혀 사회에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둘째



둘째, 법조인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책 속에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으며, 책을 읽으면 사람의 마음이나 심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한답니다.

다양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면 법을 해석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되겠지요?

셋째



셋째, 법조인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률 구조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때로는 무료 변론을 위해 나설 수도 있는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넷째, 법조인은 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법률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법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미와 함께하는



글 | 서울교육대학교 법과인권교육연구소
그림 | 극동만화연구소

1판 1쇄 | 2014년 2월 10일
개정판 1쇄 | 2024년 10월 ??일

펴낸 곳 | **사법발전재단**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번지 (137-750)
02)3480-1309
대법원 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r/ (사법발전재단)
디자인·인쇄 | 홍디자인 02)464-5167
연구·개발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02)3480-1262

정가 9,000원

ISBN ???
??? (세트)

* 이 책의 내용을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 책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어린이마당 법교육교재 코너
(http://www.scourt.go.kr/kids/edu/edubook/index.html)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